

E02-2009-04/2010.1

제11권 제4호/Vol. 11 No. 4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연구팀이 북한의 최근 농업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1, 4, 7, 10월)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2-3299-4359 전송 02-968-7340
- 내용 문의:

권태진	kwontj@krei.re.kr	02-3299-4255
김영훈	kyhoon@krei.re.kr	02-3299-4367
남민지	mj0801@krei.re.kr	02-3299-4359
한보영	boyoung@krei.re.kr	02-3299-4374

목 차

□ 포커스

2010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 3

□ 동향분석

- | | |
|--------------|------------------|
| 1. 농업정책 / 30 | 6. 농업기반 / 72 |
| 2. 벼농사 / 48 | 7. 산 림 / 75 |
| 3. 밭농사 / 60 | 8. 기타 작물 / 81 |
| 4. 감자농사 / 62 | 9. 기타 보도 동향 / 85 |
| 5. 축 산 / 65 | |

□ 농업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 117
 -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117
 - 2. 교류협력사업 동향 / 130
 - 3.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131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 142
 -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142
 -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 149
- 북중 교역 동향 / 163
 - 1. 북한의 곡물 수입 동향 / 163
 - 2. 북한의 비료 수입 동향 / 166

□ 농업자료

- 북한의 기상 / 171

포커스

- 2010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2010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권 태 진

(선임연구위원, kwontj@krei.re.kr)

남 민 지

(초청연구위원, mj0801@krei.re.kr)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09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조곡 기준 432만 톤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식으로 간주되는 감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감자를 포함하고 북한 주민의 식생활 습관을 고려하여 정곡으로 환산하면 2009년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380~400만 톤으로 추정된다. 이를 농촌진흥청이 추정한 2008년 식량생산량과 비교하면 9% 정도 감소한 것이다.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여 2010년 북한의 곡물 소요량을 추정하면 523만 톤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120~140만 톤가량 부족하다. 예상되는 북한의 상업적 수입을 고려할 경우 식량 부족량은 최소 100만 톤이다. 따라서 북한은 2010년 100만 톤 이상의 곡물을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지 않으면 식량부족을 겪게 된다.

현재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를 감안할 때 국제사회는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만큼 호의적이지 않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부족량은 70~80만 톤이나 된다. 만일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과거 한국이 북한에 지원하였던 대규모 식량 지원을 재개하고 2008년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겠다는 식량 중 아직 인도되지 않은 식량을 북한에 제공할 경우 북한의 식량 문제는 거의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2010년 북한은 식량 부족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국가 수준의 식량안보도 취약하지만 가계 수준의 식량안보는 더욱 취약하다. 2007년부터 3년 연속으로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는 매우 열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금년에 식량사정이 더욱 나빠진다면 일부 취약계층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09년 11월 말 북한이 화폐교환을 단행한 후 시장의 기능은 크게 약화되었다. 북한 당국은 화폐교환과 함께 시장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시장에서의 식량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100:1 화폐교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임금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질소득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상품의 공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식량을 비롯한 상품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앞으로 춘궁기가 가까울수록 식량 가격은 더욱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예상이 현실화되면 주민의 식생활은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국제관계를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 6자회담 복귀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이끌어 내고 국제규범에 맞는 인도적 지원 원칙을 지켜나감으로써 당면한 식량 부족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1. 서론

북한의 식량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작황이다. 또한 작황 이외에 국제 곡물가격, 북한의 곡물 수입 능력,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북한의 식량관리 능력, 식량배급 상황, 국내 곡물 시장가격, 주민의 식량 구입 능력, 가축 사육 상황, 곡물 재고량 등도 식량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2~3년간은 북한의 식량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작황이 나빴기 때문에 식량사정이 좋지 않았던 경우, 작황은 괜찮았으나 국제사회의 지원이 감소하여 식량사정이 심각했던 경우,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여 곡물 수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었다. 그러나 여러 해에 걸쳐 북한 주민들이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받은 공통적인 요인으로는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감소를 꼽을 수 있다.

2007년의 경우 북한은 좋지 않은 기상과 수해 피해로 인해 작황이 저조하였으며, 2008년에는 세계적인 곡물 파동으로 인해 곡물 가격이 급등한 데다 중국 등 여러 국가들이 곡물 수출을 중단하거나 통제함으로써 곡물수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2008년과 2009년에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비료 지원을 중단하여 북한의 곡물 생산은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금년 1월 1일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농업과 경공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들 부문은 주민의 생활과 직접 연계되기 때문에 주민 생활 개선을 우선 해결과제로 삼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농업과 경공업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농업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으로서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 등 기존의 정책을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다 유기농법 등 새로운 영농기술의 도입, 독자적인 육종체계의 확립, 현대적인 축산·양어·과일 생산에 대해 강조하였다는 점이 기존의 정책과 약간 차별화된다.

농업과 경공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4대 선행 부문을 재차 강조하는 까닭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이들 부문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가용 자원의 제약 하에서 부분 간 자원 배분을 어떻게 조정하고 부분과 부문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계획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진다. 특히 상품유통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언급은 정치적인 수사 이상의 것으로 이해된다.

북한의 이와 같은 정책 구상으로 올해 식량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 볼 일이다. 이 글에서는 2010년 북한의 식량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정리하고 수급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2. 2009년 북한의 식량수급 실태

북한은 식량생산량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작황을 알고자 한다면 농촌진흥청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의 추정치, 그리고 전문가의 추정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FAO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북한의 곡물생산량을 추정하여 발표하였으나 그 후 몇 년 동안 발표를 중단하였다가 2008년 가을부터 다시 추정치 발표하였다. 2010년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식량은 2009년 가을에 수확한 곡물과 2010년 여름에 수확할 예정인 이모작 곡물을 합한 것이다. 그렇지만 2010년 여름에 수확할 곡물은 현 시점에서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9년 1년 동안 생산한 곡물의 양을 2010년 자체 공급량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농촌진흥청은 2008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431만 톤(정곡기준)으로 추정 발표하였다. 곡물 생산량에는 쌀, 옥수수, 보리, 밀, 콩, 잡곡 등 곡물뿐만 아니라 감자를 곡물로 환산하여 곡물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표 1>. 북한에서 감자는 중요한 식량작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2008년 북한은 비료 부족에도 불구하고 기상 여건이 좋았고 여름철 홍수 피해가 없어 작황이 비교적 좋았다.

표 1. 농촌진흥청의 2008년 북한 곡물 생산량 추정치(정곡 기준)

구 분	계	쌀	옥수수	두류	서류	맥류 및 잡곡
재배면적 (1,000ha)	1614	587	526	139	201	137
수량 (톤/ha)	-	3.17	2.89	1.15	2.54	1.76
2008생산량 (만 톤)	431	186	154	16	51	24
2007생산량 (만 톤)	401	153	159	15	47	27
2007년 대비(만 톤)	+30	+33	-5	+1	+4	-3
2007년 대비(%)	+7.5%	+21.6	-3.1	+6.7	+8.5	-11.1

* 감자와 고구마는 곡물(정곡) 환산율 25% 적용.

북한의 자체 식량 생산량은 최소 소요량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고도 매년 상당한 양의 식량을 중국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다. 2009 양곡연도(2008.11-2009.10) 동안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식량은 밀가루와 및 두류를 포함하여 대

략 15만 톤 정도이다<표 2>. 이는 전년에 비해 35% 감소한 양이다.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수입 통계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년에 비해 곡물 수입량이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류의 수입량은 전년에 비해 50% 가량 증가하였다. 특히 가격이 오른 쌀과 밀가루의 수입량은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표 2.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실적, 2008-2009

HS코드	품 목	2008(2007.11-2008.10)			2009(2008.11-2009.7)*		
		수입액(천\$)	단가(\$/kg)	수입량(톤)	수입액(천\$)	단가(\$/kg)	수입량(톤)
1003	보리	160	0.41	390	122	0.35	350
1005	옥수수	32,275	0.27	121,259	14,447	0.24	60,334
1006	쌀	15,508	0.33	46,966	12,902	0.37	34,547
1007-8	잡곡	433	0.41	1,045	408	0.41	988
1003-1008	소계	48,376		169,660	27,879		96,219
1101	밀가루	10,647	0.26	40,518	6,523	0.31	21,318
1201	두류	11,860	0.52	22,443	16,779	0.50	33,696
1003-1201	합계	70,882		232,621	51,181		151,233

* 2009년 8월 이후 중국은 북한에 대한 곡물 수출 통계를 공개하지 않음. 통상 8월부터 10월까지 북한은 해외로부터 곡물을 거의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7월까지의 수입량을 연간 수입량이라고 가정해도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2009년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이 크게 감소하였다. 한국의 대북 식량차관은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전면 중단되었으며 유엔을 비롯한 각국의 식량지원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09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액은 전년의 4,358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4,193만 달러에 그쳤다.¹⁾ 식량 지원의 경우 2008년의 398만 달러에서 2009년 2,198만 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2004년 이전의 지원액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것이다. 특히 2008년 북한의 식량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은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2010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가. 식량 공급 전망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09년 북한이 자체 생산한 알곡은 조곡 기준 432만 톤, 정

1) 2009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동향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 뒷부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 협력 동향” 참조.

곡 기준 352만 톤, 소요량은 474만 톤이어서 125만 톤가량의 곡물을 외부에서 조달해야만 수급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추정한다.²⁾ 그러나 FAO의 추정치에는 북한에서 널리 식량으로 이용되는 감자의 생산량을 포함시키지 않은데다 소요량에 있어서도 수확 후 감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통상적인 식량 수급 추정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AO의 추정치에다 감자를 곡물로 환산한 생산량을 더하면 2009년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501만 톤으로 추정된다<표3>. 여기에다 작물별 정곡환산율을 적용하면 388만 톤이 된다. 다만 2008년과는 달리 2009년에는 FAO가 텃밭 및 경사지에 대한 생산량 추정치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추정치를 적용할 경우 2009년 북한의 식량총생산량은 조곡 기준 524만 톤, 정곡 기준 405만 톤이다.

표 3. FAO의 2008년과 2009년의 곡물 생산량 추정치 비교(조곡 기준)

구 분	2008년			2009년*		
	면적 (천ha)	수량 (톤/ha)	생산량 (천톤)	면적 (천ha)	수량 (톤/ha)	생산량 (천톤)
본답(A)						
쌀	570	2.90	1,657	569	4.10	2,336
옥수수	503	2.81	1,411	503	3.39	1,705
감자	181	2.20	380	50	2.79	139
기타	82	1.39	114	160	1.38	240
소 계	1,336		3,562 (2,751)	1,282		4,420 (3,342)
이모작(B)						
겨울밀/보리	56	1.70	96	74	2.32	173
봄밀/보리	22	1.46	32			
봄감자	128	2.31	295	131	3.20	419
소 계	206		423 (423)	205		592 (540)
합 계(A+B)	1,542	-	3,985 (3,174)	1,428	-	5,012 (3,882)
텃밭(C)	25	3.00	75 (56)	-	-	-
경사지 등(D)	300	0.50	150 (113)	-	-	-
총 계(A+B+C+D)	1,867	-	4,210 (3,342)	1,528	-	5,012 (3,882)

* ()안은 정곡환산량임. 2009년의 경우 정곡환산율은 쌀 66%, 옥수수 85%, 밀/보리 70%, 콩 100%, 기타 70% 적용. 감자는 곡물환산율 25% 적용.

자료: FAO(2009)

FAO가 추정한 2009년 식량생산량 추정치 중 선뜻 동의하기 힘든 부분은 옥수수이다 이미 FAO가 밝힌 바 있듯이 북한은 2009년 7월 중순 이후 3주 동안 계속된 가뭄으로 특

2) FAO. Global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on Food and Agriculture(GIEWS). Nov. 12, 2009.

히 북부 평야지대의 옥수수 생산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더욱이 2009년에는 한국의 대북 비료 지원이 중단된 데다 해외로부터의 비료 수입도 원활치 않아 비료 사용량이 1989년 이래 가장 낮은 446,000톤(중량 기준, 성분량 기준 10만 톤 내외)에 지나지 않았다. 옥수수는 비료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작물이다. 비료가 부족할 경우 옥수수의 생육은 큰 영향을 받는다. 게다가 옥수수는 쌀 등 다른 작물에 비해 비료 사용의 우선순위도 낮아 비료가 부족할 경우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의 옥수수 수량은 2008년에 비해 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많은 농업 전문가들은 2009년 FAO의 옥수수 생산량 추정치가 높다고 평가한다. 농촌진흥청이 추정한 2008년도 옥수수 생산량 141만 톤과 비교해도 FAO가 추정한 2009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20%나 높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경우 텃밭과 경사지를 감안하더라도 2009년 북한의 식량총생산량이 500만 톤(조곡 기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정곡으로 환산했을 때 380~400만 톤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07/08~2008/09

단위 : 수입량(천 톤)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08.11	0	0	0	0	0
12	3,698	0	0	5	3,703
2009.01	21,900	0	0	5	21,905
2	5,486	0	0	40	5,526
3	59	0	0	8	67
4	6,001	1	0	32	6,034
5	4,589	0	0	10	4,599
6	20,745	0	0	3	20,748
7	46,534	0	0	0	46,534
누 계	109,012	1	0	103	109,116
2007.11	0	0	0	0	0
12	0	0	0	0	0
2008. 1	632	0	0	3	635
2	2,525	0	0	0	2,525
3	3,800	0	22	117	3,939
4	2,765	0	4	157	2,926
5	5,645	0	0	1	5,646
6	5,738	0	0	40	5,778
7	6,365	0	0	7	6,372
8	10	0	0	0	10
9	0	0	0	0	0
10	0	0	0	0	0
누 계	27,470	0	26	325	27,831

주 : 2009년 7월 이후 중국 정부는 북중 교역통계를 공개하지 않음.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북한의 곡물생산량을 추정하는 양대 기관 중 하나인 농촌진흥청은 아직까지 2009년 북한의 식량생산량 추정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추정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농업과학자들의 일반적인 관측은 2009년 북한의 식량생산량이 2008년에 비해 5~10% 정도 감소하였다는 데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2008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431만 톤(정곡 기준)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농업과학자들의 예측치를 적용하면 2009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390~410만 톤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FAO의 추정치에 비하면 약간 높은 수치이다. 2008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 추정치의 경우 FAO와 농촌진흥청의 추정 결과는 100만 톤이나 격차가 있었다. 여기에 비하면 금년에는 양 기관의 추정치가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9년 북한에 대한 한국의 비료 지원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10만 톤(성분량 기준, 중량 기준 446,000톤) 내외의 비료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에서 많은 비료를 수입하였기 때문이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2009 양곡연도 동안 중국에서 총 11만 톤의 비료를 수입하였다. 이는 전년 수입량의 4배에 해당한다. 다만 2008년의 경우 성분 함량이 높은 요소 비료의 비중이 훨씬 높았으나 2009년에는 요소 비료와 유안의 비율이 반반 정도였기 때문에 성분량 기준으로 비교하면 그 격차는 다소 줄어든다. 수입액을 비교하면 2008년에는 1,166만 달러였으나 2009년에는 2,321만 달러로 2배가량 된다. 2009년에는 북한의 자체 비료 생산량도 2008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식량 수요 전망

식량수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식용 수요 이외 종자용, 사료용, 가공용, 감모 등 용도별 수요를 각각 추정하여 합산한다. 이 중에서도 식용 수요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인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1인당 연간 식용 소요량에다 인구수를 곱하면 전체 식용 소요량을 구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의 인구를 파악하는 일이다. 북한은 1993년 인구센서스를 실시한 이래 15년 동안 한 번도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지 않다가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유엔인구기금(UNFPA)이 2008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북한 당국과 공동으로 북한 지역의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였다. 북한의 총인구는 2,405만 명으로 추계되었다. 이 결과는 지금까지 한국의 통계청이 추계한 인구와 75만 명 정도 차이가 있다. 통계청은 2008년 7월 1일 기준 북한 인구를 2,330만 명으로 추정하였다.³⁾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은 2008년 7월 기준 북한의 인구를 23,479,088명으로 추정하였으므로 센서스 인구와 57만 명 정도 차이가 있다.⁴⁾ FAO와 WFP는 2009년 연도 중 북한의 인구

3)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09.

를 2,360만 명으로 추정하는 바 있으므로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0.6%를 적용할 경우 2008년 기준 인구센서스와는 55만 명 정도의 격차가 있다.⁵⁾ 2008년 실시된 인구센서스를 기준으로 연 인구 증가율 6%를 적용할 경우 2010년 7월 1일 기준 북한 인구는 2,430만 명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식량 수요를 파악할 때도 추정 기관에 따라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WFP는 북한의 식량 수요를 추정할 때 정상적인 수요보다는 최소소요량 기준으로 추정 발표하고 있다. WFP는 북한을 긴급식량지원 국가로 취급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일 2,130 kcal의 75%만을 감안하여 1인당 1일 1,600 kcal (연간 167 kg)을 식용소요량으로 추정한다. FAO/WFP가 추정한 인구를 적용하여 식용 소요량을 추정하고 사료용, 종자용, 가공용, 감소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정을 바탕으로 2009/10 양곡연도의 곡물 총소요량을 추정하면 523만 톤으로 추정된다. 이 중 실제 소요량은 465만 톤이며 수확 후 손실은 58만 톤이다.

- 식용: 4,058,000톤(1인당 연간 167kg)
- 사료용: 300,000톤(북한당국의 추정치)
- 종자용: 170,000톤(ha당 정곡 기준 쌀 97.5kg, 옥수수 45kg, 밀·보리 200kg, 감자 375kg, 두류 45kg 적용)
- 가공용: 122,000톤(식용 소요량의 3%)
- 수확 후 손실: 580,000톤(곡물 생산량 추계치 390만 톤의 15%)
- 총소요량: 5,230,000톤

추정 기관에 따라 식량 수요의 기준이 다르며 인구, 곡물 생산량, 곡물 재배면적에 대한 추정치도 다르기 때문에 전체 식량소요량 추정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세계식량계획의 기준을 적용하여 2010년 북한의 곡물소요량을 추정하면 522만 톤이 된다<표 5>.

4)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kn.html#People>

5)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c. 8, 2008.

표 5. 2010 양곡연도 북한의 곡물소요량 추정

단위 : 정곡 1,000톤

용도		WFP 기준	비 고
인구(만명)		2,430	연도 중간 인구
용 도 별	식 용	4,058	기타는 수확 후 손실 등
	사료용	300	
	종자용	170	
	가공용	122	
	기 타	570	
합 계		5,220	

다. 식량 수급 전망

FAO의 2009년 자체 식량생산량은 최소소요량 522만 톤에 비해 120~140만 톤가량 부족하다. 식량 공급 부족량 중 통상적인 상업적 수입량 20만 톤을 감안하면 100~120만 톤 내외의 부족이 예상된다. 결국 2010년 북한의 식량 사정은 국제사회가 얼마만큼 북한을 지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0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현재 북한은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여러 의제를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과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먼저 풀려야만 6자회담의 복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6자회담을 무력화하고자 시도한 바 있기 때문에 나머지 5개국은 이전에 비해 6자회담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더욱 주저하게 만든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복귀 그 자체만으로는 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일단 북한이 6자회담의 틀 속에 들어올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반대급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가운데는 미국의 역할이 향후에도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08년 6월부터 1년 동안 총50만 톤의 곡물을 북한에 지원하되 40만 톤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10만 톤은 미국의 5개 구호단체(NGO)를 통해 제공키로 하였다. 2008년 6월 30일 첫 배가 37,000톤의 밀을 북한에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8 양곡연도 동안 총 118,000톤의 식량이 북한에 지원되었다. 이 중에서 WFP를 통해 지원된 식량은 98,000톤이며 나머지는 NGO를 통해 지원되었다. NGO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계

획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9년 초까지 지속되었으나 WFP를 통한 식량 지원은 분배투명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2008년 8월에 중단되었다. 이 계획은 당초 2009년 5월말 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요청에 의해 2009년 3월에 이 계획은 중단되었다. 10여 개월 동안 미국의 5개 구호단체는 총 71,000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따라서 WFP와 NGO를 통해 지원된 식량은 총 169,000톤에 이른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식량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접근성이 허용되어야 하고 분배의 투명성과 함께 분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추어져야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미국의 “북한인권법(P.L. 108-333)”에도 명문화되어 있다.⁶⁾

세계식량계획(WFP)은 2009년 북한의 취약계층 620만 명을 대상으로 총 63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3억 4,600만 달러의 원조 계획을 세웠으나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실적은 매우 저조하였다. 2009년에 WFP가 북한에 실제 지원한 식량은 총 1,490만 달러에 불과하여 당초 계획의 5%에도 미치지 않았다. WFP는 2008년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대행하면서 이전에 비해 좀 더 개선된 형태의 분배투명성 및 모니터링 조건을 북한과 합의하였다. 식량 지원 대상 지역을 133개로 확대하였으며 상주 직원수를 59명으로 늘림과 동시에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합의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여 WFP는 결국 3개월 여 만에 지원 활동을 중단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합의는 향후 대북 식량 지원을 재개할 때 그대로 적용하거나 좀 더 강화된 형태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 WFP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더라도 분배의 투명성 확보, 모니터링, 지원의 효과성을 둘러싸고 북한 당국과 적지 않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남북관계에 비추어 볼 때 2010년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한국 정부는 이미 2009년부터 대북 식량지원 정책을 기존의 차관 방식에서 무상지원으로 전환하였다. 2009년에는 대북 식량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 지원에 따른 지원 절차를 북한과 논의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한국 정부는 2009년 10월 북한에 옥수수 10,000톤의 지원을 제의하였지만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다가 2010년 1월에 들어서야 북한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다. 2010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 중에는 북한에 대한 식량과 비료의 무상지원 예산 6,16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의 국제 곡물 및 비료 시세를 감안하면 곡물 40만 톤, 비료 30만 톤의 지원이 가능하다. 2009년 예산에도 식량과 비료의 무상지원 계획이 있었으나 한 푼도 지출되지 않았다.

6) Manyin, Mark E. and Mary Beth Nikitin. *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 CRS Report for Congress. R40095. Sep. 9, 2009.

중국은 2010년에도 대북 식량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의 대북 식량 지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은 가장 안정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이다. 중국은 1996년부터 매년 10~55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해왔다. 1995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중 중국의 기여 몫이 27%를 차지한다. 중국의 대북 식량 지원은 연도에 따라 차이가 심하기는 하지만 매년 30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북한의 식량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이 정도의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시점에서 2010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을 예상하기란 매우 어렵다.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도 지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도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비관적인 시나리오와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예상되는 식량지원 가능성을 전망해 보기로 하자.

먼저 남북관계가 현재의 상황에서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북한이 6자회담의 복귀를 계속해서 미루는 경우, 즉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전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WFP의 대북 식량지원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5년까지만 해도 연간 지원량이 30만 톤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10만 톤 이하를 맴돌고 있다.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2010년에도 WFP의 대북 식량 지원량은 10만 톤 이상을 예상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도 탄력을 받기 어렵다.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최대의 지원량은 10만 톤 가량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대북 지원은 북중관계의 긴밀도와 북한의 식량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비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더 많은 식량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북한의 작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2010년 대북 식량 지원량은 20~30만 톤까지 가능할 것이다. 비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의 대북 식량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면서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개선되지 못할 경우 2010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은 40~50만 톤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더라도 북한은 여전히 50~70만 톤의 식량 부족이 예상된다.

만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여 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고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해제되는 낙관적 상황을 가정하면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제일 먼저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양자 지원 형태로 최대 40만 톤까지 곡물 지원이 가능하다. 이 뿐만 아니라 WFP 등을 통해 추가로 10만 톤 정도의 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낙관적인 상황에서는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2008년 추진된 대북 식량지원 계획 중 아직 전달되지 못한 30만 톤의 지원은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2008년 실시한 북한 어린이의 영양조사 결과가 금년 중반쯤 공개

되면 국제사회의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며 이를 계기로 대북 식량지원이 2005년 즈음의 연간 30만 톤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도 2006-07년 수준인 3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은 100~110만 톤까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 정도의 양이라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해 부족한 식량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2010년 북한의 식량수급은 2009년에 비해 더욱 불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작황이 좋지 않았던 데다 외환 부족 때문에 북한이 자력으로 부족한 식량을 수입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의 식량 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다. 현재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도 호의적이지 않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미루고 있는데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수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는 선뜻 식량을 지원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말 단행한 화폐교환도 주민의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화폐교환 조치는 단순히 화폐의 가치를 조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북한 당국이 시장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시장의 위축에 따라 주민의 식량안보는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 필요한 식량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통제에 따라 가격도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식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소득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벌써부터 시장에는 식량이 귀하고 값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춘궁기가 가까워 올수록 식량의 품귀 현상은 심화될 것이고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식량수급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에 대한 검토

북한의 식량수급을 전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위협을 무릅써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추정과 전망의 특성상 정확한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경우 기초자료가 빈약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이번 글에서는 과거 추정치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이전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좀 더 정확한 전망을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요소가 많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식량수급을 구성하는 공급 측면, 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 공급량 추정

(1) 정곡환산율

곡물을 수확하면 그대로 소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확된 형태 그대로 무게를 측정한 것이 조곡 환산량이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된 것을 정곡 환산량이라고 한다. 쌀의 경우 벼의 형태로 수확을 한 후 1차 도정을 하여 벼의 껍질을 벗겨 내면 현미가 되고 다시 2차 도정을 하여 백미를 만든다. 현미 형태로 소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백미로 도정하여 소비한다. 현미를 백미로 가공하는 과정에서도 가공 정도에 따라 9분도, 10분도 등으로 구분한다. 분도 수가 높을수록 쌀알이 많이 깎인다.

정곡으로 환산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쌀이다. 통상 FAO 등 국제기구에서는 북한에서 생산된 벼를 정곡으로 환산할 때 정곡 환산율 65%를 적용하였다. 이를 적용하면 벼 100만 톤은 쌀 65만 톤으로 환산된다. 남한에서는 통상 72%를 적용한다. 북한에서 벼를 연구하는 농업과학자나 협동농장 관계자들은 북한산 벼에 적용하는 정곡 환산율 65%가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정곡 환산율을 70% 정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하고 있다. 2009년 북한의 벼 생산량이 234만 톤일 경우 정한 환산율을 각각 달리 적용할 경우 쌀 생산량은 12만 톤의 격차가 있다.

옥수수도 문제이다. FAO는 2004년까지만 해도 옥수수에 대해서는 정곡 환산율 100%를 적용하였다. 조곡과 정곡이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2008년에는 옥수수에 대해 정곡 환산율 85%를 적용하였다. 옥수수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면 15%의 중량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옥수수는 사료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정곡 환산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북한에서 옥수수는 중요한 식량자원이며 주곡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달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2009년 옥수수의 생산량이 179만 톤일 경우 정곡 환산율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25만 톤의 격차가 발생한다.

밀, 보리, 잡곡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추정할 때 지금까지는 이들 곡물에 대해 정곡 환산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한의 정곡 환산율 적용 기준에 따르면 이들 곡물의 정곡 환산율은 70% 내외이다.⁷⁾

(2) 텃밭 농사

북한에서는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대부분의 가옥에 텃밭이 딸려 있다. 농촌의 경우

7)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단이 발간한 「양정자료」(2009. 2)에 의하면 옥수수의 정곡 환산율은 100%, 겉보리 59%, 쌀보리 68%, 수수 69%, 메밀 88%, 기장 80%이다.

가구당 30평 내외, 도시에는 10평 내외이다. 도시의 아파트에 사는 주민은 아파트 주변의 빈 땅을 텃밭 형태로 사용하기도 한다. 주민들은 통상 텃밭에다 채소 등을 심어 부식으로 이용한다. 그러나 요즘처럼 식량이 부족한 경우 감자, 옥수수, 콩 등을 심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담배를 심어 시장에 팔기도 한다. 텃밭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추정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우선 텃밭의 규모가 잘 알려지지 않은데다 곡물을 어느 정도 심는지 추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농가 인구는 850만 명, 농가 호수는 200만 호로 추정된다. 농가의 경우 호당 30평, 비농가의 경우 호당 10평씩 텃밭이 있다고 정하면 전체 텃밭 면적은 32,000ha 정도가 된다. 이 중 곡물 재배면적을 75%라고 가정하면 텃밭의 곡물 재배면적은 24,000ha이다. ha당 곡물 수량을 3톤 정도로 계산하면 텃밭에서 생산되는 전체 곡물 생산량은 72,000톤이고 여기에 정곡 환산율 85%를 적용하면 60,000톤 정도의 곡물을 생산하는 셈이 된다. 이는 FAO가 2008년 추정된 텃밭의 곡물생산량 56,000톤(정곡환산량)과 큰 차이가 없다.

(3) 경사지 농사

경사지 농사란 협동농장이나 텃밭 등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산림이용반이 관리하는 공식적인 경사지도 있고 개인이 산이나 하천 등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다. 북한에서는 이를 통칭하여 ‘소토지 농사’라고 불린다.

문제는 소토지 농사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소토지 농사는 협동농장이나 국영농장에 비해 단위 면적당 수량이 높다고 한다. FAO는 2008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사지 재배면적을 30만 ha, ha당 수량을 0.5톤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대해 반박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탈북자 조사에 의하면 소토지 농사 면적이 호당 100~1,200평으로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협동농장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2~3배는 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소토지의 위치에 따라 수량 격차가 크게 날 것으로 짐작된다. 대부분의 소토지가 경사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리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농자재마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높은 수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북한의 비공식 경작지 면적을 7~30만 ha까지 다양하게 추정하고 있다. 호당 소토지 농사 면적을 평균 300평이라고 가정하면 200만 농가가 재배하는 소토지 농사 면적은 20만 ha로 추정된다. 최근 북한 당국은 경사지 농사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허용된 경사지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토지에서 주로 경작하는 작물은 옥수수, 보리, 감자 등이다. 소토지 농사를 하려면 토지사용료를 납부

하고도 이익이 남아야만 하므로 ha당 생산량은 그것을 시장가치로 환산했을 때 토지사용료보다 높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소토지에서 경작되는 작물의 ha당 평균 수확량을 1톤으로 계산할 경우 20만 ha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생산량은 20만 톤이다.

(4) 재고량 또는 이월량

식량수급을 추정할 때 전 양곡연도에서 이월된 식량, 즉 기초재고량은 당년의 공급량에 산입하고, 다음 양곡연도로 이월하는 식량은 공급량에서 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기초재고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식량수급을 추정할 때 재고량을 감안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 양곡연도에서 이월되는 식량과 다음 양곡연도로 이월하는 식량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식량수급 추정에서 재고량은 고려되지 않게 된다.

남한의 경우 양곡 이월량이 200~300만 톤 정도이다. 이는 전체 공급량의 10~15%를 차지한다. 북한의 양곡 이월량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사회주의 통제경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대략 50만 톤 정도는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전체 식량 공급량의 10%에 해당하는 것이다.

(5) 수입량

수입량은 식량의 공급량을 구성하는 중요한 항목이다. 북한과 같이 식량 생산량이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입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식량 수입량 통계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한의 수입 상대국 통계에서 북한에 대한 수출량을 북한의 수입량으로 삼는다. 이를 거울 통계라고 하는데 북한의 교역 상대국이 발표하는 통계가 정확하다면 수출입 시차로 인한 차이만 극복하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교역 상대국이 대북 식량 수출 통계를 공표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수입량 통계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의 주된 식량 수입국 대상국은 중국이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에서 북한으로 이동되는 식량이 반드시 수출입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상황에 따라서는 민간단체나 국제기구가 중국에서 구입한 식량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상업적 교역과 지원을 엄밀히 구분하기란 곤란하다.

중국은 2009년 8월 이후 북중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역에 대해 일체의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후 북중 사이에 이동되는 물품의 적정성에 관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짐작된다. 통상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은 북한이 중국에서 식량을 거의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7월까지의 통계만을 이용하더라도 2009 양곡연도의 곡물 수입량 추계에 커다란 오차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지

만 정확한 수입량을 추계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북한이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식량에 대해서는 거울 통계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해당 국가의 무역 통계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하기란 매우 어렵다.

(6) 국제사회의 지원

북한의 식량 공급량 추계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2000년대 초반에는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해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식량을 지원하기도 했다. 전체 식량 공급량 중 국제사회의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크게 감소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량을 알기 위해서는 각국 또는 지원단체가 발표하는 통계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세계식량계획은 INTERFAIS(International Food Aid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전세계의 식량지원 동향을 집계하고 있다. 북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경우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각국이 세계식량계획에 제출하는 통계에 근거하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지원량을 파악할 때 실제로 지원이 실현된 부분(paid contribution)만은 감안해야 하며 식량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부분(commitment)까지 포함하면 오류를 범하게 된다.

흔히 범하는 오류 중의 하나는 개별 국가가 북한에 지원한 통계와 WFP가 지원한 실적을 이중으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때는 개별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bilateral assistance) WFP를 통해 지원하는 다자지원(multilateral assistance)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이 경우 각각의 지원 통계를 모두 합산하게 되면 중복 계산이라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나. 소요량 추정

(1) 식용소요량

북한의 식량 수요를 추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수요라 하면 유효수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의향과 지불능력을 함께 감안한 개념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식량은 기본적으로 배급제도에 의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수요가 있더라도 배급량 이상은 곤란하다. 최근 식량배급제도가 붕괴되면서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충분한 배급을 받지 못하고 시장을 통해 부족한 양을 구입해야

한다. 협동농장 농장원의 경우 수확 후 협동농장에서 분배하는 양에 따라 그들의 식량 수요가 결정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북한은 식량 수요 대신 소요량을 추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식량배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모든 주민은 1~9등급으로 분류된 배급량 만큼 구입할 수 있다. 배급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던 1980년대만 하더라도 갓난아기(9등급)부터 중노동자(1등급)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직업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고 등급에 따라 1일 배급량이 분배되었다. 그러나 식량사정이 어려워지면서 1일 배급량의 일정 부분만을 배급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배급 등급별 인구수가 정확히 산정되어 있다면 식용 식량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으나 이런 자료를 구하기는 어렵다. 설령 이와 같은 자료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얼마나 배급될 것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식량 소요량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대안으로 1인당 평균 식량 소요량에다 인구수를 곱하면 전체 주민의 식량 소요량을 대략적으로 구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간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1인당 1일 2,130 kcal의 열량이 필요하다고 권장한다. 이는 열량만을 고려한 것이며 영양성분까지 고려하면 좀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북한처럼 식량사정이 열악한 경우 정상적인 식품 섭취가 어렵다고 보고 최소한도의 열량을 제시한다. 1인당 1일 섭취해야 할 최소한도의 열량은 정상 열량의 75%인 1,600 kcal이며 이를 곡물로 환산하면 연간 167 kg이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는 인구수이다. 평균적인 개념을 적용하더라도 정확한 인구가 있어야 연간 필요한 곡물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 북한 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집계된 것은 1993년에 실시된 인구센서스였다. 그 동안 국제사회는 1993년에 실시된 인구센서스를 기초로 당해 연도의 중간 시점 인구를 추정하여 식량 소요량을 파악하였다. 이 방식에 의해 추정된 북한의 인구는 2,350만 명 정도였다. 그러나 2008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해 15년 만에 북한에서 인구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결과 당시의 인구는 2,405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지금까지 사용되는 2,350만 명과는 50여 만 명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2008년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중간시점인 2010년 7월 1일 인구를 추정하여 2010년의 식량 소요량을 추정하였다. 곡물의 종류에 따라 발생하는 열량에 차이가 있으며 곡물 이외의 식품 섭취에 의해 발생하는 열량이 일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최소소요량 기준의 열량을 기초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는 무시하였다.

(2) 사료용 수요

남한의 경우 사료용 곡물 수요는 축종별 사육두수에다 축종별 사료 소요량을 곱하여

계산한다. 북한의 경우에는 축종별로 정확한 가축 사육두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곡물 사료보다는 조사료 등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방식을 적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북한의 가축 사육두수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통계는 FAO와 WFP가 북한의 농업성 자료를 인용하여 발표한 2008년 특별보고서이다.⁸⁾

표 6. 북한의 축종별 가축사육두수

축종	가축 사육두수(천 두(수))		연간 곡물 소요량(2008년)	
	2004년	2008년	두(수)당 소요량(kg)	총소요량(천톤)
소	566	576	827	476
돼지	3,194	2,178	354	771
양	171	167	-	-
염소	2,736	3,441	-	-
토끼	19,677	26,467	-	-
닭	18,729	14,071	30	422
거위	5,189	5,878	6	35
오리	1,580	1,477	6	9
합계	-	-	-	1,713

주: 남한의 곡물 소요량을 기준으로 하되 배합사료 중 옥수수 비율을 70%로 가정함. 소는 한우 번식우 기준. 돼지는 비육돈 100%, 연간 회전수 2회 적용. 닭은 산란계와 육계 비율을 각각 80%, 20% 적용하되 연간 회전율은 산란계 1회전, 육계 5회전, 거위와 오리는 닭 산란계의 20% 적용. 양, 염소, 토끼는 곡물 사료 소요량 감안하지 않음.

자료: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PRK, Dec. 8, 2008.

통계청, 「2008년 축산물생산비」, 2009.6.

북한에서 사육하고 하고 있는 가축의 사료급여량을 추정하기란 매우 어려우나 남한의 기준을 적용하되 여러 가지 가정을 두고 곡물 사료 소요량만을 추정하면 연간 171만 톤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북한은 통상적인 배합사료를 급여하는 대신 음식 잔반이나 조사료 급여 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 거위, 오리의 경우 대부분 조사료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3) 가공용 수요

가공용 곡물 수요란 밥이나 죽 이외 가공식품이나 주정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곡물의 수요를 말한다. 가공식품 중에는 떡, 면, 죽, 라면, 술, 과자, 빵, 식혜, 고추장, 된장, 식용

8)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PRK, Dec. 8, 2008.

유, 두유, 수프, 순대 등이 있다. 남한의 경우 2008년 전체 양곡 수요 중 가공용 수요가 20%를 차지한다. 가공용 중 용도별로는 식용 84%, 양조용 11%, 공업용 등 5%로 구성된다. 북한은 남한과 식생활 패턴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가공용 곡물 수요는 남한에 비해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수확 후 감모

수확 후 감모(Post Harvest Losses)는 가장 추정하기 어려운 항목 중의 하나이다. 수확 후 감모란 논이나 밭에 있는 농작물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될 때 까지 감모되는 양을 말한다. 조리 과정이나 조리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음식쓰레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확 후 감모는 양적 감소와 질적 저하로 나눌 수 있다. 양적 감소는 논밭에 있는 농작물을 수확하여 협동농장으로 운반, 탈곡한 다음 양정수매성이 관리하는 창고에 입고될 때까지 주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모율을 FAO에서 5~8%로 추정한다.

양적 감소뿐만 아니라 질적 저하로 인해 감모가 발생하기도 한다. 북한은 수송 수단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확한 농작물을 논밭에 1~2개월 썩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비로 인해 농작물이 유실되거나 부패하여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대부분의 질적 저하는 양정수매성이 관리하는 창고에 곡물이 입고된 이후 발생하게 된다. 창고 시설이 열악하고 양곡 관리가 허술하여 쥐나 곤충에 의해 양적 질적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재해로 인해 창고가 물에 침수되거나 화재로 인해 소실되기도 한다. 곡물을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보관코자 하는 곡물의 수분 함량을 일정 비율 이하로 낮추어야 하며 수분함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창고가 설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질적 저하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감모가 발생한다. FAO는 북한의 수확 후 감소 비율을 생산량의 15%로 추정한다. 수확 이후 창고에 입고될 때까지의 감모를 5~8%로 잡고 있으며, 창고 입고 이후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의 감모를 7~10%로 추정된다.

남한의 경우 수확 후 감모를 3% 이내로 추정한다. 과거 남한도 감모가 10% 이상 발생한 적도 있었으나 수확 기술과 장비의 발달, 보관시설의 개선, 양곡관리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 꾸준히 감모율을 줄여왔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수확 후 감모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금융기구나 외국에서 농업개발을 위한 차관을 도입할 때 감모를 축소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한다. 감모를 줄이는 일은 그만큼 증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수확 후 감모를 축소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감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수확 이후의 모든 과정이 함께 개선되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2010년 북한 지원 사업 추진 계획에서 수확 후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6개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UNDP는 북한의 곡물 수확량 조사 방법 개선을 위한 사업도 FAO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5) 시장의 곡물 가격

주민의 식량안보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장의 곡물 가격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식량난 이후 북한에서는 정상적인 식량배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배급을 받는 주민은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부족한 식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화폐교환 직전 쌀의 시장가격은 배급가격의 50배나 되었다. 100:1 화폐교환 이후에도 쌀의 배급가격은 새 화폐로 kg당 44원, 옥수수 26원으로 액면가가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쌀 배급가격이 실질적으로 100배 오른 것과 같다.

화폐교환 이후 북한 당국은 시장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시장을 과거의 농민시장 형태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곡물을 거래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있지 않다. 화폐교환 직전 kg당 시장의 쌀 가격이 2,000원 내외에 형성되었으나 화폐교환 직후인 2009년 12월에는 새로운 화폐 가격으로 40~50원이라는 비교적 안정된 가격이 유지되다가 2010년 새해 들어 최근에는 kg당 300원까지 치솟고 있다. 식량 가격이 단기간에 폭등하는 추세이다. 현재의 쌀 시장 가격을 배급가격과 비교하면 6~7배 정도로 화폐교환 이전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크게 줄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의 쌀 가격 상승 추세를 보면 앞으로 쌀 가격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예상하기 힘들 정도이다.

화폐교환과 시장 단속으로 인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며 가격도 비정상적으로 형성되고 있어 주민들도 매우 혼란스럽다. 게다가 최근에는 시장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전반적인 추세는 시장의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폐교환 이후 명목 임금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의 실질 소득이 100배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증대되었다. 이는 시장의 곡물 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곡물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더구나 북한 당국이 중국 등지로부터의 곡물 수입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어 공급 부족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다.

현재 북한 당국이 시장을 철저히 단속하고 국영 유통망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자 노력하지만 이는 오래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년 내 어느 시점에 이르면 당국이 식량을 계획적으로 공급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시장에 대한 통제를 풀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느 시점이란 춘궁기 즈음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늦어도 여름 이전에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규모 식량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는 늦추어질 수 있다.

(6) 주민 소득

주민의 소득은 식량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식량은 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낮다는 것은 소득이 일정 비율 상승하였을 때 식량 수요는 소득 상승률보다 낮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소득이 상승하면 상당 부분까지는 식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득이 증가할 경우 옥수수나 잡곡에 대한 수요보다는 쌀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거나 옥수수나 잡곡 수요는 감소하고 쌀 수요는 증가하는 대체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식량 소비 수준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좌우된다. 만일 식량의 절대 소비가 낮은 가구의 경우는 전자가 될 것이고 식량 소비가 어느 수준에 도달한 가구라면 후자에 해당된다. 전자에 속한 주민의 수는 전체 주민의 1/3, 후자에 속한 주민의 비율도 1/3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1/3은 농가로 이들은 수확 후 협동농장으로부터 식량을 직접 분배 받기 때문에 식량 수요가 소득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북한 당국은 화폐교환 이후에도 명목 임금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른 물가가 화폐교환 비율만큼 조정되고 명목 임금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실질 임금이 100배 상승한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물가는 화폐교환 비율보다 낮게 조정되었다. 쌀의 경우처럼 가격이 그대로 유지된 품목이 있는 반면 돼지고기처럼 화폐교환 비율과 유사하게 조정된 품목도 있다. 따라서 명목 임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도 실질 임금의 상승효과는 화폐교환 비율에 비해 훨씬 낮다. 문제는 현재 조정된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이다. 화폐교환이 단행된 지 2개월이 지나고 있는 동안 쌀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품목은 가격이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아직은 실질 소득의 증가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그 효과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임금과 시장가격 하에서 대부분의 주민은 시장에서 부족한 식량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실질 임금 상승효과가 유지되는 한 이전에 비해 식량 수요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는 시장의 식량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화폐교환으로 인한 실질 임금의 증가 효과가 상쇄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5. 북한의 식량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북한의 식량부족 현상은 외부로부터의 식량조달 확대와 자체 식량공급 능력의 증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외부로부터의 식량조달은 상업적 수입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가능하다. 자체 식량공급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곡물 재배면적의 확대, 영농자재의 공급 증대, 기술개발, 농업관리체계의 개편이 주된 수단이다.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수단 모두가 가능하지 않거나 실행하기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북한이 자체 식량공급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 농업생산성이 증대되려면 농자재 투입의 증대와 농업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농업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중 단기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농자재의 사용을 증대시키는 일이며 그 중에서도 비료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FAO가 밝힌 대로 2009년은 1989년 이후 20년 동안 비료를 가장 적게 사용한 해였다. 최근 북한이 비료공장의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에는 국내 비료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이 생산할 수 있는 비료의 양은 소요량의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비료를 추가로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관건은 한국의 북한에 대한 대규모 비료 지원 재개 여부이다.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북한은 심각한 비료 부족에서 탈피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업기술의 발전이 중요하다. 김일성 사망 이후 주체농법이 좀 더 융통성 있게 적용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주체농법이 바뀌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의 집단영농에서 가족영농 제도로 농업관리방식을 전환하는 일이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것이 현실화되면 영농자재의 추가적인 투입 없이도 30% 정도의 생산성 증대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는 체제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상업적 수입을 통해 식량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매년 무역적자가 크게 발생하는 데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이후 무기류 수출을 통해 무역적자를 메워오던 것도 어렵게 되었다. 북한은 중국 등지에서 매년 20만 톤 내외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다. 과거의 식량 수입 실적을 살펴보면 외환 부족 때문에 식량 수입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첩경은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대규모 식량 지원을 받는 일이다. 무상 지원이건 유상 지원이건 100만 톤 정도의 식량지원만 받는다면 당장의 식량 부족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과거 2000년 대 초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이다. 이 중에서도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2000년부터 북한에 대규모의

식량을 지원하여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북한에 대한 식량차관과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식량의 무상지원이 동시에 중단되었다. 현재의 국제관계에 비추어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제사회도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재개하기 어렵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가닥이 잡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이 6자 회담의 틀 속에 편입되어 핵문제 및 미사일 발사 등 정치·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어야만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북한이 식량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과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동향 분석

1. 농업정책
2. 벼농사
3. 밭농사
4. 감자농사
5. 축산
6. 농업기반
7. 산림
8. 기타 작물
9. 기타 보도 동향

동향분석요약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라는 글을 게재하고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통해 인민생활 향상을 도모할 것을 강조하였음. 농업부분에서는 생산증대를 위해 당의 방침(종자혁명, 두벌농사, 감자농사혁명, 콩농사 방침) 관철 및 자체의 힘으로 농사 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함.

각 협동농장에서는 봄내, 여름내 애써 가꾼 낱알을 한 알도 허실없이 제때에 거두어들이기 위한 가을걷이와 낱알털기가 시작되었음. 각 협동농장에서는 탈곡기계의 보수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가을걷이와 낱알털기 실적을 높이고 있음. 또한 다음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하여 우량 종자 확보 및 질 좋은 거름 생산에 힘쓰고 있음.

콩 가을걷이와 동시에 다음해 콩농사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 제때에 콩 가을걷이를 끝내기 위해 각 농장에서는 노동력과 농기계의 원만한 보장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다음해 콩농사 준비를 위한 콩종자 보관관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콩밭의 지력을 높이고 비배관리를 잘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각 협동농장에서는 수확고가 높은 우량품종의 감자종자와 기후풍토조건에 맞는 감자 종자를 마련하고 보관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감자농사를 잘하기 위해 질 좋은 거름 생산에 힘쓰고 있으며, 감자농사의 기계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축산업 발전을 위해 풀먹는집짐승 기르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집짐승 겨울나기 준비를 위하여 집짐승의 먹이를 충분히 마련하여 제반 조건을 완비시키고 있음. 또한 수의방역 사업의 일환으로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당 정책에 따라 이미 개천-태성호 물길, 백마-철산물길이 완공되었으며, 이번에 미루벌물길이 완공되었음. 가을철 국토관리 사업을 통해 각 지역의 도로건설 및 정리, 강하천 정리 사업, 나무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수림화, 원림화를 위한 산림조성사업과 산림 보호 관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겨울철 통나무 생산을 늘리기 위해 모든 노동력과 설비를 통나무 생산에 집중시키고 있음. 또한 산불방지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음.

인민들에게 사시사철 신선한 과일을 공급하기 위해 과수업 발전에 힘을 쏟고 있음. 과일나무 모생산지에서는 과학적인 나무모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성이 높은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모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혁신적 성과를 이룩하였음.

다음 해 농사차비를 위해 각지에서는 거름 생산에 큰 힘을 쏟고 있음. 가을걷이와 낱알털기 시기를 맞이하여 올해 알곡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농촌에 대한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평양시에서는 2012년까지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 사업이 시작되었음.

1. 농업정책

-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라는 글을 게재하고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통해 인민생활 향상을 도모할 것을 강조하였음. 농업부분에서는 생산증대를 위해 당의 방침(종자혁명, 두벌농사, 감자농사혁명, 콩농사 방침) 관철 및 자체의 힘으로 농사 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함.

□ 신년공동사설

- 신년공동사설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를 게재(민주조선 1.1, 노동신문 1.1)

정치

-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여야 함.
-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일대공세를 벌이는 것, 이것이 올해의 총적인 투쟁방향임. 인민생활을 높이는 것은 경제 실무적 사업이 아니라 김일성의 유훈을 관철하고 인민의 천만가지 이상을 꽃피우기 위한 우리 당 위업의 정당성을 과시하는 중요한 정치적 사업임.
-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당적, 전국가적인 총공세를 드세차게 벌어나감으로써 대고조의 승리가 더 큰 승리로 이어지게 하고 뜻깊은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번영의 해가 되게 하여야 함.

경제

- 경공업과 농업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임. 4대선행부문에서는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이 중공업의 발전에 달려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높은 생산적 양양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를 힘있게 추진해야 함.
- 경제지도일군들은 진취적이며 현실성있는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우고 오늘의 대고조진군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가야 함. 계획규율, 재정규율, 노동행정규율을 철저히 확립하여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이 뚜렷이 나타나게 하여야 함.
- 일군들은 경제관리지식을 폭넓고 깊이있게 지녀야 하며, 여러 가지 경제적 공간을 옹계 활용할 줄 알아야 함.

[금속공업부문]

-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우리의 원료, 연료에 의거한 주체철생산능력을 늘리고 당이 제시한 선철과 강철, 압연강재생산목표를 달성하여야 함.

[전력, 석탄, 철도운수 부문]

- 전력공업부문에서는 화력발전소들의 만부하를 보장하는데 힘을 집중하면서 회전발전소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수력발전소건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 석탄공업부문에서는 화력발전소와 화학공장을 비롯한 중요대상에 필요한 석탄을 무조건 생산보장하고 현대화를 다그쳐 생산능력을 부단히 높여야 함.
- 철도운수부문에서 군대와 같은 강한 규율과 질서를 세우고 새로운 기관차와 화차를 더 많이 생산하며 철도의 현대화, 철길의 중량화를 실현해야 함.

[기계공업부문]

-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CNC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공구혁명을 일으켜 성능좋은 첨단기계설비를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함.

[과학기술부문]

-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첨단을 돌파하며 더 높고, 더 빨리 비약하자!’는 구호를 높이세우고, 첨단돌파전의 기본전선인 국방공업부문에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첨단돌파의 열풍이 일게 해야 함.

-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며 자체의 기술개발능력, 제품개발능력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 현대화, 과학화를 전망있게 진행해야 함. 21세기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 발전전략을 바로 세우고 핵심기초기술과 중요부문 기술공학, 기초과학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함.

[농업부문]

-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콩농사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빛나게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함.
-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주체적인 육종체계가 서고 실리주의 원칙이 구현된 현대적인 축산, 양어, 과일생산기지가 현실에서 커다란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함.

[경공업부문]

-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여야 함.
- 경공업부문에서는 공장, 기업소의 현대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함.
- 지방공업공장을 만부하로 돌리고 가능한 모든 단위들에서 인민의 호평을 바는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선풍을 일으켜야 함.
- 인민생활과 관련된 부문들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공업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야 함.

복지

- 인민의 복리를 우선시, 절대시하고 모든 혜택을 인민들에게 돌리는데 우리 사회주의의 본태가 있음.
- 우리당과 국가가 역사적으로 실시해온 무상치료제, 무료의무교육제를 비롯한 인민적 시책들이 인민의 생활에 더 잘 미치게 해야 함.
- 만수대 살림집을 본보기로 하여 평양시의 10만 세대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내밀며 도시와 농촌에 21세기의 사회주의 선경거리, 선경마을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야 함.
- 상품유통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지켜 인민봉사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함.

국방

- 올해 당이 제시한 전투목표를 점령하자면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 혁명대오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함.
- 인민군대에서는 김정일이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한 50돌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당의 사상을 받들고 모든 군사정치사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설계하고 진행함으로써 위력을 더 높이 떨쳐야 함.
- 인민군대는 ‘위대한 김정일을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오중홉7연대칭호쟁취운동을 통해 모든 장병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을 닮은 선군혁명의 전위투사, 수령옹위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육탄결사대로 키워야 함.
- 인민군대에서는 당이 제시한 5대훈련방침과 4대훈련원칙을 틀어쥐고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야 함. 첨단돌파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훈련을 실전처럼 하고, 지휘관들은 기묘한 지략과 령군술, 배짱과 담력을 소유한 만능 지휘관으로, 병사들은 전투임무를 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싸움꾼으로 준비시켜야 함.
- 인민군장병들은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대건설전투장에서 역사에 빛날 위훈을 계속 창조해나가야 함. ‘인민을 돕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선군조선의 밑뿌리인 군민일치를 철통같이 다져나가며 사상전신과 도덕, 체육과 예술 등 모든 면에서 사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함.

대남·대외

- 민족공동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화해를 도모하며 각 계층의 왕래와 접촉을 통하여 협력사업을 추동해나가야 함. 민족의 공리공영을 위한 사업을 저해하는 온갖 법적, 제도적 장치는 철폐되어야 하며 많은 인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활동이 보장되어야 함.
- 6.15공동선언발표 10돌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0돌을 맞이하여 ‘북남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라는 구호아래, 전민족적 범위에서 자주통일기운과 화해와 협력, 단합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야 함.
- 전체 조선민족은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다그쳐나감으로써 2010년을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하여야 함.

-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것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입장을 일관함.
-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기치높이 나라간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 것임.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 1995~2010

연도	경제 전반	농정 방향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명적 경제전략의 관철을 통한 인민생활의 획기적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적 소유, 전인민적 소유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고 주체농법의 관철로 알곡생산목표 달성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명적 경제전략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 인민생활 향상 및 자립적 경제토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농법에 따라 농사를 주인답게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에서 결정적인 전환 달성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력갱생의 구호하에 경제적 밀천을 최대한 동원·이용하여 먹는 문제를 해결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토건설로 부강한 조국의 토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농법에 따라 농민들의 지향, 자체의 실정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고 쌀풍년, 고기풍년 마련. 초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초식가축 사육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계속 전개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건설은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할 주전선임. 농업과 석탄공업, 전력공업과 철도운수, 금속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고 민족경제의 위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의 증대, 먹는 문제 완전 해결 - 종자문제해결, 2모작 확대 - 농업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민의 의사와 자체 실정에 맞게 수행 - 초식가축을 기본으로 축산업의 대대적인 발전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건설은 강성대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 정치사상적, 군사적 위력에 경제적 힘이 밀받침될 때 명실공히 강성대국 지위에 올라설 수 있음.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경제전반을 자기의 궤도에 확고히 올려 세우며 인민생활의 안정,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에 전 국가적인 힘을 넣어 먹는 문제 해결 - 감자농사혁명 - 적지적작·적기적작 원칙에서 농업구조개선 - 2모작 확대와 종자혁명의 계속적 추진 - 토지정리사업의 대대적 전개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보다 큰 힘을 넣어야 할 전선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임. · 당의 경제정책을 옹호 관철해 나가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하나씩 추켜세워야 함. 모든 부문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여 경제적 타산을 앞세우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농법의 철저한 관철 -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 2모작 확대, 초식가축 사육 증대 - 양어사업을 대중적 운동으로 전개 - 토지정리와 산림조성을 비롯한 국토관리사업의 지속적 추진 - 개천-태성호 관개수로공사의 적극적인 추진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계속), 1995~2010

연도	경제 전반	농정 방향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건설의 중심 과제는 경제토대를 정비하고 경제전반을 현대적 기술로 개선하는 것임. ·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가장 중요한 부문은 전력, 석탄, 금속 및 철도운수부문임. -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고, 석탄생산 증대 - 금속공업의 설비 현대화를 통해 철강재 생산의 활성화 - 철도운수를 정비 보강하여 증가하는 수송수요 보장 · 경공업부문에서는 1차 소비품과 기초식품의 생산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을 늘이는 것은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정적 고리임. -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의 지속적 추진 - 2모작 면적의 확대 - 메기를 비롯한 생산성이 높은 물고기를 위주로 양어 확대 - 현대적인 축산기지 건설 -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과 개천-태성호 관개수로공사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제일주의 구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촉진하여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임. - 채취,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 · 주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 · 경제관리의 개선 및 완성 · 제도 제일주의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과 교육사업 발전에 전 국가적인 관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여 농업생산 증대 ·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과 개천-태성호 관개수로공사의 조속한 완료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게 경제를 관리운영해 나가야 함. · 국방공업을 중시하고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바탕으로 한 인민경제활성화 · 경공업의 현대화를 통한 인민소비품의 대대적인 생산 ·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진기술을 배우고 최첨단과학기술을 받아들임 · 모든 부문, 단위에서 현대화의 뚜렷한 전망목표를 세우고 기술개건사업을 추진해나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함. · 대규모토지정리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며 혁명의 수도 평양을 새세기 맛이 나게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려야 함.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계속), 1995~2010

연도	경제 전반	농정 방향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와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라의 국력을 백방으로 다지자!”라는 구호를 들고 힘찬 투쟁을 벌여야 함. ·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에 주된 힘을 넣어야 함. · 화학발전소와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중소형발전소들을 쓸모있게 건설하여 전력생산을 늘려야 함. · 석탄공업과 금속공업발전에 힘을 집중하고, 철도운수부문에서 수송조직과 지휘를 체계적으로 세워나가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하여 종자혁명을 기본고리로 감자혁명과 두벌농사를 발전시켜야 함. · 콩농사와 과수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고, 축산기지들과 개건현대화된 닭공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함. · 토지정리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며, 백마-철산 물길공사를 다그쳐야 함. · 평양시와 도, 시, 군소재지들의 면모를 일신시키며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함.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은 농업전선임. ·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의 문제해결은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데 있음. · 전체 인민은 혁명적 각오로 농업부문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보장해주어야 함. ·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을 발전시키며, 대규모수력발전소 건설을 앞당기고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며 화력발전설비들의 능력을 높여 전력생산을 늘여야 함. · 경공업부문에서는 경공업공장들을 개건현대화하고 갖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공급해야 함. · 평양시를 더 잘 꾸리고 도시와 농촌들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많이 건설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부문에서는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콩농사 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들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함. · 다수확품종을 심고, 비료와 농약을 보장해주며,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의 기계화비중을 높여야 함. · 농업지도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며 농업과학발전에 힘을 넣어야 함. · 백마-철산물길공사를 앞당겨 끝내며 대규모토지정리사업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게 하여야 함. · 전당, 전국, 전민이 농촌을 노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여야 함.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계속), 1995~2010

연도	경제 전반	농정 방향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 보장해 줘야 함. · 전력공업부문의 전력문제를 풀어나가야 함. 석탄공업과 금속공업은 인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건적 고리임. · 채취, 기계, 화학, 건재공업과 임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초적인 것부터 해결하면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새로운 생산적 양양을 일으켜야 함. 경공업부문에 생산공정을 적극 현대화하여 질 좋은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려야 함. · 경제부문 지도일꾼들은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가지고 실리를 따져가며 경제사업에 대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에도 농업전선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내세우고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야 함. · ‘쌀은 곧 사회주의다’라는 말을 지침으로 온 나라가 농업전선에 떨쳐나서야 함. 농업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함. ·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 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콩농사방침 관철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함. ·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답게 농사일을 간지게 하며 모든 지원자들은 지난해처럼 농촌을 적극 도와줘야 함. · 미루벌을 비롯한 도처에서 물질(수로)공사와 토지정리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며 토지관리를 잘해야 함. 기계화, 화학화를 적극 다그쳐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함.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경제문제를 푸는데 국가적 힘을 집중해야 함. · 주된 과업은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는 데 선차적인 힘을 쏟으면서 우리 경제의 현대화를 위한 기술개선을 다그치는 것임. · 경공업에서는 인민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 함. 축산기지, 양어기지, 기초식품생산기지들이 은을 내게 하여야 함. · 인민경제의 4대 선행부문인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부문이 경제강국 건설의 전초선을 튼튼히 지켜야 함. 전기, 석탄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하며, 금속공업은 철강재 생산을 늘려야 함. 철도운수부문은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함. · 에너지 및 자원개발사업을 위해 채취, 기계, 화학, 건재, 임업부문들에서 생산을 활성화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시기와 다름없이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함. 농업부문 일군과 근로자들은 당의 농업혁명 방침관철에서 주인다운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자체로 농사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함. · 농업발전의 전망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알곡생산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농업생산에 필요한 영농물자와 자재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함. 미루벌을 튼튼한 알곡생산기지로 꾸려야 함.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계속), 1995~2010

연도	경제 전반	농정 방향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대국건설의 주공전선은 경제전선임 · 인민경제의 주체성 강화,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를 통해 자립민족경제를 발양시켜야 함 ·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워야 함 ·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는 내각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문제를 해결하는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음. · 다수확품종을 많이 심고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함. · 지난 10년간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 관철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하며 인민군대에서처럼 콩농사를 잘해나가야 함. · 농사에 필요한 영농설비와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함. · 자체로 농사를 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함. · 현대적인 축산기지, 양어기지, 과일생산기지를 잘 운영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함.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생산정상화와 현대화를 밀접히 결합시켜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고 생산수준을 결정적으로 돌파해야 함. · 금속공업의 선차적 발전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인민경제 중요부문의 생산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의 힘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는데 총력을 집중해야 함. ·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의 생활력을 더 높이 발양시키며 농촌에 대한 물질기술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 · 농산과 축산을 배합하고 농촌경리를 다각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며 전군중적으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함. · 농업근로자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함.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 1995~2010

연도	경제 전반	농정 방향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선행부문에서는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이 중공업의 발전에 달려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높은 생산적 양양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를 힘있게 추진해야 함. · 경제지도일군들은 진취적이며 현실성 있는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우고 오늘의 대고조진군을 주동적으로 밀고 나가야 함. 계획규율, 재정규율, 노동행정규율을 철저히 확립하여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이 뚜렷이 나타나게 하여야 함. · 일군들은 경제관리지식을 폭넓고 깊이있게 지녀야 하며, 여러 가지 경제적 공간을 옹계 활용할 줄 알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콩농사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빛나게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함. ·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주체적인 육종체계가 서고 실리주의 원칙이 구현된 현대적인 축산, 양어, 과일생산기지가 현실에서 커다란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함.

□ 농업정책

○ 농산과 축산을 잘 배합(로동신문 11.6)

- 김정일은 “산간지대나 벌방지대나 할 것 없이 모든 농장들에서 농산과 축산을 배합하여 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운전와군 운하협동농장에서는 유기질비료생산을 늘여 논벼수확고를 높일 목표를 세우고 먼저 2001년 축산작업반에 연건평 4,000㎡인 2층짜리 집짐승우리지를 건설하고 돼지, 오리, 토끼 등을 대대적으로 기르기 시작하였음.
- 농장에서는 배설물로 질 좋은 거름을 만들어 논에 댈으로써 지력을 높이고 농산에서 나오는 집짐승주요먹이와 푸른 먹이, 쌀겨를 이용하여 집짐승을 기르는 형식으로 농산과 축산을 배합하였음.
- 지난해는 8년 전에 비해 고기생산량을 거의 2배로 늘렸으며, 질 좋은 거름을 많이 생산하여 논정보당 거름량을 1.6배 이상 늘려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였음. 같은 시기 논정보당 질소비료소비량은 류안으로 환산하여 320kg이나 줄었지만 질소비료 kg당 논벼생산량은 7.4kg 더 늘어났음.
- 직면한 축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묵은 땅을 개간하여 집짐승먹이 생산의 발판을 마련하고, 몇 해 동안 늪이나 진펄 등을 개간하여 총 24정보의 새 땅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축산에 필요한 먹이를 해결하였음.
- 운하협동농장은 3원교잡새끼돼지 생산체계를 세웠음. 이 농장의 경험에 의하면 3원교잡새끼돼지는 병을 잘 이겨내고, 100kg까지 자라는데 그 기간이 5개월로 일반 돼지에 비하여 1개월이나 빠르다고 함.
- 농장은 축산작업반에서 고기생산과 함께 돼지, 토끼, 오리 등 집짐승새끼를 생산하여 농산작업반 비육분조들과 개별적으로 가정에 나눠 주고 있음.

○ 올해농사의 성과적 결속을 위한 화선식정치사업(로동신문 11.11)

- 김정일은 “경제선동은 당 경제정책 관철에로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이다.”라고 말함.
- 각지 당 조직들에서는 선전선동역량을 벗단꺼들이기(벗단실어들이기)와 난알털기(난알털기)에 총집중하고 화선식정치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온 나라 협동 별마다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고 있음.

-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농촌실정에 맞고 실천투쟁에서 그 우월성이 확증된 포전 집중정치사업의 위력이 난알털기에서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빈틈 없이 진행하고 있음.
-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우선 벗단꺼들이기와 난알털기에 역량을 집중할 데 대한 해설담화자료와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집중하여 올해 농사를 성공적으로 해 낼 데 대한 내용을 담은 정치사업자료를 만들어 시, 군당위원회와 농촌 당 조직에 내려 보내 화선식정치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여나가게 하였음.

○ 농업전선에서 일대 비약을(로동신문 1.2)

- 당 창건 65돌의 뜻 깊은 올해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빛나게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야 함. 이를 위해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 혁명방침과 콩농사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전투 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야 함.
- 모든 농촌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 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야 함.
- 주체적인 육종체계가 서고 실리주의 원칙이 구현된 현대적인 축산기지와 함께 양 어, 과일생산기지가 현실에 성공적으로 반영되어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 지 하도록 해야 함.

○ 농업생산에 다시 한 번 박차를(민주조선 1.3)

- 당 창건 65돌을 맞는 뜻 깊은 올해에는 기어이 알곡생산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루고자 함.
- 김정일은 “농사를 잘 지어 먹을 것이 넉넉하여야 인민들에게 풍족한 생활을 마련 해 줄 수 있으며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라고 말함.
- 새해공동사설에서는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빛나게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 로 늘이기 위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함.
- 농업부문 일군은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콩농사방 침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농사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 로 늘일 것임.

- 모든 농사일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일 것임.
- 경공업과 농업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여(로동신문 1.5)
- 김정일은 “경제일군은 천리마대고조시기의 일군들처럼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경제작전과 조직, 지휘를 혁명적으로 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양양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함.
 - 우리는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농업혁명방침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이미 다져진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인민생활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각 도의 지방산업공장들의 만부하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세워나가야 함. 이와 함께 지난해 농사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 현지지도단위협동농장의 좋은 경험을 모든 농장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함.
- 쌀로써 당의 위업 받들리(로동신문 1.5)
- 김정일은 “먹는 문제를 원만히 푸는 것은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가장 중요하고도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업이다.”라고 말함.
 - 김정일은 지난해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을 찾아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선봉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고무함.
 - 올해 기후풍토에 맞으면서도 수확고를 높일 수 있는 우량품종을 많이 심고 이와 함께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함.
-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보검으로 틀어쥐고(민주조선 1.6)
- 김정일은 “농사를 잘 지어야 인민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으며,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함.
 - 황해남도안의 농업부문 일군과 근로자들이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할 데 대한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어 농업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도록 노력해야 함.
 -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보검으로 틀어쥐고 그것은 빛나게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나가야 함.

○ 농사차비를 실속있게 하자(민주조선 1.14)

- 김정일은 “농사준비를 잘하는 것은 알곡생산을 늘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라고 말함.
- 농사차비를 실속있게 하는 것은 한해농사를 잘 짓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의 하나임. 농사차비에서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힘을 집중하여야 함.
-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에 알곡증산의 기본열쇠가 있는 만큼 농사차비의 기본방향도 다름 아닌 농업혁명방침관철에로 지향되어야 함.
- 모든 지방, 모든 단위에서는 자체의 기후풍토조건에 맞는 우량품종의 종자를 옳게 선택하여 그것을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며 종자보관관리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하여야 함.
- 농업생산에 필요한 물질기술적 수단에 대한 준비를 예견성있게 해야 함. 또한 농업생산의 생명수인 물보장준비를 잘함과 동시에 농기계에 대한 수리정비를 빠른 시일 안에 다그치며 중소농기구와 영농자재준비에도 큰 힘을 넣어야 함.

□ 과학영능

○ 과학기술중시노선 관철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민주조선 12.6)

- 김정일은 “우리 당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로부터 과학기술중시노선을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의 전략적 노선으로 제시하였으며, 가상중시, 총대중시와 함께 과학기술중시를 강성대국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라고 말함.
-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당의 과학기술중시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생산과 건설에서 변혁을 일으키고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경제 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음.
- 시대적 추세에 맞게 첨단과학기술분야를 적극 개척하여 남보다 더 앞서 나가야 함.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비롯한 첨단과학분야의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 연구기지와 첨단기술수단 생산기지를 강화하여야 하고 그 중 정보기술을 우리식으로 빨리 발전시켜야 함.
-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우고 식량문제해결을 위한 농사에서 혁신을 일으키는데 과학기술을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나가야 함.

- 과학기술인재를 높은 질적 수준에서 더 많이 키워내야 함.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일꾼들은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과학자, 기술자들이 사업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도록 해야 함.
- 현실적 의의가 있는 연구성과를 더 많이(로동신문 12.26)
- 김정일은 “과학연구사업을 개선 강화하는데 중요한 것은 연구과제를 중점적으로 설정하고 필요한 과학역량의 협동연구를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최단 시일 안에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함.
 - 계응상사리원농업대학에서는 옳은 방법론에 기초하여 과학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임. 과학심의위원회에서는 당 조직의 지도아래 도안의 협동농장에서 긴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를 제때에 장악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대학의 연구집단과 도안의 여러 곳에 실습을 나가는 교원, 학생들은 과학기술적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산간지대, 중간지대, 벌방지대를 비롯하여 도안의 농사정형을 영농공정별로 파악하여 토론하며 과학연구사업을 심화시켜 농업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를 많이 해결함.
 - 이어 과학심의위원회에서 토론된 논문이 실천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대학에서는 과학심의위원회에서 논문이 통과되면 즉시 농장에 나가 연구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제때 보장하고 있음.
- 세차게 몰아치는 침단돌파의 열풍(민주조선 1.6)
- 농업과학원에서는 당 창건 65돌을 맞아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는 새해공동사설을 받아 안고 관련 연구사업에 힘쓰고 있음.
 -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콩농사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빛나게 구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새로 연구하며 적극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는 등 올해 이곳 과학자들에게 많은 임무가 주어짐.
 - 농산, 축산, 과수를 비롯한 모든 농업부문의 과학자들이 자신들을 침단돌파의 전초병, 과학기술강국건설의 기수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맡은 연구부문에서 세계적 수준의 과학연구성과를 내놓을 높은 목표아래 침단돌파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고 있음.

□ 종자관리

○ 종자보관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민주조선 12.12)

- 김정일은 “농사에서는 종자가 기본이다.”라고 말함.
- 100일전투를 힘있게 추진하고 있는 형제산구역 학산협동농장의 일군과 농장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된 자각을 안고 다음해 농사에 쓸 종자보관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다음해농사를 잘 짓기 위한 중요 방도로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으로 삼고 당면한 겨울철종자보관관리를 과학기술적 이치에 맞게 해나가고 있음.
- 농장일군들은 보관시설을 이용하여 종자보관관리를 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경험이 풍부한 농장원을 배치하여 종자보관실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잘 갖추도록 함.
- 종자보관관리를 맡은 농장원들은 종자보관실의 논벼, 밀, 보리, 콩 종자를 비롯한 종자를 품종별로 질서있게 배열해 놓고 습해와 해로운 동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보관실 보온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있음.
-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과 겨울철 종자보관관리에서 나서는 기술적 요구를 잘 파악하여 날씨에 따라 보관실의 온습도를 알맞게 조절하는 등 모든 일을 기술규정대로 하여 어떤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종자가 얼거나 부패 변질되지 않게 함.

○ 종자보관관리를 착실히(민주조선 12.16)

- 안변군 안변농장에서 다음해 농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알곡, 남새종자보관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 종자보관창고는 밀 폐식으로 하여 짐승들로부터의 피해와 부패변질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있음.
- 종자를 넣은 마대와 창자, 종자무지마다에 품종과 수량을 밝힌 표지판을 정확히 달도록 함.
- 일군과 농장원들은 창고에 규정대로 종자를 쌓고 온습도보장을 정확히 하면서 앞으로 어떤 강추위가 닥쳐와도 대처 할 수 있는 준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종자문제에 선차적인 힘을(민주조선 1.14)

- 김정일은 “알곡생산을 늘리는데 중요한 것은 종자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말함.
- 숙천군 안의 논들이 규격포전으로 전변되고 개천-태성호물길을 따라 생명수가 흘러들어 이곳 농업근로자들은 물 걱정을 모르고 농사를 짓게 되었음.
- 숙천군농업경영위원회에서는 올해농사를 작전하면서 군안의 농장에서 기후풍토조건에 맞는 우량품종의 종자를 심기 위한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을 추진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해안 혹은 야산을 끼고 있는 농장의 조건에 맞게 일군들을 현지에 내려 보내 지난해의 농사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도록 함. 또한 과학연구기관과의 연계아래 매 농장의 지대적 특성과 기후조건에 맞는 작물과 품종을 확정하였음.
- 위원회에서는 좋은 종자를 심어 올해농사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한 기술준비사업도 실속있게 따라 세우고 있음.

○ 종자문제에 힘을 넣어(민주조선 1.17)

- 김정일은 “알곡생산을 늘리는데 중요한 것은 종자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말함.
-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할 데 대한 새해공동사설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양덕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종자준비와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 경영위원회에서는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지대별 특성과 포전별 조건에 맞게 품종선택을 확정하고 이에 맞는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마련하는데 힘을 넣고 있음.
- 군안의 모든 협동농장에서는 포전별 품종배치를 과학적으로 정확히 한데 기초하여 그에 해당하는 종자를 원만히 갖추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음.

2. 벼농사

- 각 협동농장에서는 봄내, 여름내 애써 가꾼 낱알을 한 알도 허실없이 제때에 거두어들이기 위한 가을걷이와 낱알털기가 시작되었음. 각 협동농장에서는 탈곡기계의 보수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가을걷이와 낱알털기 실적을 높이고 있음. 또한 다음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하여 우량종자 확보 및 질 좋은 거름 생산에 힘쓰고 있음.

□ 가을걷이

○ 벼단꺼들이기를 앞세워(로동신문 10.20)

- 김정일은 “협동농장들에서 노동력을 가을걷이에 집중하며 모든 운반수단들을 다 동원하여 가을한 곡식을 제때에 실어들이고 낱알털기를 빨리 끝내도록 해야 한다.” 라고 말함.
- 염주군 룡북협동농장에서 농장원들이 높은 열의로 계획을 세워 벼단꺼들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지난 시기의 경험을 통해 벼단꺼들이기과 낱알털기 실적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일꾼들은 벼단을 제때에 실어 들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모든 작업반의 농장원들은 벼단을 논판에 두면 낱알이 허실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들 모두 그날 계획한 벼단꺼들이기를 그날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트랙터운전수들은 역할에 따라 벼단꺼들이기 성과가 좌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계정비를 철저히 하면서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음. 부림소관리공들이 높은 책임감으로 일을 해나가 달구지의 벼단운반 실적이 높아지고 있음.
- 농장에서는 비 또는 우박이 내릴 것을 예견하여 필요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있으며, 물이 잘 빠지도록 물도랑도 내고 필요한 운반수단들도 앞서 준비하고 있음.

○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로동신문 10.20)

- 김정일은 “애써 지어놓은 곡식을 빨리 실어 들여 낫알털기를 다그쳐야 한다.”라고 말함.
- 룡천군 덕승협동농장은 규모가 큰 농장으로, 가을걷이 첫 시작부터 노동력과 운반 수단들을 최적으로 배치하고 이용하여 벧단꺼들이기와 낫알털기를 일정계획대로 착착 추진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트랙터 만가동 보장과 부림소의 영양관리에 큰 관심을 넣어 그 이용률을 높이고 있음.
- 제9작업반은 트랙터와 달구지에 더 많은 벧단을 실을 수 있게 틀을 만들어 벧단꺼들이기에서 이전보다 3배의 성과를 올렸음. 농장에서는 제9작업반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벧단꺼들이기에 역량을 집중(민주조선 10.24)

- 김정일은 “벼와 강냉이가을에 역량을 집중하여 익는 족족 제때에 걷어 들이며 낫알털기도 빨리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황주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봄, 여름 내내 땀 흘리며 가꾸 온 낫알을 말끔히 거두어들이기 위한 투쟁에 모든 협동농장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떨쳐나서게 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한편 가을걷이의 모든 공정이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기술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음.
- 위원회 일군들은 현지에 나가 이신작척의 모범으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고 있으며, 협동농장 작업반, 분조에 나가 초급일군과 함께 포전들을 구체적으로 밟아보면서 가을걷이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농장의 초급일군들은 노동력 조직사업을 진행하여 실적을 높이도록 적극 도와주고 있음. 군안의 모든 일군들이 집중하여 매일 많은 면적에서 벧단꺼들이기가 진행되고 있음.
- 룡구협동농장을 비롯한 논 면적이 많은 농장들에서도 벧단꺼들이기가 힘있게 진행되고 있음. 흑교, 석산, 금석협동농장들에서는 노동력 조직사업을 통해 탈곡기계의 보수정비사업을 계속 내밀면서 벧단꺼들이기와 낫알털기 실적을 높이고 있음.

○ 탈곡기마다 만부하를(민주조선 10.25)

- 김정일은 “애써 지어놓은 곡식을 빨리 실어 들여 낫알털기를 다그쳐야 한다.”라고 말함.
- 문덕군 립석협동농장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이 100일 전투에서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벃단꺼들이기와 낫알털기를 힘있게 벌어나가고 있음.
- 협동별에 내려간 농장일군들은 농장원들과 함께 일손을 다그치며 열의를 다 하고 있음. 낫알털기정형을 수시로 확인하며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 높이 세운 낫알털기일정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도록 하고 있음.
- 낫알털기에 지장이 없도록 벃단꺼들이기를 앞세우는 한편 탈곡기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며 벃단을 꺼들이는 족족 털어내도록 하고 있음.

○ 일정계획을 어김없이(민주조선 11.5)

- 문천시 안의 농업부문 일군과 근로자들이 벃가을을 빠르게 끝낸 기세에 힘입어 벃단꺼들이기와 낫알털기 역시 힘을 집중하고 있음.
- 트랙터운전수와 농장원들은 운반수단들에 대한 설비정비를 철저히 하고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마련하여 모든 룬전기재들의 가동률을 부쩍 높이고 있음.
- 일군과 농장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입장에서 운반수단들의 적재함에 멍석을 깔고 벃단다루기를 알뜰히 하는 한편 벃단을 쌓아놓았던 자리와 포전도로들에 한 이삭의 곡식이라도 떨어질까 잘 살펴가며 일손을 다그치고 있음.

○ 벃단꺼들이기를 마감고비에서(민주조선 11.8)

- 김정일은 “협동농장들에서 노력을 가을건이에 집중하여 모든 운반수단들을 다 동원하여 가을한 곡식을 제때에 실어들이고 낫알털기를 빨리 끝내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연안군 정촌협동농장에서는 낫알털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 들고 있음. 일군들은 트랙터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의 적재능력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받아들이고 포전별 벃단운반거리에 따라 운반수단배치를 실속있게 하여 그날 벃단꺼들이기 계획은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농장의 트랙터운전수들은 기계의 만가동을 위해 예비부속품들을 원만히 갖추어놓

고, 트랙터에 대해 자체 검사와 수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음. 부림소관리공들도 부림소의 영양관리에 관심을 돌리고 그 이용률을 높여 벃단꺼들이기 실적을 부쩍 올리고 있음.

○ 낱알털기 빠른 속도로 진척(민주조선 11.11)

- 황주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당면한 낱알털기에 큰 힘을 쏟고 있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한해농사를 마감짓기 위해 협동농장들에서 탈곡기마다 만부하를 걸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낱알털기에서는 철도협동농장이 앞서나가고 있음. 농장일군들은 낱알털기장에 나아가 낱알털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농장원들의 열의를 높여 주는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하고 있음.
- 석정협동농장에서는 벃단꺼들이기에 동원되었던 노동력을 그대로 낱알털기에 돌리고 작업반 상호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낱알털기실적을 높여 나가고 있음.
- 삼전, 구포, 룡천 등 군안의 다른 협동농장들에서도 낱알털기를 하루빨리 끝낼 목표를 내걸고 낱알털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벃단운반과 낱알털기를 전부 끝냈다(민주조선 11.12)

- 김정일은 “다 지어놓은 낱알을 한 알도 허실함이 없이 제때에 거두어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말함.
- 단천시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봄, 여름 내내 애써 지은 낱알을 제때에 가을하여 운반하고 털어내기 위한 사업을 전투적으로 조직 지휘해 나가는 한편 물질적 조건을 앞질러가며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기동성있게 하였음.
- 시안의 협동농장의 일군들은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협동벌에 나와 이신작식의 모범으로 농장원들을 이끌었음. 령산, 백산, 양평협동농장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이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에서 앞장섰음.

○ 박력있게 내밀어(민주조선 11.15)

- 김정일은 “벼를 잘 걷어 들이고 낱알털기를 간지게 하여 한 알의 낱알도 허실하지 말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에서는 봄, 여름 내내 땀 흘려 가꾼 농작물비배관리를 알심있게 해온 그 열정과 기세로 농사결속에서도 단연 앞장서 나가고 있음.

- 농장에서는 열의에 맞게 작업공정간 맞물림을 짜고들어 지난 시기보다 벧단꺼들이기와 낱알털기를 훨씬 앞당겨 나가고 있음.
- 트랙터와 부림소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을 집중하고 노력조직을 짜고 들어 벧단꺼들이기를 확고히 앞세우고 있음.
- 농장 작업반들은 한 교대씩 맡아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면서 작업반초급일군들이 노동력 조직을 빈틈없이 짜고 들어 교대당 낱알털기 실적을 부쩍 높이도록 하고 있음.

○ 불이 번쩍나계(민주조선 11.15)

- 김정일은 “벼를 잘 거두고 낱알털기를 간지게 하여 한 알의 낱알도 허실하지 말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온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낱알털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것을 100일 전투의 중요목표로 내세우고 그 달성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음.
- 온천군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는 운반과 낱알털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조건에 맞게 낱알허실이 있을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내면서 낱알털기를 질적으로 하고 있음.
- 경영위원회에서는 낱알털기에서 이룩되는 성과와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여 탈곡에서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 치도록 하고 있음.

○ 낱알털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로동신문 11.17)

- 김정일은 “벼를 잘 걷어 들이고 낱알털기를 간지게 하여 한 알의 낱알도 허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평안북도의 협동농장에서는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15일 현재 김정일이 현지도한 태천군 은흥협동농장과 향산군, 구장군의 협동농장에서 낱알털기를 끝냈으며 도의 많은 협동농장이 낱알털기 마감단계에 있음.
- 도내 협동농장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은 봄내 여름내 땀 흘려 지어놓은 낱알을 한 알이라도 허실하지 않도록 낱알털기 실적을 부쩍 높이고 있음.
- 열두삼천리벌의 농장의 농장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은 낱알털기를 빠르게 끝내 올해 농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추진하고 있음.

- 평안남도당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의 일꾼들은 도의 모든 농촌에서 이미 거둔 곡식을 제때에 털어내기 위해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들이고 있음.
- 애국의 열정안고 낱알털기를 다그친다(민주조선 11.20)
- 김정일은 “벼를 잘 걷어 들이고 낱알털기를 끈지게 하여 한 알의 낱알도 허실하지 말도록 하여야 하겠다.”, “가을과 운반, 낱알털기를 끈지게 하여 한 알의 낱알도 허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낱알털기를 빨리 하지 않으면 많은 낱알이 허실된다. 농민들이 땀 흘려 지은 낱알인데 한 알이라도 허실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함.
 - 장강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벼단꺼들이기를 끝낸 그 기세로 낱알털기를 힘있게 벌이고 있음. 군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낱알털기를 전투적으로 내밀고 있음. 장평, 읍, 향하협동농장들이 낱알털기에 앞장서 나가고 있음.
 - 구성시 오봉협동농장은 시적으로 덩치가 큰 농장임. 하지만 농장에서는 꺼들이기를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열흘이상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이어 농장의 일꾼과 근로자들은 낱알털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오봉협동농장의 제3작업반은 낱알털기 교대조직을 빈틈없이 짜고 들면서 매일 낱알털기 계획을 115%로 넘쳐 수행하고 있음. 다른 작업반의 농장원들도 100일전투를 힘있게 벌이며 계획적으로 일을 추진해나가고 있음.
 - 연안군 읍협동농장에서는 정연옥, 백용기를 비롯한 농장일꾼들의 능란한 지휘, 혁신적인 일 추진력을 통해 올해 농사결속의 성과를 크게 올리고 있음.
 - 읍협동농장의 모든 작업반들은 낱알털기를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투쟁을 세차게 벌이고 있음.
- 각지 농촌들에서(로동신문 11.20)
- 올해 농사를 하루빨리 결속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각지 농촌에서는 낱알털기를 끝낸 단위들이 늘어나고 있음.
 - 서해별방지대 농촌들의 낱알털기 실적이 날마다 오르고 있음. 평양시 농업근로자들은 간진 일숨씨를 발휘하면서 낱알털기속도를 높임으로써 만경대, 순안구역의 모든 농장이 벼낱알털기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벼단꺼들이기와 낱알털기를 동시에 진행해온 황해북도와 평안남도 내 농장들에서도 낱알털기를 연이어 끝내고 있음.

- 동해안지대, 북부지대 농촌들에서는 앞선 단위들의 투쟁기풍을 따라 집단적 혁신을 창조하며 난알털기속도를 높이고 있음.

□ 농사차비

○ 다음해 농사차비에 큰 힘을 넣자(민주조선 11.20)

- 김정일은 “농사차비를 잘하는 것은 한해 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말함.
- 모든 농업부문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은 다음해 농사차비 역시 현 시기 중요한 영농사업의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고 지금부터 의지를 확고히 하여 농사차비를 힘있게 추진하여야 함.
- 다음해 농사차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자문제임. 지금부터 자기 지방, 자기 지역에 알맞은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품을 들여야 함. 협동농장들은 지대적 특성과 토양조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작물과 품종을 선택하여 종자를 확보하여야 함.
-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가 질 좋은 거름을 많이 생산하는 것임. 각지 농촌들에서는 마른 풀과 농부산물, 도시거름 등 거름원천을 적극 동원하여 질 좋은 거름을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함.
- 농사차비에서 농업근로자들은 주인된 본분을 다해나가야 함. 농업근로자들은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농사차비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해 나가야 함.
- 농사차비에 대한 국가적인 물질적 보장사업을 짜고 들어야 함. 농촌경리와 관련 있는 연관부문에서는 농사차비에 필요한 영농물자와 자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함.

○ 다음해 농사차비를 힘있게 다그치자(민주조선 11.27)

- 김정일은 “농사차비를 잘하는 것은 한해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농촌에서 다음해농사를 잘 짓기 위해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함.
- 강원도안의 농촌에서 다음해 농사차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음.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는 동시에 다음해 농사차비를 잘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고 있음.

- 올해농사를 먼저 결속하고 다음해농사차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이천군, 세포군, 법동군 안 협동농장에서는 거름생산과 물거름실어내기를 힘있게 추진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낱짚별, 포전별로 논밭갈이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트랙터와 부림소를 적극 배합하여 갈이속도와 질을 다 같이 보장하고 있음. 또한 모판적지를 정하고 모판자리갈이와 씨레치기, 두둑짓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면서 바람막이바자를 비롯한 모판자재준비와 흙보산비료, 부식토를 모판에 내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음.
 - 사리원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농사차비정형을 정상적으로 이해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기 위한 대책을 앞서 세우고 있음. 시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은 여러 차례 농장을 찾은 김정일의 가르침에 따라 농기계 만가동을 철저히 보장하며 매일 가을갈이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음.
 - 광산군 관상협동농장에서는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 짓고, 다음해농사차비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혁명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령도업적단위들이 혁신의 앞장에 섰다(로동신문 12.2)
- 김정일은 “농사준비를 잘하는 것은 알곡생산을 늘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라고 말함.
 - 종합된 자료에 따르면, 김정일이 전국의 본보기단위로 내세운 사리원시 미곡, 룡천군 신암, 태천군 은흥, 함주군 동봉,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을 비롯한 령도업적단위에서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다음해 농사차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음.
 - 한해 묵인 거름을 논밭에 널 목표를 내세운 농장에서는 벌써 흙보산비료원료를 100% 마련해놓고, 다음해에 논밭에 널 거름생산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음.
 - 이들은 땅의 지력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알곡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올해의 농사경험을 토대로 거름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드높은 열의로 2,000여 톤의 물거름을 실어 들이는 성과를 이룩함.
 - 룡천군 신암협동농장은 땅이 열기 전 논밭갈이를 전부 끝낼 목표를 세우고, 논갈이

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작업반마다 1만장 이상의 가마니 생산목표를 세우고 힘있게 내민 결과 모든 작업반마다 다음해 쓸 가마니를 많이 짜서 쌓고 있음.

- 이외 각지 현지도단위 농장들도 다음해 농사차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농장에서는 논밭갈이와 거름생산에 큰 힘을 넣으면서 모판나래와 바람막이바자위기를 따라 세워 다음해 랭상모판씨뿌리기 준비를 미리부터 착실히 해나가고 있음.

○ 다음해농사차비에 역량을 집중(로동신문 12.6)

- 김정일은 “농촌에서 다음해농사를 잘 짓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함.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황해남도 안의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신천군 명석, 새길협동농장과 연안군 소정, 읍협동농장, 배천군 조옥희협동농장, 강령군 내동협동농장 등 도안의 농촌에서 다음해 농사차비를 힘있게 추진하고 있음.
- 도농촌경리위원회 일군들은 올해 농사결속을 잘하는 것과 함께 가을갈이와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 다음해농사차비를 착실히 하도록 기술적 지도를 잘해 나가고 있음.
- 군안의 공장, 기업소 일군과 근로자, 인민반 주민들도 나라의 쌀독을 함께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줌.
-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을 비롯하여 재령군 삼지강, 신천군 명석, 새길협동농장에서도 농사차비를 실속있게 추진하고 있음.

○ 다음해농사차비으로 적극 조직 동원(로동신문 12.21)

- 황해북도 안의 농촌에서는 사회주의 경쟁의 불길높이 다음해농사차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현지도를 받은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안의 농장에서 낱알털기를 끝내고 일제히 다음해농사차비를 진입하여 논갈이와 거름생산 등 농사차비실적을 부쩍 올리고 있음.
- 도당위원회의 지도아래 도농근맹위원회에서는 책임일군을 비롯한 모든 일군이 현지도한 사리원시 미곡협동 농장을 비롯한 령도업적단위 농근맹조직에 내려가 다음해 농사차비를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여 실적을 올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도농근맹위원회와 각 시, 군 안의 농근맹조직에서는 농사차비를 잘하고 있는 단위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면서 모든 농장에서 거름생산, 소농기구 준비, 가마니생산 등 농사차비를 착실히 하도록 함.
- 영광의 땅을 빛낼 일념으로(민주조선 1.3)
- 김정일은 “농사차비에 모를 박아야 한다.”라고 말함.
 -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는 새해농사차비를 실속있게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짜고 들고 있음.
 - 농장의 일군들은 새해농사차비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노동력과 기계수단을 총동원하도록 하는 한편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고 있음.
 - 제8작업반에서는 거름생산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바람막이바자와 나래엮기, 중소농기구 수리정비에 힘을 넣어 날마다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음.
- 10월의 대축전을 빛낼 철석의 의지로(로동신문 1.7)
- 김정일은 “농사차비를 잘하는 것은 한해 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말함.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연안군, 안악군, 숙천군, 룡천군에서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하여 며칠사이에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각종 유기질비료를 논밭에 낸 것을 비롯하여 서해별방농촌에서 흙갈이와 거름생산, 거름실어내기 등 당면한 농사차비에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서해별방지대 농촌 당 조직에서는 공동시설의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농사차비에서 제일 품이 많이 드는 거름생산과 흙갈이, 거름실어내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황해남도과 평안남도, 남포시 등 도안의 농장마다 거름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기 위해 투쟁을 펼치고 있음.
- 새해농사차비로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민주조선 1.12)
- 김정일은 “농사차비를 잘하는 것은 한해 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말함.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황해남도에서 새해 들어 하루 동안 도적으로 16만여 톤의

거름을 농장포전에 실어내는 성과를 이룸.

-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혁신적 안목에서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방도의 하나를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서 찾은 황해남도에서는 유기질비료 생산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빈틈없는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난해 말부터 자기 고장의 거름원천을 최대한 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여 온 삼천, 연안, 장연군에서도 새해 첫 전투의 하루를 노력적 성과로 장식함.
- 새해에도 농촌지원사업을 통이 크게 벌릴 목표를 세우고 지난해부터 도시거름을 줄기차게 생산해온 배천군 안의 기관, 기업소 일군과 노동자, 사무원들, 가두인민반원들도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계획보다 더 많은 거름을 농촌에 실어낼 기세로 또다시 생산을 진행하고 있음.

○ 모판자재준비도 빈틈없이(민주조선 1.17)

- 안변군 비산협동농장에서 모판자재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데 힘을 쏟고 있음.
- 농장에서는 작업반, 분조에서 필요한 모판자재생산계획을 종류별로 세우고 어느 하나도 놓침없이 일정계획대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장악과 총화평가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함.
- 알곡생산에서 좋은 결실은 모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면서 일군들은 농장원과 일손을 같이하면서 모판자재준비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도 앞질러 대책을 세우고 있음.

□ 동가리치기

○ 동가리치기를 질적으로(로동신문 10.20)

- 룡천군 서석협동농장 제7작업반에서는 애써 지은 낱알을 허실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벧단꺼들이기를 실시하고 있음.
- 빨리 실어들일 포전의 벼는 동가리를 작게 치고 먼 곳의 벼는 큼직하게 쳐서 날짐승들과 우박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나가고 있음.
- 청년분조원들은 벼 베기에서 발휘한 열정을 동가리치기에 바쳐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으며, 제1, 3작업반원들도 벼의 마른상태와 논판의 물기를 따져가며 동가리치기를 해나가고 있음.

□ 영농방법

○ 기대되는 앞선 영농방법(민주조선 1.9)

- 올해공동사설에서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일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우렁이(우렁이)에 의한 논벼재배방법 역시 유기농법의 하나이며, 농장에서는 지난해 10정보의 논에 우렁이에 의한 논벼재배방법을 받아들여 좋은 결실을 이룩함.
- 농장에서는 그 실천을 통해 우월성이 확증된 우렁이에 의한 논벼재배방법을 올해 30%의 논에 받아들일 높은 목표를 세움. 이미 작업반마다 우렁이서식장을 꾸려놓고 책임과 기술기능수준이 높은 농장원을 관리공으로 선정하여 우렁이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고 있음.
- 새로운 속성영양랭상모재배방법은 지난해 농장에서 평양농업대학의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연계아래 종래의 속성영양랭상모재배방법보다 우월한 새로운 속성영양랭상모재배방법을 시험적으로 받아들임.
- 새로운 속성영양랭상모재배방법은 종래의 속성영양랭상모재배방법에 비해 모판을 만드는데 드는 부식토와 비료량이 훨씬 적을 뿐 아니라 씨뿌리기와 모뜨기에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음. 또한 새로운 속성영양랭상모를 키워 모를 낸 것보다 모살이 기간이 절반이나 짧음.
- 농장에서는 좋은 점이 많은 새로운 속성영양랭상모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진행하고 있음.

3. 밭농사

- **콩 가을걷이와 동시에 다음해 콩농사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 제때에 콩 가을걷이를 끝내기 위해 각 농장에서는 노동력과 농기계의 원만한 보장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다음해 콩농사 준비를 위한 콩종자 보관관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콩밭의 지력을 높이고 비배관리를 잘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 **콩농사**

- 콩농사준비를 실속있게(로동신문 1.9)
 - 화대군 룡원협동농장 일군과 농장원이 뜻 깊은 올해에 콩농사에서 높은 소출을 올리 기 위하여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농장일군들은 지난해의 경험에 기초하여 콩농사작전을 대담하게 하고 수확고가 높으 면서도 지대적 특성에 맞는 우량품종의 콩종자를 충분히 장만하는데 선차적 힘을 쏟 고 있음.
 - 작업반에서는 적지선정과 거름생산 및 실어내기를 적극 다그치게 하면서 새로운 영농 방법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 농장에서는 흙보산비료를 비롯하여 콩밭에 수십 톤의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내기 위 한 전투를 힘있게 벌이고 있음.

□ **두벌농사**

- 두벌농사도 힘있게(민주조선 12.19)
 - 올해 각지의 농촌에서는 당의 두벌농사방침관철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함. 당의 두 벌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펼쳐나선 농업부문 일군과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으로

올해 전국적으로 두벌농사면적이 늘어나 나라의 쌀독을 채우는데 기여함.

- 연안군 읍협동농장을 비롯한 황해남도안의 농촌들에서는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 앞그루농사는 물론 뒤그루강냉이와 논벼농사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음.
- 룡천군과 태천군, 숙천군과 문덕군에서도 두벌농사면적을 더 늘린데 맞게 앞뒤그루 농사에서 안전한 수확을 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면밀히 진행하고 있음.
- 황해북도와 강원도에서도 두벌농사면적을 늘이고 용근 소출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함경도에서도 두벌농사경쟁바람이 세차게 일어나는 속에 혁신적 성과가 연이어 나타남.

4. 감자농사

□ 각 협동농장에서는 수확고가 높은 우량품종의 감자종자와 기후풍토조건에 맞는 감자 종자를 마련하고 보관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감자농사를 잘하기 위해 질 좋은 거름 생산에 힘쓰고 있으며, 감자농사의 기계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감자농사 준비

○ 세차게 몰아친 감자농사 열풍(민주조선 12.19)

- 김정일은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켜 먹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우리 당이 내놓은 중요한 방침이다.”라고 말함.
- 백두삼천리별을 가꿔가는 대흥단군의 농업부문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은 총진군의 기세 드높이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서 감자농사에 온 힘을 쏟고 있음.
- 삼지연군과 백암군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들도 대흥산식과학농법의 요구대로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고 있음.
- 삼지연군에서는 모든 목장에서 우량종돼지를 확보하고 수백 톤의 물거름을 생산하도록 포전에 내었음. 또한 농기계수리정비를 다그치면서 복주기(중경배토)를 할 수 있는 여러 대의 농기계를 자체로 생산하여 감자농사의 기계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함.

○ 농사차비에 역량을 집중(민주조선 1.3)

- 김정일은 “감자농사를 잘하자면 거름을 많이 생산하여 밭에 내야 한다.”라고 말함.
- 감자농사를 잘하는데서 땅의 지력을 높이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삼지연군안의 농업부문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은 올해 정보당 50톤 이상의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여 밭에 낼 목표아래 그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삼지연군안의 모든 농장에서 거름원천을 모두 찾아냄과 함께 니탄생산과 부식토생산을 늘리기 위한 투쟁에 힘을 넣어 군적으로 1만 수천 톤의 니탄을 캐들이는 성과를 거둠.
- 농장의 일군들은 일찍부터 거름원천을 찾아내고 노동력과 기계수단을 집중하여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감자밭에 제공하고 있음.

○ 감자농사준비를 착실히(로동신문 1.12)

- 대흥단군 신흥농장의 일군과 근로자들이 첫 전투기세를 올리고 있음. 농장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은 불리한 기후조건 속에서도 정보당 수십 톤의 거름을 낼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투쟁을 벌이고 있음.
- 더 많은 거름을 생산하기 위해 원천을 적극 찾아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과 함께 수송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거름의 질을 높이는데도 힘을 쏟고 있음. 농장에서는 밀, 보릿짚에 물 거름을 골고루 섞어 잘 썩히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하고 있음.

□ **두벌농사**

○ 두벌농사준비를 착실히(민주조선 12.16)

- 김정일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라고 말함.
- 정주시 압두협동농장에서는 당 창건 65돌을 맞는 뜻 깊은 올해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알곡생산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준비를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음.
- 생육기일이 짧고 수확고가 높은 앞그루감자종자를 비롯하여 농장의 특성에 맞는 종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앞선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데 맞게 농장에서는 지금 당면한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음.

○ 두벌농사준비를 착실히(로동신문 1.15)

- 김정일은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알곡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두벌농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함.
- 평원군 원암협동농장벌에 두벌농사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음. 지난 기간 두벌농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과정에 논에서의 앞그루감자농사야말로 알곡수확고를 높이기 위해 효과있는 농사방법이라는 것을 확신한 일군들은 두벌농사면적을 그전보다 2배 늘릴 목표를 세움.
- 농장일군들은 두벌농사면적을 늘린데 맞춰 수확고가 높은 우량품종의 종자를 확보하고 적지를 바로 선정함.
- 작업반에서는 감자모를 적기에 키워내기 위한 방도를 태양열온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데서 찾고 지력을 높이는데 큰 힘을 쏟고 있음. 또한 니탄이 없는 조건에서 생물활성퇴비의 질을 더욱 높여 보드라운 것을 흙보산비료의 원료로 이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두벌농사면적이 늘어난 조건에 맞게 유기질비료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여 나가고 있음.

5. 축 산

□ **축산업 발전을 위해 풀먹는집짐승 기르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집짐승 거울나이 준비를 위하여 집짐승의 먹이를 충분히 마련하여 제반 조건을 완비시키고 있음. 또한 수의방역 사업의 일환으로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축산동향

○ 번듯하게 새로 꾸린 축산기지(로동신문 11.3)

- 김정일은 “산골 군들에서 농민들의 생활을 빨리 높이자면 산을 잘 이용하여 토끼, 양, 염소, 소같이 풀먹는집짐승들을 많이 기르는 방향으로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말함.
- 벽동군 송사협동농장에 축산기지가 훌륭히 세워져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음. 돼지 우리뿐 아니라 염소, 토끼우리들도 세우고, 갱도식냉장고, 여러 가지 젓가공제품을 생산하는 가공실도 갖춰져 있음.
- 농장의 일군과 농장원들은 축산물생산에서 더 큰 혁신을 일으키고, 100일 전투 목표 달성을 위해 힘쓰고 있음.

○ 더 많은 고기와 젓제품을(민주조선 11.4)

- 김정일은 “고기문제를 풀자면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말함.
- 김정일이 현지지도한 원산목장에서는 우리 당의 종자혁명방침에 따라 새 품종의 염소를 비롯한 수익성과 생산성이 높은 집짐승종자를 마련한데 이어 대대적으로 번식시키기 위한 과학적인 사양관리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있음.
- 원산목장의 1, 2분장에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받아들여 클로렐라생산을 적극 늘려 그 생산량을 종전보다 2배나 높이었음. 가공먹이와 영양주사약을 생산하여 집짐승들의 증체율을 훨씬 늘리고 있음.

- 일군과 종업원들은 인공풀판 조성과 자연풀판 확보투쟁을 벌이고 있음. 이미 마련된 수천 정보의 풀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토양조건과 기후조건이 좋은 수십 정보의 도찬리등판을 개간하여 수확이 많고 영양가 높은 풀씨를 뿌림 이를 토대로 겨울먹이 마른풀 수천 톤, 풀절임감 수백 톤을 마련하였음.
- 목장에서는 축산의 수의방역사업은 생명과 같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체로 당근주사약, 감나무잎추출액을 비롯한 20여종의 효능 좋은 약을 만들어 이용함으로써 집짐승들이 병 없이 잘 자라게 하고 있음.

○ 축산물생산성과 계속 확대(로동신문 11.5)

- 김정일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가 확고히 마련되어 있다. 우리가 이미 마련된 토대에 기초하여 나라의 축산업을 발전시키면 단백질식품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함.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함흥시청년염소목장을 비롯한 각지 축산부문의 현지도단위의 일군과 근로자들이 과학화, 현대화의 수준을 높여 축산토대를 튼튼히 꾸려놓고 집짐승들을 대대적으로 길러 축산물생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도,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김정일의 현지도를 받은 목장, 축산전문협동농장 일군과 근로자들이 현지도를 결사 관철하여 대고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벌임.
- 함흥시청년염소목장의 당원과 근로자들은 짧은 기간에 수천 정보의 먹이밭을 더 조성하고 영양가 높은 먹이생산 및 가공기지를 꾸려 놓았으며 분장들을 새로 더 내움으로써 좋은 생산전망을 열어 놓았음.
- 구성시 남산축산전문협동농장에서는 젓가공설비들을 더 갖추어놓고 영양가 높은 여러 가지 젓가공품 생산을 늘렸음. 황해북도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은 우량품종의 새끼염소들을 많이 생산하여 여러 단위에 보냄.
- 황해남도 계남목장의 일군과 근로자들은 여러 곳에 물주머니를 만들어 풍부한 물원천을 조성하면서 젓짜는 염소 마리 수를 늘려 나가고 있음. 원산목장은 전반적인 생산공정에 새로운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집짐승들의 증체율이 급격히 늘었음.

○ 대고조의 열풍 속에 마련된 자랑찬 결실(민주조선 11.5)

- 황해남도 계남목장에서 조업이래 최고생산수준을 돌파하였음.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곳 목장에서는 지난 9월말까지 연간 젓생산계획 140%, 고기생산계획 104.8%

로 넘쳐 수행하였으며 염소, 토끼를 비롯한 풀먹는 집짐승새끼 생산계획도 넘쳐 수행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음.

- 새끼염소는 계획한 것보다 300여 마리, 염소젖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백수십 톤이나 더 생산하여 김정일의 현지지도이후 지난 6년간의 최고생산수준을 돌파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음.
- 축산제3분장은 지난 시기 후보염소 확보와 어미염소에 대한 사양관리를 알심있게 해 왔으며, 염소젖생산시기에 들어서면서 염소방목을 잘 조직하는 동시에 수의방역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5배 염소젖생산실적을 기록하였음.

○ 축산물생산에서 이룩된 자랑스런 결실(민주조선 11.21)

- 구성시 남산축산전문협동농장에서 염소, 토끼, 계사니를 비롯한 풀먹는 집짐승들에 대한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많은 고기와 젓가공품을 생산하였음. 특히 염소젖생산은 지난해보다 1.7배로 늘리는 성과를 거두었음.
- 이어 2정보의 인공품판과 20여 정보의 자연풀판을 새로 조성하여 늘어나는 집짐승들의 먹이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균치리에 의한 케피르생산방법을 받아들여 젓가공품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농장의 일군들은 김정일의 현지말씀을 지침으로 삼고 우량품종의 집짐승 마리수를 늘리는 문제로부터 계절에 따른 먹이보장 등 높이 세운 축산물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통이 큰 작전을 펼침.
- 분장에서는 풀판조성과 관리를 잘하여 수백 톤의 마른 풀과 풀절임에 필요한 400여 톤의 풀을 거두어들이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집짐승겨울나이준비를 착실히(민주조선 11.22)

- 김정일은 “축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라고 말함.
- 함경북도에서 집짐승겨울나이준비를 빈틈없이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청진토끼종축장에서는 100일 전투 기세 드높이 토끼들의 겨울나이준비를 잘하고 있음.
- 종축장 일군들은 전례 없이 많은 새끼토끼를 생산하여 도안의 여러 곳에 제공하는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내년에 더 많은 토끼를 기르기 위해 종업원들에게 거

울철 토끼관리의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이해시키며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종축장에서는 잎남새를 많이 절구고 알먹이를 만들어 먹이기 위한 대책과 방도를 세움으로써 먹이낭비를 없애고 새끼토끼들에게 즈먹이를 충분히 보장하는 등 먹이 보장사업에서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는데 힘을 쏟고 있음.
- 겨울철에도 새끼토끼들에 대한 접종사업을 강화할 수 있게 대책을 세우고 화염소독, 공기같이 등을 제때에 하여 토끼들이 사소한 질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사업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음.
- 축산작업반에서는 강냉이짚, 콩깍지, 무, 배춧잎을 많이 거두어들여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도 먹이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하고 있음. 또한 집짐승우리 수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집짐승에게 알맞은 온도를 보장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떨감도 넉넉히 마련하고 있음.

○ 집짐승먹이준비를 빈틈없이(민주조선 12.3)

- 세포군 중평협동농장에서는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를 데 대한 당 정책을 높이 받들고 겨울철 집짐승먹이준비에 계속 힘을 쏟고 있음.
- 협동농장 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해 축산물생산을 늘리는데서 집짐승먹이를 넉넉히 해결하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작업반단위로 겨울을 날 집짐승 마리수와 먹이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음.
- 근 20년간 해마다 1만여 마리의 토끼를 길러 많은 고기와 털가죽을 생산하고 있는 토끼작업반에서는 자체로 마련한 먹이기지에서 수십 톤의 칩과 딱감자, 청애풀 등을 걷어 들여 창고마다 가득히 저장하고 있음.
- 농산작업반에서는 소와 양, 염소 등 풀먹는 집짐승의 겨울나이준비에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음. 특히 부림소의 겨울철영양관리를 잘하고 마리수를 늘이는데 모를 박고 강냉이짚과 콩짚 등을 말끔히 모아들이고 있음.
- 농장에서는 집짐승먹이를 마련하는 족족 여러 가지 운반수단을 이용하여 제때에 실어 들이는 한편 모아들인 먹이가 눈비에 젖거나 부패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관리 사업에도 힘을 넣고 있음.

○ 현대화의 위력 떨친 축산기지들(로동신문 12.28)

- 김정일 “지금 우리나라에는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가 확고히 마련되어 있다. 우리가 이미 마련된 토대에 기초하여 나라의 축산업을 발전시키면 단백질식품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함.
- 축산부문의 일군들은 현대화된 축산기지에 내려가 현지말씀과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방도를 토의하고 축산기지의 물질적 토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기술적 지도에 힘을 넣었음.
- 자강도 안의 축산부문 일군과 근로자들은 과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강계돼지공장의 종축프로그램, 먹이처방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종축생산을 확고한 과학적 토대 위에 올려놓음.
- 강계오리공장은 오리고기가공설비를 자체의 힘으로 제작 완성하여 이용하였으며 홍주닭공장의 일군들은 먹이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사양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음.
- 평북돼지공장은 종축토대를 꾸리는데 중심을 두고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먹이보장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구성닭공장은 연간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하고 다음해 생산을 위한 종금토대를 마련해나가고 있으며, 사리원돼지공장 역시 100일 전투기간에 세운 고기생산목표를 이루었음.
- 각지의 축산부문 일군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현대화의 위력을 높이 떨친 뜻깊은 한해를 감회깊이 돌이켜 보면서 다음해 축산물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 나감.

□ 수의방역

○ 수의방역사업을 짜고들어(민주조선 11.3)

- 김정일은 “축산업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수의방역사업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함.
- 세포군에서 집짐승에 대한 가을철 수의방역사업을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잘해나가고 있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축산과와 수의방역소에서는 절기가 바뀌는 요즘 집짐승들의 질병을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기술적 지도를 추진하고 있음.

- 군에서는 집짐승기르기에서 모범을 보인 중평협동농장 토끼작업반, 귀락협동농장 양작업반, 읍소학교의 경험을 소개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모두가 수의방역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고 있음.
- 협동농장들의 종축작업반, 비육분조에서는 집짐승우리에 찬바람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수하고 불소독, 매운재뿌리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주변정리를 하고 있음.
- 군수의방역소 일군들은 기술을 혁신하고 지방의 원료원천을 적극 탐구 동원하여 콕시디움예방약을 비롯한 효능높은 각종 예방약을 개발, 생산하는 한편 협동농장, 기관, 기업소, 가정세대들에서 집짐승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군에서는 협동농장, 기관, 기업소, 가정에서 가을철집짐승먹이공급과 겨울나이먹이 준비를 위생학적 요구에 맞춰 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음. 겨울나이준비로 거둔 칡, 청애콩, 딱감자와 각종 농부산물보관관리를 잘하여 부패 변질되지 않도록 해당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가고 있음.

□ 오리

○ 오리공장개건공사 활발히 추진(민주조선 11.4)

- 증산군에서 오리공장기술개건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음. 개건대상은 16개 호동의 오리우리들과 먹이가공실, 알깨우기실, 고기가공반과 검역초소를 비롯하여 20여 동임.
- 개건공사가 완공되면 공장에서는 연간 오리고기 생산을 수백 톤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군내 주민들의 식생활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임.
- 오리공장개건사업에 펼쳐나선 군안의 일군과 근로자들은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을 공급할 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공사에서 위훈을 창조해나가고 있음.

○ 오리공장기술개건을 힘있게(민주조선 11.10)

- 김정일은 “인민들에게 오리고기를 많이 공급하자면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대로 오리고기생산기지를 더 확장하고 오리사양관리를 개선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16개 호동의 오리우리과 먹이가공실, 알깨우기실, 고기가공장과 검역초소 등 연건평

이 수천㎡에 달하는 20여 동의 건물을 동시에 일떠세우고 공장의 생산능력을 연간 수백 톤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기술개진 사업으로 실로 어렵고 방대한 과제임.

- 군인민위원회에서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긴밀한 연계 아래 100일 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에 따라 오리공장 기술개진사업을 빠른 시일 안에 끝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에 군안의 일군과 근로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그들의 혁명적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음.

□ 토끼

○ 토끼종축장을 특색있게 건설(민주조선 11.20)

- 풍서군에서 토끼종축장을 특색있게 건설해놓고 많은 우량품종의 토끼를 기르고 있음. 군에서는 짧은 기간에 토끼종축장을 훌륭히 건설하였음.
- 여기에는 사료가공실, 수의방역실, 과학기술지식선전실과 실내와 야외먹이건조장, 놀이장, 겨울철에도 새끼토끼를 생산할 수 있는 새끼낳이실이 갖추어져 있음.
- 이곳에서는 수많은 새끼토끼들을 생산하여 군안의 협동농장과 공장, 기업소, 학교, 가정에 계획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 토끼기르기를 힘있게 내밀어(민주조선 1.6)

- 김정일은 “토끼 기르는 운동을 널리 벌이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선천군에서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를 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토끼기르기를 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내밀어 성과를 이룩함.
- 군에서는 토끼 마리수를 늘릴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음.
- 위원회일군들은 담당한 단위에 나가 근로자들이 토끼를 대대적으로 기를 데 대한 당의 높은 뜻을 널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토끼기르기를 잘하여 그 덕을 보고 있는 단위들의 경험을 적극 따라 배우도록 실천적 모범으로 이끌어 줌.
- 군량정사업소와 선천시약공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에서 자체의 생산실정에 맞게 토끼의 집단사육과 분산사육을 잘하여 토끼 마리수가 부쩍 늘어나게 됨. 군량정사업소에서는 우량품종의 어미토끼 마리수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먹이도 충분히 마련하여 우량품종의 새끼토끼를 많이 받아냄.

6. 농업기반

- 당 정책에 따라 이미 개천-태성호 물길, 백마-철산물길이 완공되었으며, 이번에 미루벌물길이 완공되었음. 가을철 국토관리 사업을 통해 각 지역의 도로건설 및 정리, 강하천 정리 사업, 나무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물길공사

- 물에 대한 세기적 숙망을 풀어주시어(민주조선 10.20)
 - 미루벌물길은 큰 규모의 독특한 자연흐름식물길임. 기본저수지와 평암저수지사이 에 미루벌로 물을 끌기 위한 100여리에 달하는 기본물길이며, 물길의 총연장길이는 수백 리에 달함.
 - 기본저수지는 저수능력이 매우 크며 취수탑을 통하여 초당 수^m의 물을 뽑을 수 있음. 물길 상에는 수십 개의 물길굴과 780여개의 각종 구조물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것이 흙물길과 연결되어 관개용수가 자연흐름 그대로 미루벌의 논밭까지 흘러감.
 - 당 정책에 따라 이미 개천-태성호 물길, 백마-철산물길이 완공되었고, 이번 미루벌 물길 완공으로 인해 서해안지대 특히 해발고도가 높은 중부지대의 많은 부침땅면 적에서 양수동력을 이용하는 기존관개체계가 자연흐름식 관개체계로 전환되면서 알곡증산의 전망이 열렸음.
- 미루벌물길에 중소형발전소들이 일떠선다(민주조선 1.14)
 - 지난해 9월말 우리 식의 독특한 자연흐름식물길인 미루벌물길이 완공된데 이어 지금 이 물길의 여러 곳에 중소형 발전소들이 빠른 속도로 세워지고 있음.
 - 중소형발전소들이 완공되면 이 곳에서 수천 kW의 전기를 생산하게 됨. 이로 인해 미루벌에서 알곡생산을 늘리고 축산업을 발전시키며 이곳 사람들에게 보다 윤택하고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리고 있음.

- 중소형발전건설소 건설에 참가한 일군과 건설자들은 10월의 대축전장에 들어설 불타는 결의안고 새해벽두부터 일터마다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과감한 공격전으로 높은 실적 기록(로동신문 1.18)

- 새해에 들어와 발전소건설자들은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작업깡과 기본물길 뚫기공사를 빠른 속도로 내밀어 첫 열흘 만에 방대한 구간의 물길굴을 뚫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함.
- 발전소건설지휘부에서는 군인과 건설자들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물길굴뚫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하는 한편 겨울철조건에 맞게 공사속도와 질을 높이기 위해 큰 힘을 쏟고 있음.
- 평안남도와 평양시, 평안북도려단 일군과 돌격대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압축기와 권양기를 막장가까이에 전개해놓고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그날 계획은 그날로 수행하는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고 있음.
- 미루별물길공사 중앙지휘부의 여러 려단과 룡산려단, 철도성려단의 일군과 돌격대원들은 남들보다 작업조건이 불리하지만 물길굴공사에서 자신만만한 투지와 신심에 넘쳐 매일 굴진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음.

□ 국토관리사업

○ 국토관리사업에 계속 큰 힘을(로동신문 11.12)

- 김정일은 “국토관리사업을 잘하여야 내 나라, 내 조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인민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함.
- 강원도 안의 일군과 근로자들은 국토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떨쳐나 성과를 거두고 있음. 도안의 일군과 근로자들은 여러 대상의 강하천 제방공사와 도로건설 및 정리, 거리와 마을꾸리기 등 국토관리사업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강하천제방공사와 정리사업에서 혁신적 성과를 이룩하고 있음. 도안의 여러 시, 군들에서 도로의 기술상태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안변군에서는 남대천제방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냄으로써 많은 농경지와 살림집들

이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게 하였음. 문천시에서는 도로건설을 위한 노력조직을 짜고 책임일군들이 앞장서 많은 성과를 거두며 국토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을 힘있게 벌린다(민주조선 11.17)

- 김정일은 “산림을 잘 조성하자면 산림조성계획을 세우고 산림조성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서흥군 인민위원회에서 국토관리사업을 전망성있게 내밀어 우리 조국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꾸려나갈데 대한 올해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군안의 산에 수종이 좋은 나무를 더 많이 심기 위한 계획을 바로 세워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특히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군안의 산에 더 많은 뿔나무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조직해 나가고 있음.
- 산림경영소를 맡고 내려간 군국토환경보호관리부 김성복부장은 뿔나무림조성사업의 성과여부가 나무모를 어떻게 보장하는가에 달려다는 것을 일군과 근로자들 속 깊이 인식시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임무와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있음.
- 피복공장과 자동차사업소를 비롯하여 군안의 공장, 기업소에서 노동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가면서 나무심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풍서군 인민위원회에서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군안의 9개 대상의 도로들에 대한 확장공사와 구매낮추기, 평탄성보장 등을 중요과제로 내세우고 여기에 큰 힘을 넣어 도로의 기술상태를 더욱 개선해 나가고 있음.
- 도로를 보다 견고하면서도 문화성있게 기술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군적인 사업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또한 관흥-유상하리의 도로폭확장공사를 힘있게 벌이고 있음.
- 공사를 맡은 군안의 공장, 기업소 노동자, 사무원, 가두인민반원들은 여러 가지 운반수단들을 총 동원하여 방대한 도로폭확장공사를 힘있게 추진하고 있음.

7. 산림

- **수림화, 원림화를 위한 산림조성사업과 산림 보호 관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겨울철 통나무 생산을 늘리기 위해 모든 노동력과 설비를 통나무 생산에 집중시키고 있음. 또한 산불방지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음.**

□ **산림조성**

○ **덕을 보는 잣나무림(로동신문 11.19)**

- 김정일은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밑천이다.”라고 말함.
- 리원군 구읍, 곡구, 대덕, 송동, 문양, 중평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수천 정보나 되는 잣나무림이 펼쳐져 있음. 군 지역사람들의 관심은 잣접림으로 올해도 군에서는 많은 면적의 소나무림에 잣접림을 하였음.
- 지난해 8월 리원군을 현지지도한 김정일은 현시대는 과학의 시대인 만큼 산림조성 사업에서도 산림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과학연구기관들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고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좋은 수종의 나무를 얻어내고 그것을 널리 퍼트리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함.
- 군에서는 우선 잣접기능공대열을 늘리는데 힘을 쏟고 있음. 잣접기능공대열이 늘어난 것만큼 소나무에 잣접을 하여 잣나무림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가 창조되었음.

□ **통나무생산**

○ **겨울철통나무 생산준비 적극 추진(민주조선 11.6)**

- 김정일은 “임업부문에서는 겨울철통나무생산을 위한 임지를 잘 정하고 미리부터

생산준비를 실속있게 하며 겨울철에 모든 노력과 설비를 통나무생산에 집중시켜야 한다.”라고 말함.

- 강원도임업관리국에서 겨울철통나무 생산준비를 잘 해나가고 있음. 관리국안의 일군과 노동자들은 전망 좋은 새 임지에 생산용 설비, 자재의 수리정비와 확보, 30여 km에 달하는 임산도로건설, 20여개의 산지합숙건설과 후방물자확보를 위해 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음.
- 관리국에서는 겨울철통나무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기술 준비, 생산준비를 앞세우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 들고 있음.
- 관리국아래 립산사업소에서는 겨울철통나무생산준비를 일정계획대로 힘있게 추진하고 있음. 세포, 천내립산사업소 일군과 노동자들은 지혜와 힘을 합쳐 겨울철에 수송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료전기재들의 수리정비와 예비부속품확보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통나무사이나르기와 마감 나르기가 유리한 곳에 통쏘이길과 도로를 새로 내는 공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판교립산사업소에서는 전망 좋은 새 임지를 확보하고 자체로 마련한 공무동력수리 기지를 이용하여 자동차, 트랙터, 기계톱 등 전반적 설비에 대한 수리정비를 맡꿈히 하는 동시에 7개의 호동의 산지합숙건설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음.

○ 겨울철통나무 생산전투를 힘있게 벌이자(민주조선 11.13)

- 김정일은 “통나무생산을 늘이는데서 겨울철통나무 생산전투를 힘있게 벌이는 것이 중요함.
- 겨울철은 통나무생산에서 매우 유리한 계절임. 겨울철에 통나무를 대대적으로 생산하여야 채취공업부문과 중요대상건설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목재수요를 보다 원만히 보장할 수 있음.
- 노동력을 겨울철통나무생산에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함. 립산사업소와 갱목생산사업소에서는 보조부문의 노력과 비생산부문의 노력을 동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노력예비를 적극 찾아내어 더 많은 노동력을 겨울철통나무생산에 돌려야 함.

○ 겨울철통나무생산의 경제적 효과성(민주조선 11.22)

- 김정일은 “통나무생산을 늘이는데서 겨울철통나무생산전투를 힘있게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 겨울에는 나무에 수분이 적고 숲이 무성하지 않으며 산에 눈이 덮여 있기 때문에 나무를 베기도 편리하고 끌어내리기도 좋다.”라고 말함.

- 김정일은 자연계절적조건이 임업부문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통찰한데 기초하여 겨울철 통나무생산전투를 힘있게 벌여 통나무생산을 늘릴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겨울철 통나무생산은 우선 노동이 쉬울 뿐 아니라 노동생산능력을 훨씬 높이게 됨. 겨울철에는 나무의 질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무베기작업을 보다 쉽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음. 따라서 겨울 노동생산능률을 여름에 비해 133.4%나 높일 수 있음.
- 겨울철통나무생산을 하면 질 좋은 통나무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됨. 여름철에는 흙탕이나 돌서덕으로 인해 통나무대당 부피의 3%정도가 손상을 입는데 겨울철에는 눈길에서 나무를 모으고 끌어내리기 때문에 쓸림에 의한 손상이 적음. 또한 수분함량이 낮아 구부러지는 현상, 병해충의 피해도 적어 더 쓸모 있는 통나무를 생산할 수 있음.
- 임업부문의 일군과 노동계급은 겨울철통나무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릴 데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인식하고 겨울철통나무생산전투를 임지를 잘 정리하고 생산준비를 확고히 앞세웠음.

○ 겨울철통나무생산 활발(로동신문 12.4)

- 김정일은 “임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임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임업부문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121호 림업연합기업소의 일군과 노동자들은 높이 세운 연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할 목표를 내걸고 치열한 돌격전을 벌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2 배의 생산성과를 올리고 있음.
- 도당위원회의 지도아래 연합기업소에서는 겨울철 통나무 생산에서 연일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고 있음. 통나무베기와 모으기, 사이나르기 등 모든 공정이 치차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진행하고 있음.
- 삼수림산사업소, 중평청년작업소, 자서림산사업소, 룡하림산사업소, 로탄청년림산사업소 등 모든 작업소에서 겨울철 통나무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예견성있게 확보하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진행하고 있음.

○ 겨울철통나무생산에서 혁신(민주조선 12.5)

- 김정일은 “통나무생산을 늘리는데서 겨울철통나무생산전투를 힘있게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함.

- 랑림림산사업소에서 일군과 통나무생산자들이 100일 전투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수 놓으며 겨울철통나무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창조하고 있음.
- 100일 전투기간 더 많은 통나무를 생산할 결의를 안고 펼쳐나선 이곳 일군과 노동자들은 어렵고 부족한 것이 많은 속에서도 겨울철통나무생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 놓음. 일군들은 앞장서서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함.
- 일군들은 눈 덮인 산에 올라 한 개 단위씩을 맡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줌으로써 채벌장마다 혁신의 기상이 나래치고 있음.
- 삼포작업소에서는 톱과 트랙터정비를 빈틈없이 하고 생산전투를 힘있게 벌여 매일 맡겨진 통나무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함. 장성작업소는 매일 맡겨진 생산계획을 2배 이상 넘쳐 수행하고 있으며, 오만동작업소 역시 맡겨진 계획을 어김없이 해나가고 있음.

○ 겨울철통나무생산성과 확대(민주조선 12.9)

- 김정일은 “임업부문에서는 겨울철 통나무생산을 위한 임지를 잘 정하고 미리부터 생산준비를 실속있게 하며 겨울철 모든 노력과 설비를 통나무생산에 집중시켜야 한다.”라고 말함.
- 자강도 립업관리국 아래 립산사업소와 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과 노동자들이 겨울철통나무 생산전투에 한결같이 힘쓰고 있음.
- 도림업관리국에서는 이번 겨울철 통나무 생산전투기간에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통나무를 원만히 생산 보장할 목표를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음.
- 도안의 립산사업소, 갱목생산사업소에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자동차길, 트랙터길, 통쏘이길을 새로 내거나 보수하고 산지합숙, 트랙터보온고 등을 잘 꾸려 노동자들이 불편없이 일하고 생활하도록 하였음.
- 룡림림산사업소의 일군과 노동자들은 모든 운전기재들의 점검보수를 끝내고 임지조건에 맞게 수송길을 새로 내거나 보수하여 통나무 생산과 수송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하여 요즘 첫 시작부터 통나무생산을 힘있게 벌여나가고 있음.

- 랑림림산사업소에서도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다리를 튼튼히 복구하고, 산지합숙, 트랙터보온고, 토장꾸리기, 길닦기를 비롯한 모든 준비를 갖추.
- 통발나무 생산에 많은 몫을 맡고 있는 회천, 동신갱목생산사업소와 송원, 고인, 성간림산사업소의 일군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탄광, 광산에서 요구하는 통발나무를 제때에 생산 보장하기 위해 온갖 내부 예비를 총동원하여 생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통나무생산성과 확대(민주조선 1.8)

- 김정일은 “통나무생산을 늘리는데서 겨울철통나무생산전투를 힘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함.
- 면밀한 준비를 갖추고 올해 전투에 들어선 임업부문 일군과 노동계급들은 첫날 산지통나무생산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2배로 장성하였음.
- 올해를 인민 행복 번영의 해로 삼고 임업부문 일군들은 겨울철 통나무생산을 훨씬 늘릴 높은 목표를 세우고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추진하였음.
- 자강도 립업관리국 일군과 노동계급은 강추위 속에서도 불굴의 투지와 애국의 열정을 발휘하여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을 추진하며 일정계획을 초과수행하고 있음.

○ 통나무생산에서 연일 혁신(민주조선 1.10)

- 연사람산사업소에서는 겨울철통나무생산을 더욱 늘려가고 있음.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사업소 안의 모든 작업소에서는 매일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해 훨씬 많은 통나무를 생산하고 있음.
- 사업소에서는 높이 세운 겨울철통나무생산목표를 매달, 매분기마다 빛나게 넘쳐수행하기 위해 전투작전과 지휘를 보다 능숙하게 해나가고 있음.
- 일군들의 힘 있는 화선식정치사업에 고무된 로평작업소의 일군과 노동자들은 지난해 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낸 기세 드높이 올해에 들어와서도 매일 통나무생산계획을 1.2배 이상씩 넘쳐수행하면서 계속 앞장서 생산하고 있음.
- 이들은 연간계획을 기한 전에 넘쳐수행할 목표아래 트랙터와 기계톱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적은 노동력으로 많은 통나무를 생산하고 있음.

○ 겨울철통나무생산에 박차를(민주조선 1.17)

- 김정일은 “통나무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려야 한다.”라고 말함.
- 평안남도 립업관리국아래 사업소들은 새해공동사철을 높이 받들고 겨울철통나무 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더 많은 통나무를 생산하고 있음.
- 관리국은 자재보장이 곧 통나무생산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해당 일군들을 적극 불러 일으켜 폐강소재, 쇠뿔, 기계톱, 자동차와 트랙터다이아, 부속품을 원만히 확보하여 산하단위에 보내주고 있음.
- 관리국아래 사업소들은 인민경제계획수행을 법처럼 누구도 어길 수 없는 공민의 의무로 간주하고 통나무생산투쟁을 힘차게 벌이고 있음.

□ 산불방지

○ 산불방지대책을 철저히(민주조선 11.12)

- 김정일은 “량강도에서는 산불막이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는데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라고 말함.
- 위원회에서는 혁명전적지가 많은 군의 특성에 맞게 산불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우는데 특별한 주의를 돌리고 있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일군들은 군국토환경보호관리부 일군들과 함께 광범한 군중 속에 들어가 가을철조건에 맞게 산불을 특별히 주의하도록 정치사업을 벌여나가면서 조직사업을 짜고 들어감.
- 일군들은 주민들 속에서 공원이나 유원지, 산림구역에서 불을 피우는 현상과 성냥과 라이터를 비롯하여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산에 가는 일이 없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고 있음.
- 창도군 인민위원회에서는 나라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음.
- 사동, 당산, 장현 등 여러 지구들은 산불을 미리 막기 위한 대책들이 철저히 세워지고 있음. 산림감독원들은 기관, 기업소, 인민반에 나가 산불이 한번 일어나면 귀중한 산림자원을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한편 제정된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음.

8. 기타 작물

- **인민들에게 사시사철 신선한 과일을 공급하기 위해 과수업 발전에 힘을 쏟고 있음.** 과일나무모생산지에서는 과학적인 나무모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성이 높은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모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혁신적 성과를 이룩하였음.

□ 과수

○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민주조선 12.19)

- 김정일은 “과수업을 더 발전시켜 근로자에게 사철 신선한 과일을 공급해야 한다.” 라고 말함.
- 과수부문의 일군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키낮은사과 나무를 비롯한 생산성이 높은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를 더 많이 심을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벌임.
- 과일나무모생산지에서는 과학적인 나무모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과일나무모의 생산주기를 종전보다 훨씬 줄이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모를 대량적으로 생산하는 혁신적 성과가 이룩되었음.
- 고산과수농장은 과일나무에 대한 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과수작업의 기계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 올려 세움으로써 올해 지난해에 비해 1.2배 이상의 과일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었음.
- 김정일은 올해 고산과수농장과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면서 나라의 과수업을 최단기간에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침을 주고, 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함.

□ 공예작물

○ 새 품종 수세미오이가 퍼진다(로동신문 11.15)

- 김정일이 2년 전 보내준 어린 새품종 수세미오이 종자가 황해북도 안의 모든 협동농장, 모든 가정들에서 대대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올해 도적으로 심은 새 품종 수세미오이는 무려 82만 7천여 포기에 달함.
- 어린 새품종 수세미오이는 긴수세미오이 1호를 비롯하여 5가지 품종이며 크기가 대단히 큰 것을 비롯하여 지난 시기 재래종 수세미오이에 비해 훨씬 우월함.
- 도의 해당부문에서는 먼저 사리원시 미곡리, 서흥군 범안리, 봉산군 은정리와 여러 채종단위에서 수세미오이를 심도록 하였음.
- 많은 종자를 생산한 도에서는 지난해 수십 kg를 평양시를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도에 보내주었으며 사리원시와 도안의 모든 군, 리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더욱 폭넓게 진행하였음.

□ 산열매

○ 흥하는 고장에 산열매 풍년이 들었다(민주조선 10.25)

- 김정일은 “김일성은 일찍이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뜯어먹어야 한다고 교시하였는데 이는 산이 많은 곳에서는 산림을 잘 조성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말함.
- 창성군에서 최근에 수백 톤에 달하는 산열매를 채취하였음. 이는 군에서 3년 동안 식료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지방원료를 마련한 것임.
- 군인민위원회에서는 산열매를 허실 없이 제때에 채취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용할 목표아래 이 사업을 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내밀었음.
- 일군들이 산열매작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한 것을 기초로 군안의 공장, 기업소, 가두 인민반들에 산열매채취과제를 정확히 주고 그것을 여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였음.
- 산열매채취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도토리, 머루, 다래, 찹쌀이(산사열매)를 비롯한 수백 톤의 산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성과를 이룸.

□ 버섯

○ 콩짚 1톤에 버섯 1톤(민주조선 10.23)

- 최근 연탄버섯공장에서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재배하고 있는 콩짚버섯생산방법이 전국의 버섯생산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음.
- 이 공장에는 새롭게 건설된 갱도식버섯재배장과 야외재배장이 있으며, 공기갈이와 온도, 습도, 버섯블록(버섯재배기)운반 및 보관 등 버섯재배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갖춘 재배장에서는 버섯, 버섯종균, 버섯블록들이 생산되어 군안의 곳곳에 공급되고 있음.
- 콩짚은 조단백함량이 강냉이속보다 7배나 높아 강냉이 속으로 키울 때 넣는 쌀겨, 활성감탕, 집짐승배설물을 첨가제로 넣어야 하지만 콩짚은 이런 첨가제가 전혀 필요없으며, 강냉이속 1톤에 버섯 700~800kg이 생산되었으나, 콩짚의 경우 콩짚 1톤 당 버섯 1톤이 생산되었음.
- 콩짚버섯은 맛도 좋고 영양가가 높으며 모양도 고음. 가정세대들에서 버섯블록을 부엌 세면장 같은데 놓아두고 버섯이 돌아나고 20~30일 지나서부터 2, 3차례 걸쳐 수확할 수 있음.
- 1개의 블록에서 보통 7kg이상의 버섯이 생산되며, 군안의 많은 세대에서 1개의 블록에서 3차에 걸쳐 10kg의 버섯을 수확하였다고 함. 따라서 봄과 가을 2차에 걸쳐 콩짚버섯종균을 많이 생산하여 군안의 130여개 단위에도 공급하고 있음.

○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버섯을 더 많이(민주조선 11.5)

- 김정일은 “버섯은 온도와 습도를 잘 보장하고 공기갈이를 잘해주면 되기 때문에 어디서나 쉽게 재배할 수 있다.”라고 말함.
- 북창군 인민위원회에서 인민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버섯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최근 버섯을 소규모로 생산하던 지난 시기의 낡은 방법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버섯생산을 훨씬 더 늘릴 수 있게 버섯공장의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공사를 적극 내밀어 짧은 기간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기존 성과에 기초하여 위원회에서는 강냉이속을 비롯한 버섯재배에 필요한 많은 물자를 위원회가 맡아 제때에 풀어주고 있음. 또한 해당부문과 연계하여 버섯기르

기의 기본인 버섯종균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공장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여 자체의 힘으로 종균을 배양하고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군안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발동하여 일터와 가정에서도 버섯을 쉽게 기를 수 있도록 버섯블록을 만들어낸 성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는 공장에서 버섯블록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군안의 여러 단위와 가정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9. 기타 보도 동향

□ 다음 해 농사차비를 위해 각지에서는 거름 생산에 큰 힘을 쏟고 있음. 가을걷이와 낱알털기 시기를 맞이하여 올해 알곡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농촌에 대한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평양시에서는 2012년까지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 사업이 시작되었음.

□ 비료

○ 인기가 큰 미생물비료(로동신문 12.1)

- 생물분원 실험생물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 만든 식물영양강화제(VAM균)가 농업, 과수업 분야에서 큰 효력을 나타내고 있음.
- 살아있는 식품뿌리에만 공생하는 이 균은 식물의 영양물질 흡수 및 빛 합성능력, 병 및 가물견딜성을 높여주는 미생물임.
- 10g이면 한 정보에 해당하는 종자를 처리할 수 있고 전 기간 뿌리에 붙어 자라면서 효과를 냄.
- 이 균은 높은 수확고를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식물의 발병률을 80%이상 막아줌.

○ 거름생산에 큰 힘을(민주조선 12.13)

- 김정일은 “논밭에 거름을 많이 내야 땅을 걸구고 지력을 높일 수 있으며 안전하게 높은 수확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함.
- 배천군 추정협동농장에서 다음해 농사차비를 실속있게 해나가고 있음. 특히 거름 생산에 큰 힘을 넣고 날마다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농장의 일꾼들은 농장의 거름원천을 모두 찾아내고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그 날 계획은 그 날로 어김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음.

- 불리한 날씨조건과 여러 가지 영농작업이 겹치는 속에서도 작업반에서는 농장원들의 드높은 열의가 그대로 실적으로 이어지는 노력과 운반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분조건 사회주의 경쟁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높이 세운 거름생산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음.

○ 실리있는 미생물비료(로동신문 12.15)

- 김정일은 “우리는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미생물비료와 유기질비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데로 방향전환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미생물학연구소 공훈과학자, 교수와 정경희박사는 불리한 날씨피해를 막고 정보당 알곡소출을 높일 수 있는 미생물비료를 개발하여 도입함.
- 새로 개발도입한 미생물비료는 거름을 비롯한 유기질비료와 함께 시비할 때에만 효과를 볼 수 있음. 미생물 액체비료를 심화연구하여 고체화하는데 성공함.
- 정보당 시비량을 종전보다 1/10로 줄이고 보관기일을 2~3일로부터 1년까지 늘렸으며 공업적 방법으로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음.
- 연구자는 고체비료를 황해남도 신원군, 평안남도 안주시와 순천시, 함경북도의 여러 시, 군에 도입함. 지난해와 올해 함경북도의 여러 단위에 도입한 과정에서 이 미생물비료를 시비한 논밭에서는 소출이 1.5~2 톤까지 증수되었음.
- 해당 고체비료는 뿌리를 활성화시켜 불리한 기상학적 피해를 막으며 강냉이에서 빛합성을 강화하고 난용성토양린을 린비료로 쓸 수 있게 작용함. 또한 부침땅에서 분자태질소를 고정하여 탈질을 막으며 질소비료의 이용률을 높이고 환원피해가 있는 뿌리썩음병을 막는 작용을 함.

○ 거름효과를 5배 이상으로(민주조선 1.9)

- 김정일은 “우리는 복합미생물비료를 과학기술적 이치에 맞게 생산하여 농사지어야 한다.”라고 말함.
- 최근 선천군안의 협동농장에 도입되고 있는 거름생산방법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새 방법으로 생산되는 거름의 효과가 종전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것이 이미 실천을 통하여 입증되었음.
- 새로운 거름생산방법은 공정이 간단할 뿐 아니라 어디에서나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농장원들의 호평을 받음. 배양한 젖산균을 일반거름에 친 다음 열흘정

도 발효시킨 후, 이렇게 얻어진 생물활성퇴비에 약간의 화학비료를 첨가하면 그 효능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함.

- 새로 생산한 거름은 일반거름에 비해 거름효과가 5배 이상이나 높음. 이것은 2년 동안 이 방법으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논밭에 내어 성과를 이룩한 이곳 군의 석화협동농장의 경험이 잘 보여주고 있음.
- 새로운 거름생산방법을 도입하니 거름의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 드는 노력과 기름도 훨씬 절약되고 있음.

○ 흙보산비료생산에 힘을 넣어(민주조선 1.10)

- 김정일은 “농사준비를 잘하는 것은 알곡생산을 늘리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라고 말함.
- 연탄군에서는 올해에 지난해보다 더 많은 흙보산비료를 생산하여 논밭에 낼 목표를 내걸고 협동농장들에서는 흙보산비료생산기지의 운영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새해농사차비에서 논밭의 지력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고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음.

○ 주공전선에 나래치는 공격전의 기상(민주조선 1.14)

- 김정일은 “농사를 잘 지어야 인민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으며,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함.
- 종합된 자료에 따르면 새해에 들어와 첫 5일 동안 전국적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04%에 달하는 거름을 생산하는 성과가 이룩되었음.
- 사회주의 조선의 땅답게 변모된 드넓은 규격포전을 더욱 더 기름진 옥토로 가꾸어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알곡증산성적으로 빛낼 불타는 열의에 넘친 평안북도 태천군안의 농업근로자들이 모든 힘을 거름생산에 집중하고 있음.
- 평안남도, 함경남도, 강원도를 비롯한 다른 도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들도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경사로운 10월의 대축전장에 떼땀이 들어서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음.

□ 농촌지원

○ 농촌을 힘있게 지원(로동신문 1.3)

- 김정일은 “농업혁명을 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적 보장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평양시 안의 기관, 기업소일군과 당원, 근로자들이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당 창건 65돌을 뜻깊게 맞이할 불타는 열의를 안고 농사차비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지원함.
- 시당위원회의 지도아래 시인민위원회에서는 올해의 첫 농촌지원사업을 통이 크게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시 주변 농촌에 내려간 시의 책임일군과 시인민위원회의 해당 부서일군들은 올해 농사차비에 필요한 지원물자를 성의껏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도록 떠밀어주고 지원물자수송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풀어주면서 농촌지원사업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음.
- 평양시안의 기관, 기업소와 동, 인민반의 당원과 근로자들은 모두가 떨쳐나 짧은 기간에 농사차비에 필요한 많은 양의 거름을 마련함.

○ 농촌지원사업을 힘있게(로동신문 1.7)

- 김정일은 “감자농사에서 량강도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함.
- 도당위원회에서는 도급기관과 공장, 기업소에서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도당위원회의 지도아래 도인민위원회에서는 새해정초부터 감자산지를 노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질 좋은 거름을 감자산지에 제때 실어보내기 위한 수송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수행하고 있음.
- 농촌지원사업에는 도농촌경리위원회, 도농근맹위원회, 중앙은행 량강도지점, 백두산들쭉가공공장, 혜산기초식품공장이 앞장서고 있음.
- 혜산시에서는 거름을 제때에 실어나르기 위한 노력 조직, 수송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고 자동차에 거름을 실어 주변 농촌에 보내고 있음.

○ 많은 도시거름과 소농기구를 농촌에 보내주었다(민주조선 1.7)

- 김정일은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를 원만히 푸는 것이다.”라고 말함.
- 북창군 인민위원회에서 농촌을 물질적으로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잘 조직 진행하여 성과를 이룩하고 있음. 자료에 따르면 군안의 기관, 기업소에서 새해에 들어 2일 동안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8배나 많은 2만 7천 톤의 질 좋은 도시거름을 생산하여 군안의 협동농장에 보냄.
- 연산군 인민위원회에서는 한 주 동안 6,700 톤의 도시거름을 생산하여 군안의 협동농장에 보내주는 성과를 이룩함. 위원회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도시거름을 생산하여 군안의 협동농장에 보내주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있음.
- 태천군 인민위원회에서는 새해 들어 3일 동안 5,000여 톤의 도시거름과 수만 점의 소농기구를 마련하여 군안의 협동농장에 보냄. 군당위원회의 지도아래 인민위원회에서는 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분위기조성사업을 벌여 군안의 모든 단위와 근로자들이 이 사업에 모두 동참함.

○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적극 지원(로동신문 1.14)

- 김정일은 “농업혁명을 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적 보장 사업을 잘 해야 한다.”라고 말함.
- 평양시에서는 새해농사차비에 떨쳐나선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추진함.
- 당 조직의 지도아래 대동강과수종합농장으로 내려간 시인민위원회의 해당 부서일 군들은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구역, 군과 기관, 기업소에서 농장에 보내줄 질 좋은 거름을 마련하도록 함.
- 이번에 진행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대한 지원사업에서는 동대원구역, 대동강구역, 락량구역, 형제산구역, 사동구역 안의 기관, 기업소와 동, 인민반원들이 모범을 보임.
- 시피복공업관리국, 대동강건설관리국, 대동강축전지공장, 경련애국사이다공장을 비롯한 시급기관, 기업소, 공장에서도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많은 거름을 보냄.

- 1월 13일 평양시에서는 2,000여 톤의 질 좋은 거름을 수백 대의 화물차에 실어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보내주었음.

□ 살림집

○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건설(민주조선 11.4)

- 김정일은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하려고 사회주의조국의 위용을 과시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건설해야 한다.”라고 말함.
-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와 수도건설부,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과 건설자, 돌격대원들이 ‘평양번영기’의 개척자들처럼 건설에서 날마다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10만 세대 살림집건설은 김일성의 100돌이 되는 2012년까지 평양시를 주체조선의 수도로 더욱 훌륭히 꾸리며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화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임.
-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건설의 첫 단계에서는 도로와 하부구조건설을 앞세우면서 락랑구역과 형제산구역 등 수도의 일부지역에 수만 세대의 다층 및 고층 살림집들을 일떠세우게 됨.
- 평양도시계획설계연구소와 평양측량지질설계연구소의 일군과 설계자가 건설의 첫 공정인 설계에서부터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움.
- 수도건설부와 기계공업성, 문화성, 출판지도국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 건설연대의 건설자와 돌격대원들은 기초굴착공사를 이미 끝내고, 기초콘크리트치기에 진입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기초굴착 및 콘크리트치기 성과 확대(로동신문 11.16)

- 김정일은 “기본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건설의 속도와 질, 투자의 효과성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며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에서 제기되는 방대한 건설과제들을 제때에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하당-서포지구 살림집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은 공사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 기간에 맡은 살림집 건설구획의 중심도로형성을 위한 공사와 살림집들의 기초굴착공사를 전부 끝냈으며 수도건설부와 성, 중앙기관 돌격대

를 비롯한 여러 시공단위들이 살림집 건물의 기초콘크리트치기에 들어가 성과를 확대하고 있음.

- 하당-서포지구 살림집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이 건설계획의 방대한 중심도로 형성을 위한 공사와 살림집들의 아름다운 기초굴착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집단적 혁신을 일으킨데 이어 공사실적을 계속 높이고 있음.
- 여러 시공단위들에서는 고층 살림집공사에 필요한 굴착기와 룬전기재, 콘크리트혼합기들을 현장에 배치하고 그 가동률을 부단히 높여가고 있음.

○ 서산동에 800여 세대의 살림집을(민주조선 11.26)

- 김정일은 “살림집을 많이 건설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문화적이고 안정된 생활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말함.
- 강계시 인민위원회에서 인민들에게 보다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려는 김정일의 뜻을 받들어 강계시서산동에 800여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음.
- 시인민위원회에서는 시당위원회의 지도아래 높이 세운 살림집건설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끝내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체계적으로 벌여나가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수십 차례의 협의회를 열고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기동적으로 세워나가고 있음. 이미 위원회일군들은 공사에 필요한 수천 톤의 시멘트와 수십 톤의 강재, 많은 양의 연유를 해결하여 건설장에 보냄.

○ 10만 세대 살림집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을 적극 원호(민주조선 11.28)

- 평양시 녀맹위원회와 시안의 각급 녀맹위원회에서 10만 세대 살림집건설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주고 있음.
- 시녀맹위원회의 일군들은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도와주는데서 자신들이 응당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에서 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에 대한 원호사업에 한사람같이 참가하고 있음. 이들은 생활필수품과 노동보호물자, 기초식품 건설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 기간동안 이미 여러 차례 보내주었음.

○ 시작부터 기세좋게(민주조선 12.6)

- 김정일은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려하고 사회주의 조국의 위용을 과시

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건설해야 한다.”라고 말함.

-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건설에 임하는 룡성지구건설장의 건설자들이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첫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 있음.
-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건설 룡성지구분지휘부에서 살림집과 편의봉사망을 비롯한 모든 공사대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울 높은 전투목표를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휘부에서는 시공단위에서 살림집 기초굴착과 기초콘크리트치기작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투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하고 있음. 노력, 설비, 자재 보장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음.

○살림집기초공사 본격적으로 추진(로동신문 12.9)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에 투입된 여러 단위의 일군과 건설자들은 1단계 살림집건설을 위한 기초굴착공사를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하당-서포지구에 전개된 여러 부대의 지휘관과 군인건설자들은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수십 동의 살림집기초굴착공사와 기본도로공사를 전부 끝내는 혁신을 창조함.
-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건설장에 나온 수도건설부와 성, 중앙기관의 시공단위도 필요한 건설설비와 자재를 자체로 마련하면서 기초굴착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는 성과를 이룩함.
- 겨울철 조건에 맞게 건설물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공대책을 면밀히 세우며 맡은 공사를 힘있게 추진하는 여러 단위의 건설자들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수도의 곳곳에 살림집 골조들이 세워질 것임.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 새집들이경사(로동신문 12.11)

- 10일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새로 건설된 마을에서 온 나라의 축복 속에 새집들이가 진행됨.
- 넓은 살림방과 부엌, 세면장, 창고, 짐짐승우리 등이 꾸려져 있는 1동 1세대, 1동 2세대의 살림집에는 메탄가스저장탱크와 함께 텃밭도 있고, 밭에는 새 집에 들게 될 인민을 위해 군인건설자들이 심고 가꾼 겨울용납새도 있음.

- 인민보안성 일군과 군인건설자들은 단 몇 달 동안 500여 동의 문화주택과 함께 탁아소, 유치원, 학교, 진료소, 문화회관을 비롯한 건축물을 일떠세웠을 뿐 아니라 주변환경정리를 비롯한 국토관리사업도 동시에 벌여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인민의 낙원으로 전변시키는데 크게 기여함.
 - 새집을 얻은 일군과 근로자들은 과일생산에서 전국의 본보기가 됨으로써 당의 크나큰 은정에 보답하고 부강조국을 건설하는데 적극 기여할 결의를 굳게 다짐.
- 290여 세대의 살림집 건설, 새집들이 진행(민주조선 12.13)
- 김정일은 “살림집을 많이 건설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문화적이고 안정된 생활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말함.
 - 시중군에서 290여 세대에 달하는 살림집에 대한 새집들이가 진행됨. 군안의 여러 지역에 건설된 살림집은 여러모로 손색없이 훌륭하게 꾸려짐. 2개의 살림방과 부엌, 세면장, 전실, 창고, 위생실 등이 갖추어진 살림집들은 군의 면모를 보다 이채롭게 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군당위원회의 지도아래 능력 있는 일군들로 강력한 건설지휘역량을 편성하고 조직사업을 추진함. 먼저 군안의 기관, 기업소의 역량과 능력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세밀히 계산하여 살림집건설과제를 명확히 주고 경쟁적으로 진행하도록 함.
 - 지금 군에서는 100일전투를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 남은 1동의 살림집건설에 대한 내부공사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진행하고 있음.
- 다층살림집 및 공공건물 개선보수공사 적극 추진(민주조선 12.19)
- 김정일은 “살림집과 공공건물보수를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함.
 - 해주시에서는 짧은 기간에 100여동의 다층살림집과 공공건물, 울타리에 대한 개선보수와 구획정리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다그쳐 끝낼 목표를 세움.
 - 리승천, 김철을 비롯한 위원회 일군들은 현실적 조건을 잘 타산하여 단계별 공사계획을 면밀히 세운데 기초하여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면서 공사를 일정대로 내밀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계획함.
 - 공사는 먼저 해청동과 해운동, 영광동지구로 나뉘어 진행하고, 10여동의 다층살림집과 여러 동의 공공건물, 근 1만 m²의 면적에 대한 외벽구조변경과 무늬장식 등

시대의 요구와 현대적 미감에 맞게 개건보수를 진행함.

- 시개건보수돌격대, 시주택보수사업소, 시공공건물보수사업소 등 시 안의 능력있는 일군과 건설역량이 동원되고 동, 인민반 세대들의 적극적인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온정 속에 펼쳐진 새집들이 풍경(민주조선 12.20)

- 김정일은 “우리 인민은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에 의하여 현대적인 살림집을 무상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집세라는 말조차 모르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함.
- 수도 평양시에 선군시대의 본보기로 세워진 만수대거리에서 새집들이가 진행된 모퉁강기슭의 화려한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며 특색있게 건설된 만수대거리의 현대적인 다층, 고층 살림집들이 생활에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해줄 수 있게 되어 있음.
- 평양시만이 아닌 각 도와 시, 군들에서도 새집들이 풍경이 펼쳐짐. 최근 라선시 60여 세대, 함흥시 150여 세대의 살림집들이 새로 건설되어 새집들이가 진행되었고, 회령시와 박천군을 비롯한 각지 시, 군들에서 새집들이가 진행되었음.

○ 새로운 ‘평양속도’창조의 불길높이(민주조선 12.22)

- 공사지휘부에 종합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반적인 기초굴착공사는 마감단계에 들어섰으며 많은 시공단위에서 말은 살림집기초굴착공사를 완전히 끝내고 기초콘크리트치기공사에 진입하여 성과를 확대하고 있음.
- 하당-서포지구 살림집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은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불리한 자연지리적 조건과 애로, 난관을 과감히 뚫고 나가면서 첫 시작부터 기세를 올려 공사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 기간에 살림집 건설구획의 도로형성과 기초굴착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올림.
- 수도건설부 아래 공장, 기업소와 성, 중앙기관건설연대에서는 100일 전투기간에 진행할 공사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날 과제는 그날로 무조건 수행하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음.

○ 기초 콘크리트치기를 본격적으로(민주조선 12.30)

-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 인민보안성 건설려단의 일군과 군인건설자들이 살림집건설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수천 m³의 암반과 토량을 처리해낸 이들은 요즘 기초콘크리트치기를 힘있게 벌이고 있음.

- 려단지휘부에서는 살림집 건설 시공공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도로공사와 기초굴착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면서 그 수행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휘부 일군들은 건설현장에 나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면서 건설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도를 찾는 한편 자재보장과 수송조직을 빈틈없이 하고 연대, 대, 소대별로 그날 계획은 그 날 무조건 끝내도록 하고 있음.
- 2연대 군인건설자들은 높은 혁명적 열정과 불굴의 투지로 암반이 나오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함마전을 들이대어 기초굴착공사를 계획보다 10일간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거둠.

□ 식료공장

○ 종합적인 식료공장들 훌륭히 완공(로동신문 12.6)

- 김정일은 “모든 도에서는 종합적인 식료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현 시기 경공업혁명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의 하나로 틀어쥐고 힘있게 내밀어 삼일포특산물공장에서 피어난 불꽃이 온 나라에 거세찬 봉화로 타오르게 한다.”라고 말함.
- 전국의 모든 도에서는 착공의 첫 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반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생산기술공정을 훌륭히 꾸리고 시운전을 진행한 후 일제히 시제품생산에 들어갔음.
- 김정일은 지난 4월 삼일포특산물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나라의 식료가공공업에서 혁명을 일으킬 원대한 구상을 제시함. 삼일포특산물공장처럼 공장을 실리있게 꾸리고 경영활동을 한다면 자체 원료자재만으로 식료품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함.
- 지난 5월 착공하기 시작한 각 도에서는 공사를 계획적으로 내밀어 150일 전투기간 건축공사에 진입함. 도당위원회의 지도아래 각 도의 일군들은 공사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면서 시작부터 도별로 승벽내기를 하며 사회주의 경쟁을 통한 공사를 진행함.
- 평양시와 함경남도, 황해북도와 평안남도, 강원도를 비롯한 도에서는 이미 지난 10월 초 건축공사와 설비조립을 끝내고, 먼저 시운전을 진행함. 자강도, 함경북도, 량강도, 평안북도, 황해남도를 비롯한 각 도에서는 당의 요구대로 지방의 원료원천에

근거하여 지방의 특색있는 식료가공품의 지표를 늘리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과 합리적인 방법들이 널리 도입되고 있음.

○ 날로 늘어나는 강성대국의 재부들(민주조선 12.30)

- 함경남도 백운산종합식료공장이 완공됨. 공장이 건설됨으로써 여러 가지 질 좋은 식료품들이 생산되어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었음. 얼마 전 새로 건설된 생산 공정에 대한 시운전이 진행됨.
-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황해남도에서 수양산종합식료공장이 완공됨. 공장 완공으로 농토산물과 수산물로 특색있는 식료품을 생산하여 인민의 식생활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었음.
-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이 새로 완공됨. 공장건설이 완공됨으로써 갖가지 당과류와 산 열매차를 비롯한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 강원도의 특산물이 많이 생산되어 인민 식생활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됨.

○ 갖가지 맛있는 당과류 생산에 박차를(민주조선 1.7)

- 평양곡산공장의 일군과 노동자들은 김정일의 현지말씀과 올해공동시설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 일어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사탕, 과자를 비롯한 맛있는 식료품을 더 많이, 더 질 좋게 생산하여 수도시민에게 보내줄 일념을 안은 이곳 일군과 노동자들은 새해에 들어와 증산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음.
- 공장참모부에서는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위한 투쟁과 생산이 동시에 벌어지는데 맞게 역량편성을 바로하고 당과류생산의 여러 공정에 대한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공정간 연계를 밀접히 하도록 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맛있는 식료품을 더 많이(민주조선 1.15)

- 김정일은 “식료가공업을 발전시켜 맛있고 영양가 높은 여러 가지 식료가공품들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만포식료공장에서는 당 창건 65돌을 맞은 뜻 깊은 올해 식료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짜고 들었음.
- 공장에서는 원료, 자재확보사업에 선차적 관심을 돌림과 동시에,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통해 모든 생산설비의 만가동을 원만히 보장하는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음.

- 이들은 맛있는 간장, 된장을 생산하기 위하여 숙성과 발효를 비롯한 모든 생산공정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음. 또한 콩우유작업반에서는 콩불리기와 갈기를 비롯한 생산의 여러 공정들마다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생산에 힘 쏟고 있음.

○ 청봉종합식료공장 조업(민주조선 1.17)

- 청봉종합식료공장이 완공되어 조업하였으며, 14일 조업식을 진행함.
- 조업식에는 김히택 량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철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 건설자들과 혜산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함.
- 김히택 책임비서가 조업사를 하였음. 연설자는 공장일군과 종업원들이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여 식료품생산을 늘리고 그 질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농기계

○ 높은 목표를 세우고(로동신문 11.13)

- 김정일은 “농촌에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를 더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며 부속품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함.
- 강계트랙터부속품공장의 일군과 노동자들은 사회주의농촌에 보내 줄 연간 트랙터 부속품 생산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기세로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음.
- 공장의 일군들은 자체의 힘으로 선반과 공기함마, 절단기를 비롯한 많은 설비를 개건하고 파주철과 선철을 비롯한 원료, 자재들을 해결하여 생산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음.
- 선행공정을 맡은 주물작업반에서는 저주파유도로를 개조하여 생산능률을 높이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소재들을 제때에 생산 보장하였음.
- 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공장의 일군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생산자의 혁명적 열의를 북돋아 주고 있음.

○ 부속품생산에서 혁신(민주조선 11.26)

- 김정일은 “농촌에서 현대적인 여러 가지 농기계를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는 것과

함께 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원산트랙터부속품공장의 일군과 노동자들이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여 사회주의 농촌에 많은 트랙터부속품을 보내주고 있음.
- 공장에서는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를 기술혁신에서 찾고 여기에 큰 힘을 넣고 있음. 주물공정을 기술적으로 개조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합리화안을 생산에 받아들임으로써 생산성과 제품의 질을 훨씬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이와 함께 공장에서는 균중적 운동으로 많은 양의 파철을 모아 생산에 이용하는 등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음.
- 생산의 선행공정을 맡은 주물, 단조작업반도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가공을 담당한 단위들에서도 공정간 맞물림을 책임적으로 하면서 생산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음.

○ 더 많은 부속품을(민주조선 11.27)

- 김정일은 “농기계와 농업생산설비의 이용률과 가동률을 높이자면 그에 대한 수리정비사업도 잘해야 한다.”라고 말함.
- 작업소 일군들은 자재보장을 비롯한 부속품생산을 위한 조건보장을 확고히 앞세우는 한편 기술자들을 적극 내세워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음.
- 문덕군 농기계작업소에서는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의 수리정비에 필요한 부속품생산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음. 부속품가공을 맡은 작업반의 종업원들도 가공설비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다루면서 부속품생산을 부쩍 높이고 있음.

○ 집단적 혁신의 불길높이(민주조선 12.13)

- 김정일은 “농촌에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를 많이 보내주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함.
- 금성트랙터공장의 일군들은 10일 전투로 들끓는 생산현장에 나가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여 대중을 생산적 양양으로 불러일으키고 있음.
- 공장참모부에서는 100일 전투 목표수행을 위한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일군들은 소재생산부문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기관본체, 변속함, 조향함을 비롯한 합류소재생산을 확고히 앞세우도록 하고 있음.

- 소재부문 노동자들은 기관머리부와 기관본체, 축반치개소재를 비롯한 소재생산을 다그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생산의 앞공정을 맡은 주물직장의 일군과 노동자들은 주물자동선의 가동률을 높여 매일 많은 양의 기관부속품을 생산하고 있음.
- 단조직장의 일군과 노동자들은 단조가열로와 공기망치를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서로 도와 매일 맡겨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고 있음.
- 이외 제관직장, 가공부문 일군과 노동자들도 김정일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능률 높은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를 더 많이 생산할 열의 드높이 100일 전투 승리를 위한 힘찬 돌격전을 벌여나가고 있음.

□ 쉼기대회

○ 태천군 은홍협동농장 쉼기모임 진행(로동신문 11.8)

-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태천군 은홍협동농장 농장원들의 쉼기모임이 6일 진행되었음.
- 모임에는 김평해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관리위원장 허정옥, 작업반장 리영훈, 부락당비서 김광철, 분조장 백운철이 토론하였음.
-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김정일이 농장에서 생산한 농작물들을 보아주시며 올해 영농사업진행 상황을 이해하고 모든 농사를 알심있게 짓고 두벌농사를 잘하여 풍요로운 가을을 마련한데 대해 대만족을 표시하였다고 전함.
- 그들은 김정일이 강성대국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업생산을 늘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농업부문 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한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그들은 농업혁명방침을 지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과 품종배치를 하고 비배관리를 잘할 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또한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고 흙갈이를 힘있게 하여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여 두벌농사를 잘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함경남도 근로자들 쉼기모임 진행(민주조선 11.24)

- 김정일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함경남도 근로자들의 쉼기모임이 22일 함경광

장에서 진행되었음. 도의 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 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음.

- 김정일이 금진강구창청년발전소의 건설정형과 기술장비 상태, 전력생산실태를 파악하고 발전소관리운영과 전력생산에서 나오는 과업을 명시한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홍남비료련합기업소의 노동계급과 건설자들이 무비의 헌신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가스화공중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상설비를 담당한 기업소와 연관단위들과의 긴밀한 연계아래 공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함경남도 근로자들 쫓기모임 진행(민주조선 11.25, 로동신문 11.27)

- 김정일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모임이 20일부터 22일까지 함경남도의 여러 단위에서 진행되었음. 모임에는 태종수 함경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관계부문 일군, 종업원, 건설자, 농장원들이 참가함.
-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농장원쫓기모임에서는 태종수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기사장 정명철, 작업반장 한정룡, 농장원 리명옥이 토론함. 그들은 농장이 동해안농사의 본보기단위답게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과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나갈 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당의 종자혁명방침의 요구대로 농장의 기후풍토에 맞는 우량 품종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으며 농기계 이용률을 높일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홍남비료련합기업소 종업원과 건설자 쫓기모임에서는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태문의 보고에 이어 부지배인 리용학, 설비조립련합기업소 기사장 박성일, 단천광업건설기업소 기사장 리운종이 토론함. 이들은 가스화공정시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비료생산을 늘리는데 더욱 힘을 쏟을 것을 강조함.

○ 평안북도 내 여러 단위에서 쫓기모임 진행(민주조선, 로동신문 12.2)

-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쫓기모임이 11월 30일 평안북도 내 여러 단위에서 진행되었음.
- 량책베어링공장 종업원쫓기모임에서는 공장노동계급이 자력으로 기술개조한 기계설비와 높은 정밀도가 보장된 여러 가지 제품을 보고 앞으로 질 좋은 각종 베어링을 더 많이 생산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한데 대하여 언급함.

- 신의주신발공장 종업원궐기모임에서는 기술개진된 생산공정과 갖가지 신발을 보아주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는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고 공장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다고 강조함.
 - 신의주초물생산협동조합 종업원궐기모임에서는 조합에서 맵시있고 쓸모있는 갖가지 초물제품을 만들어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고 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해주었다고 긍지에 넘쳐 말하였음.
 - 신의주닭공장 종업원궐기모임에서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지니고 생산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공장종업원들의 노력을 따듯이 격려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함.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량품종을 받아들이고 먹이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함.
-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에서 궐기모임 진행(로동신문 12.5, 민주조선 12.6)
- 김정일의 선물을 전달하며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농장궐기모임이 4일 진행되었음.
 - 모임에는 김락희 황해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최용남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과 농장원들이 참석함.
 - 지난 날 낙후되고 빈궁하던 오국리가 소문난 곡창지대로 전변한 후 수십 년간 쌀로써 당을 들어온 애국전통을 대를 이어 고수해 나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데 대하여 언급함.
 - 현지말씀을 농장사업과 나라의 농업발전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으로 삼고 기후풍토에 맞는 우량품종과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알곡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함.
 - 모든 농장원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공민의 본분을 지켜 모든 일을 알뜰하고 간지게 하며 일군들은 인민군대 지휘관처럼 이신작척하고 선동사업을 화선식으로 벌여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함으로써 높이 세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함.
- 강계시에서 궐기모임 진행(로동신문 12.18)
- 16일 강계시에서 김정일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궐기모임이 진행되었음. 박도춘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최기룡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인남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강계시내 일군과 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함.

-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김정일이 제시한 질 좋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강조함. 강계시의 노동계급은 김정일의 현지말씀을 따라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말함.
 - 강계목장에서 종자와 먹이문제를 해결하고 사양관리를 과학화, 집약화하며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함으로써 젓가공품생산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평양곡산공장에서 쫄기모임 진행(로동신문 12.18)
- 17일 평양곡산공장에서 쫄기모임이 진행됨. 최영립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박관오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과 공장의 일군과 종업원들이 참가함.
 -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김정일이 여러 직장을 둘러보고 개건보수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이해한 후 공장을 현대화, 과학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관리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제시한데 대하여 언급함.
 - 그들은 수도시민들의 식생활향상에서 지닌 공장의 사명과 임무를 명심하고 설비들을 CNC화함으로써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할 데 대하여 말함.
 -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신적인 안목을 지니고 모든 일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설계하고 완강히 밀고나가며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주인다운 입장에서 공장의 현대화를 적극 도와줄데 대하여 언급함.
- 농업근로자들의 쫄기모임 진행, 사회주의경쟁 호소(민주조선 1.12)
- 올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농업근로자들의 쫄기모임이 9일 강서구역 청산리에서 진행되었음.
 - 모임에서는 농근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한경송의 보고에 이어 강서구역 농근맹위원장 하용남, 청산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윤춘화, 만경대구역 만경대농장 분조장 문명학이 토론함.
 -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농업근로자들이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를 벌릴데 대한 김정일의 뜻을 구현하고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할 데 대하여 언급함.
 - 농사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당면한 질 좋은 거름을 많이 생산하고 영농자재 확보와 농기계수리정비 등 농사차비에 힘을 넣을데 대하여 언급함. 이어 축산물과 남새, 과일, 공예작물 등의 생산과제를 원만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 로동계급과 직맹원들, 농업근로자들의 쫄기모임 진행, 사회주의경쟁 호소(로동신문 1.12)

- 올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쫄기모임이 8일 당창건기념탑광장에서 진행됨. 모임에는 김병팔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직맹위원장 주춘섭, 평양방직공장 노동자 김순영, 강남요업공장 초급직맹위원장 김일남이 토론함.
-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공업과 농업을 인민생활을 위한 투쟁에서 주공전선으로 틀어쥐고 인민소비품과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사업에 적극 떨쳐나설데 대하여 강조함.
- 올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농업근로자들의 쫄기모임이 9일 강서구역 청산리에서 진행됨.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중린과 관계부문 일군들, 남포시내 농근맹일군들, 농업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함.
-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할 데 대한 새해공동사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농업근로자들을 새로운 위훈장조어로 추동하는 당과 조국의 부름이고 시대와 인민의 요구라고 말함.
- 그들은 농장에서는 다수확품종을 심고 매 영농공정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를 지키며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받아들여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함.

○ 로동계급과 직맹원들, 녀맹원들의 쫄기모임 진행(민주조선 1.13)

- 올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쫄기모임이 8일 당창건기념탑광장에서 진행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중린과 관계부문 일군,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모임에 참석함.
-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공업과 농업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주공전선으로 틀어쥐고 인민소비품과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사업에 적극 떨쳐나설데 대하여 강조함.
- 또한 인민경제의 기관차이며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한 관건적 고리인 금속, 전력, 석탄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 대고조진군속도를 최대로 높여 오늘의 총공세를 힘있게 떠밀어 나갈 데 대하여 언급함.

- 올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녀맹원들의 쫓기모임이 8일 개선문광장에서 진행됨.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중린과 관계부문 일군, 녀맹일군, 평양시내 녀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함.
-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받들고 사회주의농촌을 힘껏 도우며 4대선행부문을 계속 지원하는 것과 함께 회천발전소를 비롯한 중요대상 건설장에서 녀맹돌격대활동을 줄기차게 벌릴 데 대하여 말함.

○ 농장과 공장, 기업소에서 쫓기모임 진행(민주조선, 로동신문 1.16)

- 올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종업원의 편지에 호응하는 쫓기모임이 각지 농장과 축산, 과수, 양어, 농기계, 비료공업 부문 공장, 기업소에서 진행됨.
- 모임에서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종업원들이 전국의 근로자에게 보낸 편지가 낭독되고 이어 보고와 토론이 있었음.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농장원쫓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들고 농업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릴 데 대하여 언급함.
-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받들고 포전별 특성에 맞는 우량품종을 심으며 씨뿌리기와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 등 모든 영농작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한편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두벌농사를 실속있게 하여 앞뒤그루에서 옹근 소출을 낼 것이라고 강조함.

□ 현지지도

○ 만수대거리에 새로 건설 완공된 주택을 현지지도(로동신문, 민주조선 10.21)

-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부장 장성택, 박남기, 제1부 부장 주규창, 리제강, 리제일과 함께 만수대거리에 새로 건설 완공된 주택을 둘러보았음.
- 김정일은 만수대거리 전경도 앞에서 해설을 들은 다음 새로 세운 살림집을 비롯하여 거리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였음.
- 김정일은 수도건설부아래 당원과 근로자들, 청년돌격대원들을 비롯한 전체 건설자

들이 대규모의 거리와 맞먹는 방대한 만수대거리건설공사를 짧은 기간에 훌륭히 해제 깬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였음.

- 김정일은 만수대거리의 모든 살림집이 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만점짜리라 하며 이상적인 주택거리를 훌륭히 완공한 건설자들을 칭찬하였음.
- 김정일은 만수대거리를 돌아보고 현지에서 수도 평양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웅장하게 꾸려나가는 데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였음.

○ 9월26일종자돼지공장과 10월22일돼지공장을 현지지도(로동신문, 민주조선 10.23)

-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부장 장성택, 박남기, 제1부 부장 리제강, 리재일 조선인민군 대장 현철해, 리명수와 함께 돼지공장을 둘러보았음.
- 김정일은 먼저 9월26일종자돼지공장을 현지지도하였음. 4만 m²의 넓은 부지에 자리잡고 있는 종자돼지공장은 사료가공부터 먹이 및 물 공급, 돼지우리의 조명과 온습도조절 등 모든 공정들이 컴퓨터에 의해 움직이며 적은 노동력으로 많은 새끼돼지를 생산하는 실리 있는 기업소임.
- 김정일은 공장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며 건설정형과 관리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군인건설자들이 현대적인 종자돼지공장을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세운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였음.
- 김정일은 종합지령실과 사육호에 들러 여러 가지 종자돼지의 특성과 사양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공장의 종업원들이 사양관리를 과학화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우량 품종의 새끼돼지를 많이 받아 돼지공장에 보내주고 있는데 대해 매우 기뻐하였음.
- 김정일은 이어 새로 건설된 10월22일돼지공장을 현지지도함. 10월22일돼지공장은 고기생산과 가공은 물론 알사료생산공장, 유기질복합비료공장을 비롯한 모든 공정을 다 갖춘 종합적인 축산기지임.
- 김정일은 10월22일돼지공장이 건설의 질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었을 뿐 아니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 집약화가 훌륭히 실현된 만점짜리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또 하나의 재부를 후대들에 물려주게 된 데 대하여 기쁨을 나타내었음.
- 김정일은 알곡생산을 늘리기 위해선 축산을 발전시켜야 하고, 축산물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알곡소출도 높여야 하는 것은 어길 수 없는 법칙이라고 하면서 순환식고리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유기질복합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농업과 축산을 다 같이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김정일은 10월22일돼지공장이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장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였음.

○ 태천군 은홍협동농장 현지도(로동신문 11.7)

- 김정일은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김평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부장 박남기, 장성택과 함께 태천군 은홍협동농장을 둘러보았음.
- 김정일은 농장의 일군과 농장원, 기술자들이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 애국심을 안고 모든 농사를 알심있게 짓고 두벌농사를 잘하여 전례없는 대풍을 마련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였음.
- 김정일은 토지정리된 풍요한 협동정야와 산기슭마다 즐지어 늘어선 현대적인 문화주택들, 아담하고 깨끗하게 일떠선 문화회관, 학교, 인민병원 등 문화후생시설들을 보고 지난 날 불모의 땅으로, 사람 못살 고장으로 불리던 한드레벨이 풍년나락 행복의 낙원으로 전변된데 기쁨을 표시하였음.
- 김정일은 농장의 일군과 근로자들이 알곡생산을 계통적으로 늘리면서도 방대한 건설을 자력으로 훌륭히 해낸 것은 참으로 경탄할 만한 성과라고 칭하면서 많은 일을 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농장의 위훈을 표창하여 새로 만든 트랙터를 선물로 주었음.
- 김정일은 은홍협동농장이 앞으로도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선봉적 역할을 계속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음.

○ 홍남비료련합기업소의 가스화공정건설장 현지도(민주조선, 로동신문 11.7)

-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함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태종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부장 박남기, 장성택과 함께 홍남비료련합기업소 가스화공정건설장을 현지도하였음.
- 기업소 당원과 근로자, 건설자들은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수만 m²에 달하는 방대한 부지 안의 넓은 건물과 콘크리트구조물을 완전히 들어내고 기초굴착과 기초콘크리트치기를 끝낸데 이어 1단계 가스화대상에 대한 구조물건설과 설비조립을 다그치고 있음.
- 김정일은 넓은 건설장에 세워진 각종 구조물과 집체같이 들어선 대형설비를 보고 기업소의 노동계급과 건설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발휘하여 방대한 건설공사를 성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함.

- 김정일은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가스화공정은 비료생산을 늘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면서 건설공사를 앞당겨 끝내는데서 과업들을 제시하였음.
 - 김정일은 농업생산의 필수적 조건의 하나인 비료생산을 늘이기 위해서는 가스화대상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지에서 걸린 문제를 해결해주었음.
-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을 현지지도(민주조선, 로동신문 11.8)
- 김정일은 함주군당위원회 책임비서 배기복, 함주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김승남과 농장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는 가운데 동봉협동농장을 방문하였음.
 - 김정일은 농장의 일군과 농장원, 기술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졌다는 주인다운 자각을 안고 농사를 알차게 지어 전례없는 대풍을 마련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였음.
 - 김정일은 훌륭히 꾸려진 농기계보관창고와 감자종자저장고를 보고 모두가 사회주의 집단경리의 주인으로 자라난 그들의 알뜰하고 꼼꼼한 살림살이를 높이 평가하였음.
 - 김정일은 동봉협동농장의 전체 농장원은 지난기간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하여 투쟁하여 온 결과 사상정신영역에서는 물론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을 비롯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수행에서 전국의 앞장에 달리고 있다고 하면서, 농장의 위훈을 표창하여 새로 만든 트랙터를 선물함.
 - 김정일은 동봉협동농장이 앞으로도 동해안농사의 본보기농장답게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 역할을 계속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음.
- 조선인민군 제580군부대산하 7월18일소목장을 현지지도(민주조선, 로동신문 11.21)
- 김정일은 조선인민군 대장 현철해, 리명수를 비롯한 군대의 지휘성원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부장 박남기, 김경희, 장성택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580군부대산하 7월18일소목장을 현지지도하였음.
 - 김정일은 군부대 군인과 목장의 종업원들이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려는 애국의 일념을 안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 동원하여 자체의 힘으로 소목장을 훌륭히 꾸려놓고 고기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음.

- 김정일은 무리지어 흐르는 소떼들을 보고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얼마 안 되던 소가 오늘은 수십 배로 늘어나 꼴 안을 가득 채웠다고 하시면서 지칠 줄 모르는 투쟁으로 놀라운 전변을 안아온 목장종업원들의 수고를 거듭 치하하였음.
 - 김정일은 7월18일소목장은 전망성있는 소고기생산기지의 하나라고 하며 목장의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였음.
 - 김정일은 소의 배설물로 사료밭의 지력을 높여 알곡소출을 급격히 늘린 이 목장의 경험은 알곡생산과 축산은 뿔 수 없는 밀착관계에 있다는 점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순환식고리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유기질복합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농업과 축산을 다같이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김정일은 목장에서 앞으로 더 많은 소고기가 생산되는 조건과 가공대책도 미리부터 잘 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그를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었음.
 - 김정일은 목장의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안고 창조적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축산물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음.
-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현지지도(민주조선, 로동신문 11.27)
-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박남기, 장성택과 함께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였음.
 - 오국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따라 농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알곡 수확고를 계통적으로 늘렸으며 올해는 생산과제를 103%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둬.
 - 김정일은 농장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졌다는 주인된 자각을 안고 농사를 알심 있게 지어 올해 알곡생산을 계획에 넘쳐 수행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면서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였음.
 - 김정일은 서해곡창의 하나인 오국협동농장은 알곡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다고 하면서 농장 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였음.
 - 김정일은 기름진 협동전야와 양지바른 산기슭에 준비하게 늘어선 아담한 문화주택, 잘 세워진 문화후생시설과 공공건물을 바라보며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였음.

- 서울류경수제 105탱크사단 염소목장, 조선인민군 제1596군부대산하 목화농장 현지지도(로동신문 11.27, 민주조선 11.28)
-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 국방위원회 위원 겸 조선인민군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김정각,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영호와 함께 서울류경수제 105탱크사단 염소목장과 조선인민군 제1596군부대 산하 목화농장을 현지지도하였음.
 - 김정일은 105탱크사단 염소목장을 방문하여 잘 꾸러진 생산공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치즈, 버터, 요구르트를 비롯한 각종 젓가공제품을 보고 군인건설자들이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염소목장을 훌륭히 세운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였음.
 - 김정일은 군부대군인들의 식생활향상에서 목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목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였음.
 - 김정일은 목장의 전체 당원과 근로자들이 앞으로도 군인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고 생산에서 더 큰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군인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음.
 - 김정일은 조선인민군 제1596군부대산하 목화농장에 방문하여 활짝 핀 목화송이를 바라보며 농장의 일군과 근로자들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전례없는 목화풍작을 마련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였음.
 - 김정일은 농장의 당원과 근로자들이 나라에 더 많은 공업원료를 대주려는 일념을 안고 노력한 결과 생산을 체계적으로 늘렸으며 목화농사를 과학화하는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축적하였다고 그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함.
 - 김정일은 방직공업의 주원료인 목화생산을 늘이는 것은 입는 문제해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목화농사를 잘 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였음.
- 인민보안성에서 새로 건설한 대동강과수종합농장 현지지도(로동신문 11.30, 민주조선 12.1)
-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장성택, 박남기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함께 새로 건설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였음.
 - 김정일은 드넓은 전야에 규모있게 늘어선 과일나무와 과원을 가로세로 누비며 정연하게 뻗어간 도로를 비롯한 창조물을 보고 군인건설자들이 몇 개월 사이에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적인 대과일생산기지를 일떠세운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함.

- 김정일은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과수원 조성은 물론 땅의 지력을 무단히 높일 수 있는 유기질비료생산기지도 전망성있게 꾸리고 주변환경정리를 비롯한 국토관리 사업도 동시에 벌린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하면서 군인건설자들이 훗날에 가서도 손색없는 만년대계의 재부를 마련한데 대하여 높이 치하함.
 - 김정일은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우리 인민들에 대한 과일공급뿐 아니라 나라의 과수업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본보기농장으로 된다고 하면서 농장의 능력확장을 위한 다음단계의 전투목표를 제시하였음.
 - 김정일은 인민보안성과 산하 군인건설자, 농장의 전체 당원과 근로자들이 당이 준 전투명령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면서 농장의 수많은 운전기재와 문화기재를 선물로 줌.
 - 김정일은 과수업을 전망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과수농장들을 새로 건설하는 것과 함께 이미 있는 과수원들을 과학화, 집약화시대의 요구에 맞게 갱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오래되거나 생산성이 낮은 과일나무들을 교체하고 빈 그루를 보충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끈기 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지적함.
- 새로 건설된 석정돼지공장과 석정장아찌공장을 현지지도(로동신문 11.30, 민주조선 12.1)
-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장성택, 박남기와 함께 새로 건설된 석정돼지공장과 석정장아찌공장을 현지지도하였음.
 - 김정일은 건설자들이 1년 남짓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돼지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면서 조국의 번영을 위해 헌신한 그들의 공로를 높이 삼.
 - 김정일은 공장에서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고기생산을 급격히 늘리고 현대적인 가공설비를 이용하여 돼지고기와 부산물로 질 좋은 가공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기뻐하면서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그들의 수고를 치하함.
 - 김정일은 석정돼지공장은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장관리 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함.
 - 김정일은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높은 고기가공제품들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하여 가공시설을 만부하로 돌려 고기통조림은 물론 부위별 가공품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줌.

- 김정일은 석정장아찌공장에 들러 포장되어 나오는 장아찌를 보고 건설자들이 짧은 기간에 또 하나의 현대적인 식료가공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함.
 - 김정일은 석정장아찌공장은 식료공장의 특성에 맞게 시공도 잘되고 위생문화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 뿐 아니라 작은 생산면적과 적은 노동력으로 국내원료에 철저히 의거하여 특색있는 식료품을 많이 생산하는 실리있는 공장이라고 하면서 건설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함.
- 새로 건설된 강계목장을 현지도(민주조선 12.10)
-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자강도위원회 책임비서 박도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장성택, 박남기와 함께 새로 건설된 강계목장을 현지도하였음.
 - 김정일은 “산판마다 펼쳐진 분장과 양지바른 산기슭에 세워진 문화주택과 생산건물, 문화후생시설로 하여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목장의 모습을 바라보고 1년 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시 자체의 힘으로 이처럼 훌륭한 목장을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함.
 - 김정일은 자강도 당위원회를 비롯한 도와 강계시의 당 및 근로단체조직과 행정경제기관, 당원과 근로자들, 목장의 종업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축산물생산의 비약적인 발전을 확고히 담보하는 현대적인 목장을 건설하였다고 하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함.
 - 김정일은 강계시에 돼지공장, 닭공장, 오리공장 등 능력이 큰 축산기지들이 일떠선데 이어 종합적인 목장까지 건설된 결과 시민들의 식생활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근로자들의 수고를 거듭 치하함.
 - 김정일은 강계목장은 강계시민들의 식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다고 하면서 목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함.
- 평양곡산공장을 현지도(로동신문 12.12)
-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평양시위원회 책임비서 최영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경희, 박남기, 장성택, 내각부총리 박명선과 함께 평양곡산공장을 현지도하였음.
 - 김정일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평양곡산공장은 수도시민들의 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면서 지난 기간 공장이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함.

- 김정일은 지금 자강도, 평안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공장과 기업소에서 CNC화를 실현하여 첨단기술로써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평양곡산공장의 현대화를 최단기간 내에 끝낼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함.
- 김정일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원료보장대책도 면밀히 세우야 한다고 하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제시함.

○ 라선대흥무역회사 현지지도(민주조선, 로동신문 12.17)

-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함경북도위원회 책임비서 홍석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경희, 박남기, 장성택과 함께 라선대흥무역회사를 현지지도하였음.
- 라선대흥무역회사는 수산물가공품과 농토산물가공품을 위주로 하는 여러 가지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소임.
- 김정일은 기업소에서 수산물, 농토산물의 가공능력을 높여 수출품생산을 계통적으로 늘렸을 뿐 아니라 훌륭한 위생문화적 환경을 마련한데 대해 기뻐하면서 그들의 수고를 치하함.
- 김정일은 기업소에서 현대적인 축양장을 건설하고 바닷가에 수백 정보의 양식장을 꾸려 조개류를 비롯한 각종 고급해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대해 대단히 만족해하면서 그들의 자력갱생 혁명정신을 높이 평가함.
- 김정일은 라선대흥무역회사를 돌아본 후 현지에서 나라의 대외무역을 더욱 발전시키는 지침의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함.
- 김정일은 이날 라선시를 돌아보면서 도시건설과 도시경영실태를 비롯한 시의 전반 사업을 이해함.
- 김정일은 라선시는 당의 귀중한 재보인 혁명전적지와 사적지들이 많고, 중요한 대외무역기지의 하나이므로 전망있게 잘 꾸리고 시의 상 및 행정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혀 줌.

○ 새로 건설한 돼지공장을 현지지도(민주조선, 로동신문 1.13)

- 김정일은 조선인민군 대장 현철해, 리명수와 함께 제313대련합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돼지공장을 현지지도하였음.

- 김정일은 부대에서 자력으로 현대적인 돼지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면서 병사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할 만년대계의 축산기지를 짧은 기간에 건설한 군인건설자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음.
 - 김정일은 돼지우리와 사료가공장, 고기가공장을 비롯한 여러 곳에 들러 기술장비와 사양관리 실태를 자세히 알아보고 공장의 종업원들이 과학적인 생산체계를 세워 많은 고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물을 모두 회수이용하여 질 좋은 각종 고기가공품을 만들어 군인들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만족해 하면서 그들의 수고를 치하함.
 - 김정일은 최신시설비로 장비된 돼지공장은 대련합부대 군인들의 식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위력한 후방기지의 하나라고 하면서 공장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함.
-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산하 10월7일돼지공장 현지지도(민주조선, 로동신문 1.16)
- 김정일은 조선인민군 대장 현철해, 리명수를 비롯한 군대의 지휘성원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경희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산하 10월7일돼지공장을 현지 지도하였음.
 - 김정일은 현대적설비들로 장비된 돼지공장의 우리마다 넘치는 살찐 돼지들과 가공장에 가득차 있는 가공품을 보고 공장의 일군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사양관리를 과학화하여 고기생산을 급격히 늘리고 현대적인 가공설비를 이용하여 부산물로 질 좋은 각종 가공품을 대량생산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였음.
 - 김정일은 공장의 종업원이 돼지기르기를 과학화, 집약화하고 사료기지를 튼튼히 꾸려 2년 사이에 고기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군인들에게 많은 고기와 고기가공품을 공급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하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함.
 - 김정일은 10월7일돼지공장은 군인들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후방기지의 하나라고 하면서 공장 앞에 나서는 전투적인 과업을 제시함.
 - 김정일은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것이 우리 사회주의라고 하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축산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하루 빨리 마련해 주자고 말함.

농업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교류협력사업 동향
 3.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 북중 교역 동향
 1. 북한의 곡물 수입 동향
 2. 북한의 비료 수입 동향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10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9년 10월 중 남북교역액은 17,261만 달러로 전년 동월 16,306만 달러에 비해 5.9% 증가(전월 17,320만 달러 대비 0.3% 감소)
- 반입은 10,066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9,905만 달러에 비해 1.6% 증가(전월 9,872만 달러 대비 2.0%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석유류 54.2%, 농림수산물 16.8%, 전기전자제품 15.4%, 생활용품 4.4%, 기계류 3.3% 등임.
- 반출은 7,196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6,402만 달러에 비해 12.4% 증가(전월 7,448만 달러 대비 3.4%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전기전자제품 35.7%, 석유류 30.7%, 기계류 12.6%, 화학공업제품 4.7%, 생활용품 4.3% 등임.

□ 10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9년 10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1,692만 달러로 전월 1,689만 달러 대비 0.2% 증가하고 10월 전체 반입액 10,066만 달러의 16.8%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311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3.1%), 합판

* 통일부 교류협력국에서 발간하는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과 통일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임.

등 임산물이 1.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01%), 어패류 등 수산물이 1,380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3.7%)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9년 10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62만 달러로 전월 253만 달러 대비 3.6% 증가하고 10월 전체 반출액 7,196만 달러의 3.6%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22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3.1%), 분유 등 축산물이 4.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7%), 합판 등 임산물이 9.7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3%), 어패류 등 수산물이 25.5달러(전체 반출액의 0.35%)를 차지했음.

□ 11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9년 11월 중 남북교역액은 18,653만 달러로 전년 동월 14,271만 달러에 비해 30.7% 증가(전월 17,261만 달러 대비 8.1% 증가)
- 반입은 9,406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8,012만 달러에 비해 17.4% 증가(전월 10,066만 달러 대비 6.6%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45.5%, 농림수산물 19.8%, 전기전자제품 17.7%, 기계류 4.6%, 생활용품 4.5% 등임.
- 반출은 9,247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6,260만 달러에 비해 47.7% 증가(전월 7,196만 달러 대비 28.5%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전기전자제품 37.7%, 섬유류 28.3%, 기계류 7.8%, 화학공업제품 7.7%, 생활용품 7.4% 등임.

□ 11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9년 11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1,860만 달러로 전월 1,692만 달러 대비 9.9% 증가하고 11월 전체 반입액 9,406만 달러의 19.8%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346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3.7%), 합판 등 임산물이 0.4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004%), 어패류 등 수산물이 1,513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6.1%)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9년 11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388만 달러로 전월 262만 달러 대비 48.1% 증가

하고 11월 전체 반출액 9,247만 달러의 4.2%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323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3.5%), 분유 등 축산물이 10.8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합판 등 임산물이 14.7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6%), 어패류 등 수산물이 39.8달러(전체 반출액의 0.43%)를 차지했음.

□ 12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9년 12월 중 남북교역액은 21,708 달러로 전년 동월 12,246만 달러에 비해 77.3% 증가(전월 18,653만 달러 대비 16.4% 증가)
- 반입은 9,659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6,985만 달러에 비해 38.3% 증가(전월 9,406만 달러 대비 2.7%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6.6%, 농림수산물 22.2%, 전기전자제품 17.8%, 생활용품 6.4%, 철강금속제품 6.4% 등임.
- 반출은 12,049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5,261만 달러에 비해 129.0% 증가(전월 9,247만 달러 대비 30.3%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전기전자제품 34.9%, 섬유류 28.1%, 화학공업제품 16.9%, 기계류 6.9%, 농림수산물 4.1% 등임.

□ 12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9년 12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2,147만 달러로 전월 1,860만 달러 대비 15.4% 증가하고 12월 전체 반입액 9,659만 달러의 22.2%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444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4.6%), 합판 등 임산물이 233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5.0%), 어패류 등 수산물이 1,703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7.6%)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9년 12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490만 달러로 전월 388만 달러 대비 26.0% 증가하고 12월 전체 반출액 7,448만 달러의 4.1%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428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3.6%), 분유 등 축산물이 11.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합판 등 임산물이 6.1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어패류 등 수산물이 43.4달러(전체 반출액의 0.4%)를 차지했음.

표 1 2009년 10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099,421	3,114	3.1	농산물	1,623,263	2,216	3.1
참깨	29,468	58		쌀	9,240	13	
호박	31,290	47		감자	38,249	68	
마늘	561,620	951		기타두류	4,086	10	
기타채소	143,735	277		밀가루	147,598	65	
고사리	122,016	1,008		기타곡분	3,747	25	
죽순	9,000	11		참깨	34,590	39	
영지버섯	3,000	9		들깨	1,800	2	
송이버섯	682	73		감	5	0	
기타버섯류	53,136	318		오렌지	20	0	
밤	7,800	33		마늘	768,120	730	
은행	10,300	43		고추	240	1	
기타견과류	40,000	24		기타채소	3,509	6	
대두유	4,725	6		기타화초	6,350	6	
참기름	1,166	1		밤	28,200	54	
들기름	3,844	4		은행	26,400	53	
기타유지가공품	3,791	6		기타산식물	17,620	35	
식물성액즙	8,100	179		대두유	216,180	231	
박류	10,800	0		마아가린	6,213	5	
간장	4,009	3		사료	100	1	
된장	6,666	5		효모류	1,380	11	
제조담배	650	6		기타소스류	5,612	15	
식물성한약재	24,624	41		기타식물성재료	1,500	1	
기타농산가공품	19,000	10		커피조제품	495	3	
				초코렛	0	0	
				제조담배	1,278	41	
				소주	4,000	5	
				맥주	7,226	6	
				위스키	186	8	
				기타주류	5	0	
				정당	8,665	7	
				기타당류	50	6	
				물	11,577	35	
				음료베이스	999	1	
				기타음료	200	0	
				비스킷	20	0	
				곡류가공품	94,684	262	
				빵	16,777	82	
				면류	65,755	156	
				기타농산가공품	86,990	167	
				견	2,397	65	
				면	1,200	1	

축산물	-	-	0	축산물	11,837	49	0.1
				닭고기	660	3	
				소시지	1,284	4	
				로얄제리	110	1	
				분유	1,508	6	
				기타낙농품	1,693	2	
				난류	6,090	21	
				모류	492	12	
임산물	5,700	12	0	임산물	105,590	97	0.1
합관	5,180	8		합관	4,529	11	
기타목재류	520	4		단판	100	1	
				섬유판	4,700	5	
				건축용목제품	1,739	18	
				기타목재생활용품	2	0	
				기타목재류	3,480	4	
				수목류	91,040	58	
수산물	7,679,017	13,798	13.7	수산물	86,676	255	0.4
넙치	384	4		기타게	250	3	
기타어류	69,641	164		기타조개	9,364	11	
새우	327,338	2,295		김	32	0	
기타게	65,933	315		툇	3,115	53	
문어	165,626	567		미역	28,620	11	
낙지	15,034	36		건조수산물	9,300	68	
굴	219	1		기타수산가공품	35,995	109	
피조개	19,956	63					
기타조개	4,429,818	5,555					
기타연체동물	1,831,606	2,082					
미역	139,608	150					
건조수산물	49,160	481					
기타수산가공품	409,215	1,562					
기타수산물	155,480	524					
합 계	8,784,138	16,924	17	합 계	1,827,366	2,618	4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220호(2009.10.1~10.31).

표 2 2009년 11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520,885	3,461	3.7	농산물	2,667,732	3,231	3.5
강낭콩	20,000	15		쌀	3,296	6	
참깨	31,570	52		감자	7,058	13	
들깨	6,900	9		밀가루	312,667	211	
마늘	810,790	1,395		참깨	34,020	38	
기타채소	178,003	338		들깨	40,500	35	
고사리	70,350	482		사과	53	0	
죽순	17,400	22		오렌지	15	0	
영지버섯	14,280	100		감귤	464	1	
표고버섯	30,247	287		배추	6,982	5	
기타버섯류	41,843	340		마늘	916,780	871	
밤	40,325	111		고추	400	2	
은행	15,250	64		기타채소	12,902	25	
기타견과류	139,360	82		기타화초	878	1	
참기름	1,004	2		밤	60,950	122	
들기름	4,287	6		호도	10,050	28	
기타식물성유지	998	15		은행	11,600	23	
기타유지가공품	7,189	11		기타산식물	171,081	102	
식물성액즙	1,000	20		대두유	732,400	787	
박류	8,000	0		기타식물성유지	40	1	
제조담배	650	6		식물성액즙	30	1	
식물성한약재	44,647	72		기타소스류	9,503	22	
소주	2,592	4		커피	5	0	
맥주	16,200	12		커피조제품	1,498	8	
과일주스	18,000	15		제조담배	4,440	84	
				소주	4,550	6	
				맥주	6,126	5	
				정당	5,260	5	
				기타당류	25	0	
				물	1,483	1	
				음료베이스	990	1	
				과일주스	30	0	
				기타음료	301	0	
				비스킷	2,575	3	
				곡류가공품	80,820	245	
				빵	26,023	124	
				면류	70,189	155	
				기타농산가공품	129,967	248	
				견	1,781	53	

축산물	-	-	0	축산물	21,478	108	0.1
				닭고기	150	1	
				소시지	1,904	6	
				분유	6,472	72	
				기타낙농품	1,269	2	
				난류	11,583	27	
				단백질류	40	0	
				류	60	0	
임산물	1,541	4	0	임산물	170,270	147	0.2
합판	41	0		원목	8,222	4	
기타임산부산물	1,500	3		합판	32,495	42	
				섬유판	14,400	10	
				건축용목제품	8,587	40	
				기타목재생활용품	100	5	
				기타목재류	14,026	18	
				수목류	91,340	28	
				종자류	1,000	0	
				기타임산부산물	100	0	
수산물	9,838,068	15,133	16.1	수산물	161,430	398	0.4
넙치	2,003	17		명태	225	0	
기타어류	85,649	118		기타어류	2,200	2	
새우	199,453	1,112		기타게	50	1	
기타게	72,442	427		굴	402	1	
문어	94,062	348		기타연체동물	6,680	10	
낙지	7,636	31		김	24	0	
굴	52,290	130		툇	3,100	53	
피조개	136,716	411		미역	72,810	36	
기타조개	6,959,494	8,571		기타해조류	4,589	30	
기타연체동물	1,321,460	1,516		기타염장수산물	13,300	24	
미역	253,790	322		건조수산물	7,200	57	
건조수산물	53,180	460		기타수산물가공품	42,850	135	
기타수산물가공품	316,738	1,200		기타수산물	8,000	49	
기타수산물	283,155	469					
합 계	11,360,494	18,597	20	합 계	3,020,910	3,883	4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221호(2009.11.1~11.30).

표 3 2009년 12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809,280	4,438	4.6	농산물	3,460,712	4,280	3.6
강낭콩	110,000	94		쌀	22,956	33	
참깨	31,560	46		기타두류	1,000	9	
들깨	7,032	9		밀가루	310,840	298	
기타곡실류	17,470	77		참깨	34,050	38	
무	40,350	55		들깨	4,120	4	
호박	19,240	7		해바라기씨	500	1	
마늘	806,840	1,388		바나나	30	0	
기타채소	258,739	430		감귤	1,430	4	
고사리	29,050	263		마늘	846,185	804	
고비	4,550	42		고추	400	0	
영지버섯	25,243	166		기타채소	10,045	24	
표고버섯	71,284	679		밤	49,650	100	
기타버섯류	61,060	460		은행	12,000	24	
밤	38,700	109		기타산식물	85,800	37	
호도	20,000	190		대두유	1,671,488	1,775	
은행	7,850	33		기타식물성유지	60	1	
기타견과류	58,160	44		기타유지가공품	3,000	21	
참기름	950	1		식물성액즙	40	1	
들기름	6,373	10		사료	58,900	40	
기타유지가공품	9,968	12		기타소스류	6,360	14	
식물성액즙	7,140	87		커피조제품	1,566	3	
박류	7,200	0		초코렛	300	2	
된장	13,566	24		제조담배	2,634	95	
제조담배	920	7		인삼류	400	10	
식물성환약제	102,035	158		소주	2,400	3	
과일주스	54,000	46		맥주	5,426	5	
				위스키	838	39	
				정당	180	1	
				물	2,413	1	
				음료베이스	993	1	
				과일주스	100	0	
				비스킷	526	1	
				곡류가공품	88,028	256	
				빵	34,157	182	
				면류	58,604	116	
				기타농산가공품	141,422	275	
				견	1,861	61	

축산물	-	-	0	축산물	11,331	119	0.1
				닭고기	526	2	
				소시지	1,935	4	
				로얄제리	200	0	
				분유	7,610	111	
				기타낙농품	1,060	2	
임산물	2,330	5	0	임산물	38,843	61	0.1
목제식탁용품	2,000	4		원목	50	0	
기타임산부산물	330	1		합판	10,968	29	
				섬유판	12,630	9	
				건축용목제품	240	4	
				기타목재생활용품	1	0	
				기타목재류	14,948	19	
수산물	9,907,623	17,026	17.6	수산물	332,136	434	0.4
넙치	302	3		명태	290	0	
대구	209	0		기타어류	800	1	
기타어류	54,390	91		새우	9,460	17	
새우	347,439	2,596		기타계	1,042	12	
기타계	166,932	979		기타조개	3,028	12	
낙지	12,352	35		기타연체동물	5,080	4	
굴	41,568	81		룻	7,240	123	
피조개	93,495	274		미역	270,717	136	
기타조개	7,139,480	9,020		어류통조림	200	0	
기타연체동물	983,750	1,238		기타수산가공품	34,279	130	
미역	314,282	253					
건조수산물	68,560	638					
기타수산가공품	193,674	726					
수산부산물	6,000	31					
기타수산물	268,077	339					
합 계	11,719,233	21,469	22.2	합 계	3,843,022	4,894	4.1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222호(2009.12.1~12.31).

□ 남북한 교역 통계

표 4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건수	품목수	금액(A)	건수	품목수	금액(B)		
1989	66	24	18,655	1	1	69	18,724	△18,586
1990	79	23	12,278	4	3	1,188	13,466	△11,090
1991	300	43	105,719	-	16	5,547	111,266	△100,172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173,426	△152,300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186,592	△169,742
1994	708	80	176,298	267	87	18,249	194,547	△158,049
1995	976	109	222,855	1,668	167	64,436	287,291	△158,419
1996	1,475	130	182,400	1,908	167	69,639	252,039	△112,761
1997	1,806	143	193,069	2,185	284	115,270	308,339	△77,799
1998	1,963	136	92,264	2,847	379	129,679	221,943	37,415
1999	3,089	172	121,604	3,421	405	211,832	333,437	90,228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425,148	120,402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402,957	50,61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641,730	98,58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724,217	145,713
2004	5,940	202	258,039	6,953	575	439,001	697,040	180,962
2005	9,337	381	340,281	11,878	712	715,472	1,055,754	375,191
2006	16,412	421	519,539	17,039	697	830,200	1,349,739	310,661
2007	25,027	450	765,346	26,731	802	1,032,550	1,797,896	267,204
2008	31,243	482	932,250	36,202	813	888,117	1,820,366	△44,133
소 계	119,583	3,729	5,170,999	126,365	7,214	5,844,918	11,015,917	673,919
2009.01	2,538	229	68,582	2,842	422	44,438	113,020	△24,144
2009.02	2,529	240	59,142	2,921	419	41,720	100,863	△17,422
2009.03	2,801	235	67,733	3,091	405	41,012	108,745	△26,721
2009.04	2,955	234	64,722	3,059	431	40,842	105,564	△23,880
2009.05	2,938	228	64,563	2,963	455	42,269	106,832	△22,294
2009.06	2,895	265	61,152	3,391	409	56,587	117,739	△4,565
2009.07	3,013	231	75,525	3,649	410	64,733	140,258	△10,792
2009.08	3,005	229	82,810	3,397	429	53,829	136,639	△28,981
2009.09	3,622	241	98,720	3,798	440	74,480	173,200	△24,240
2009.10	3,760	228	100,658	3,542	472	71,956	172,614	△28,702
2009.11	3,534	225	94,056	4,126	480	92,469	186,525	△1,587
2009.12	3,717	231	96,588	4,514	465	120,494	217,082	△23,906
소 계	37,307	2,816	934,251	41,293	4,285	744,830	1,679,081	△189,421
총 계	156,890	6,545	6,105,250	167,658	11,499	6,589,748	12,694,998	484,498

주: 1) 19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222호.

그림 1 연도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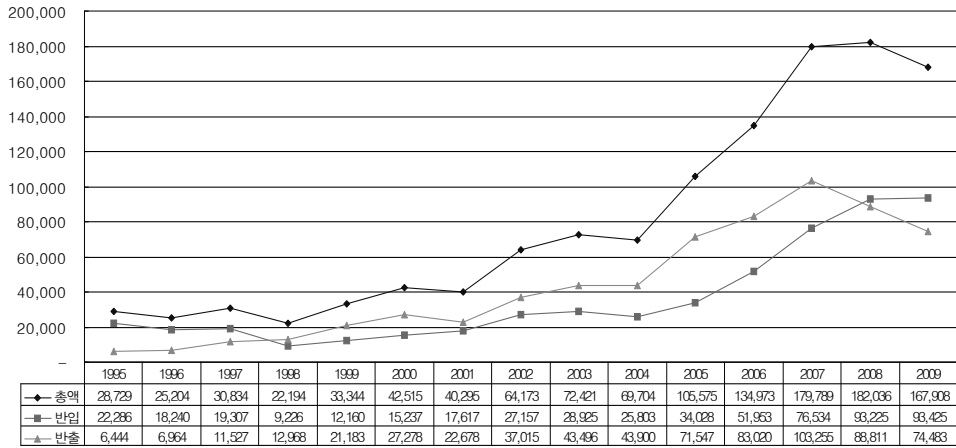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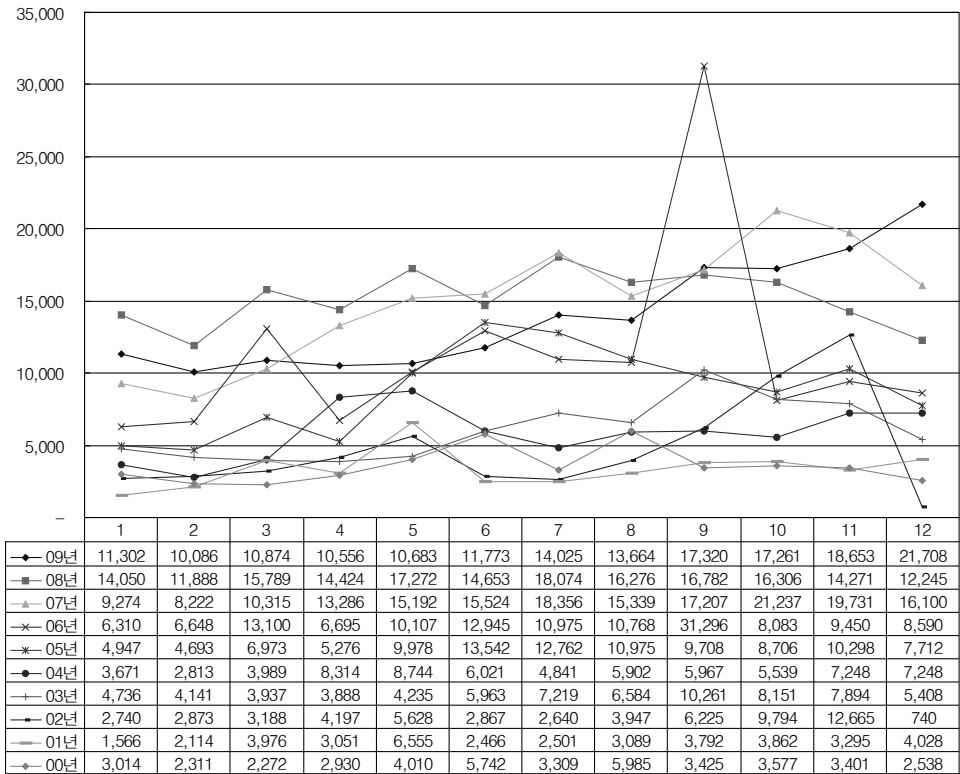


표 5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단위 : 천 달러

연 도	반입					반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B)		
1989	2,178	-	-	174	2,352	-	-	-	-	-	2,352	△2,352
1990	5,130	-	49	393	5,572	10	-	-	-	10	5,582	△5,562
1991	6,364	-	1,402	3,052	10,818	1,607	-	-	-	1,607	12,425	△9,211
1992	9,546	-	2,277	5,083	16,906	64	-	-	-	64	16,970	△16,842
1993	6,916	-	4,221	879	12,016	63	-	-	6	69	12,085	△11,947
1994	5,315	-	7,212	2,723	15,250	3,220	-	-	97	3,317	18,567	△11,933
1995	13,506	-	6,003	2,810	22,319	8,879	-	273	154	9,306	31,625	△13,013
1996	11,853	-	2,014	9,588	23,455	6,044	-	57	613	6,714	30,169	△16,741
1997	7,871	-	4,902	14,553	27,326	16,525	-	116	383	17,024	44,350	△10,302
1998	7,895	-	3,526	13,377	24,798	18,732	-	510	398	19,640	44,438	△5,158
1999	15,057	-	4,484	28,327	47,868	15,682	-	1,796	189	17,667	65,535	△30,201
2000	23,352	-	7,014	41,566	71,932	23,910	-	1,005	464	25,379	97,311	△46,553
2001	38,703	78	5,717	45,316	89,814	26,939	2,157	424	2,977	32,497	122,311	△57,317
2002	28,881	395	95	70,531	99,902	103,080	5,079	1,102	934	110,195	210,097	10,293
2003	36,203	1,474	245	89,714	127,636	112,345	7,425	2,206	3,583	125,559	253,195	△2,077
2004	32,965	443	244	68,209	101,862	60,649	2,411	2,006	2,075	67,141	169,003	△34,721
2005	21,425	664	318	57,430	79,837	73,303	1,638	2,160	821	77,922	157,759	△1,915
2006	37,670	184	437	99,563	137,854	206,702	1,745	4,451	994	213,892	351,746	76,038
2007	58,207	64	406	115,436	174,113	127,906	1,329	4,848	1,297	135,380	309,493	△38,733
2008	70,653	-	183	137,058	207,913	65,516	1,669	6,278	4,685	78,238	286,151	△129,675
소 계	439,690	3,302	50,749	805,782	1,299,543	871,176	23,453	27,232	19,670	941,621	2,241,164	△357,922
2009.1	6,661	-	13	13,428	20,102	2,347	87	99	206	2,739	22,841	△17,363
2009.2	2,436	-	17	9,461	11,914	2,690	66	122	261	3,139	15,053	△8,775
2009.3	2,331	-	3	9,976	12,310	2,042	147	201	216	2,606	14,916	△9,704
2009.4	2,895	-	53	10,838	13,786	2,226	53	218	398	2,895	16,681	△10,891
2009.5	4,355	-	28	14,586	18,969	2,324	-	106	177	2,607	21,576	△16,362
2009.6	4,903	-	79	11,642	16,624	2,231	-	86	296	2,613	19,237	△14,011
2009.7	5,832	15	14	12,872	18,733	2,570	70	106	194	2,940	21,673	△15,793
2009.8	4,517	-	3	11,152	15,672	1,881	143	60	197	2,281	17,953	△13,391
2009.9	4,903	-	44	11,939	16,886	2,189	133	96	111	2,529	19,415	△14,357
2009.10	3,114	-	12	13,798	16,924	2,216	49	97	255	2,618	19,542	△14,306
2009.11	3,461	-	4	15,133	18,597	3,231	108	147	398	3,883	22,480	△14,714
2009.12	4,438	-	5	17,026	21,469	4,280	119	61	434	4,897	26,366	△16,572
소 계	49,845	15	283	151,851	201,994	30,127	1,055	1,398	3,144	35,723	237,717	△13,729
총 계	489,535	3,317	51,032	957,633	1,501,537	117,303	24,508	28,630	22,814	977,344	2,478,881	△371,651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220~222호. <http://www.unikorea.go.kr>

그림 3 연도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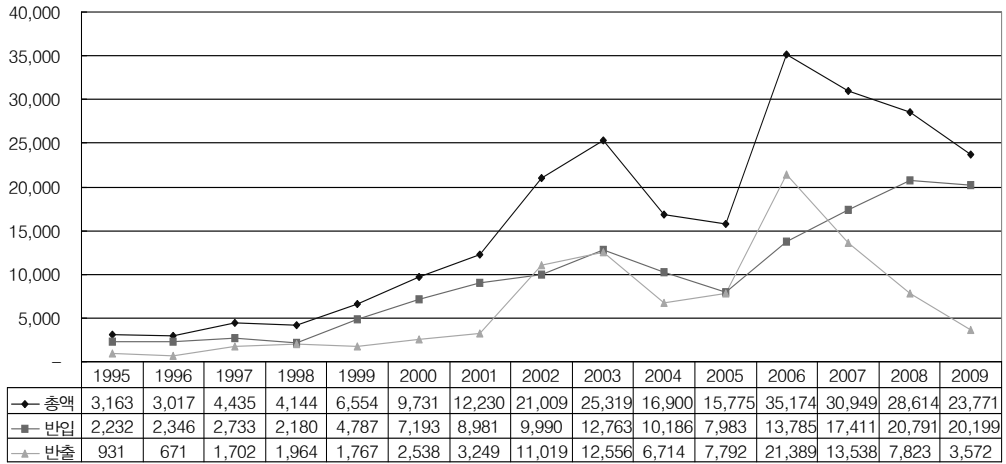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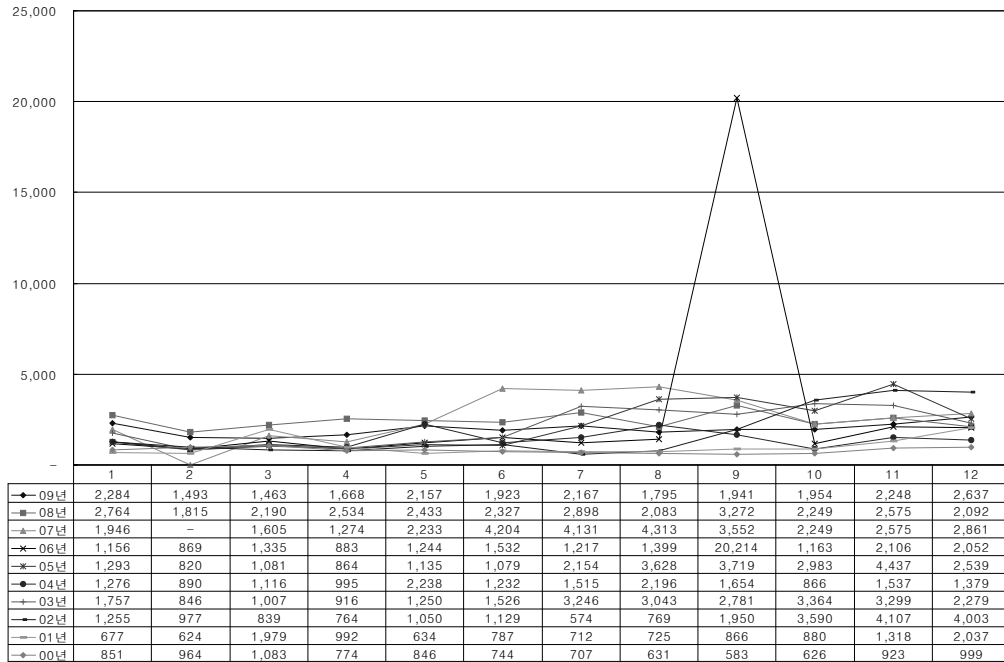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교류협력사업 동향

□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 2009년 10~12월 중 농림수산분야에서 협력사업이나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은 없음. 12월 말 현재, 농림수산분야에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단체)는 총 14개 로 전체 505개 기업(단체)의 2.8%를 차지하고 있음.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2009년 12월 말 현재

기업	사업상대자	사업 내용	지역	금액	사업자 승인일
미홍식품**(합 영)	조선철산무역총회사	수산물 채취·가공·양식 및 판매	청진, 함흥 원산, 남포	15만불 (47만불)*	'97.5.22 (*98.3.13)*
파라우수산(합 영)	조선은파산무역상사	수산물 생산·가공	원산, 해주	300만불	'97.8.1
금오식품(합 작)	은하무역총회사	빙면·고구마건분 제조	평양	40만불	'97.8.1
안홍개발(합 작)	조선56무역회사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	남포	50만불	'98.3.13
백산실업**(합 영)	함경북도 신봉군 은실농장	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농가 보급, 표고·느타리·진주 등 버섯류 생산·수출	나진, 선봉 (선봉군읍)	20.8만불*	'98.10.28 (*98.10.28)*
(주)해주(합 작)	광명성총회사	북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서해인근	299만불	'99.1.8
(주)G-한신 (주)경평인터내셔널**	광명성총회사	식품가공업 (김치, 된장, 상황버섯음료)	평양	240만불-	'03.10.31 (*04.3.20)*
(주)안동대마방직**	새별총회사	북한내 대마재배 및 삼베제품	평양, 황해도	1,500만불*	'04.2.18 (*08.5.27)*
제일유통**	개선무역총회사	표고버섯 재배 및 가공	평양	546천불*	'04.8.21 (*04.8.21)*
(주)제이유네트웍스**	광명성총회사	김치제조공장 설립 및 유통·판매	평양	160만불*	'04.12.30 (*04.12.30)*
(주)에너지극동개발	광명성총회사	사료 제조·판매	평양	-	'04.12.30
아이니무역**	개선총회사	다슬기 가공설비 투자 및 반입·판매	원산	15만불*	'05.06.15 (*05.06.15)*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나무재배 및 판매	황북 봉산 황남 연덕	26만불*	'05.12.30 (*05.12.30)*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파수재배 및 생산물 판매	평양 만경대	164만불*	'05.12.30 (*05.12.30)*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소사육 생산 및 판매	황북/황남, 평양	30만불*	'05.12.30 (*05.12.30)*
(주)통일고려인삼**	광명성총회사	인삼재배 및 가공공장 운영(북한 내수 및 해외판매)	평양, 황북 봉산군	285만불*	'07.12.31 (*07.12.31)*
대동수산**	광명성총회사	수산물 가공업	남포	500만불*	'08.06.20 (*08.06.20)*

- 주: 1) *는 협력사업 승인 금액 및 날짜임.
 2) **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기업(단체)임.
 3) 현대아산과 금강산관광총회사간의 계약에 의한 금강산영농장사업은 현대아산이 영농장의 시설·농자재를 금강산관광총회사에 연불수출(延拂輸出)하고 북한측은 생산물로 연불수출금을 상환하는 형태임(금강산관광총회사에서 영농장 운영은 고성군인민위원회에, 생산물 납입 가격 협의는 광명성총회사에 위탁).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222호.

3.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남북협력기금으로 개성공단 지원하기로 결정

(통일부, 2009. 11. 16)

- 정부는 제2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서면) 개성공단 일부 입주기업에 대해 소규모 운영자금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하고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도 유예하는 지원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함.
- 이는 북한의 ‘12.1조치’와 통행차단 이후 입주기업 경영실태 조사 결과 일부 입주기업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운영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임.
 - 근로자 수급과 기술지도 등의 문제가 발생
- 대상: 2008년 하반기 이후 신규로 가동하기 시작한 20개 업체
 - 총 60억 원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 지원
 -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을 먼저 신청하고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받지 못하는 부분을 협력기금으로 지원

□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한 ‘통일부-경기도-북방교류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통일부, 2009. 11. 30)

- 통일부, 경기도, (사)북방권교류협의회는 2009년 11월 30일 경기도청에서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동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공동으로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영농분야 취업을 지원할 예정임.
 - 통일부는 영농희망 북한이탈주민을 추천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 경기도는 판로 확보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
- (사)북방권교류협의회는 영농분야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을 담당

○ 주요 사업내용

- (사)북방권교류협의회가 운영 중인 화훼농장에 투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함. 농장은 로얄농원(용인시)의 기존 시설을 확충
- 사업 초기 7~8명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자녀교육 및 복지환경 조성도 단계적으로 추진
- 향후 동 화훼농장의 채용규모를 늘리고 다른 농장에도 확산하기 위해 교육사업을 추진

□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한 영유아, 취약계층 지원사업 의결
(통일부, 2009. 12. 28)

- 정부는 제22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서면개최, 12.21~24) ‘세계보건기구(WHO)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등 3건을 심의·의결함.
 - ① 세계보건기구(WHO)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안)
 - 세계보건기구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 기구에 13,116,335달러 범위 내에서 지원
 - ②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유엔아동기금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 기구에 3,984,680달러 범위 내에서 지원
 - ③ 2009년도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민간단체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3개 분야 정책사업에 대해 총 60억 5,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 취약계층 지원사업 35억 원, 산림녹화사업 19.8억 원, 기초의약품 생산지원 및 교육사업 5억 원

□ 통일부 2010년 업무추진계획 보고

(통일부, 2009. 12. 31)

- 통일부는 12월 31일 국방연구원에서 개최된 「2010년도 합동 업무보고회(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 통일부의 주요 보고 및 토론 내용
 - 2010년은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이므로, 남북관계 새로운 패러다임 구현과 선진 민주통일국가의 기반을 조성해야 할 때라고 전망
 - 2010년 한반도 정세 변화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① 원칙 있는 남북관계 발전, ② ‘생산적 인도주의’ 실현, ③ 미래준비 통일역량 강화를 3대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분야별 9대 중점과제와 추진방향을 보고
 -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6개 중점과제 제시
 - ① 북핵 문제의 해결
 - ②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 ③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교육
 - ④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
 - 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 ⑥ 통일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

< 3대 전략목표와 9대 중점 추진과제 >

<p>전략목표 1 원칙있는 남북관계 발전</p>	<p>① 북핵문제의 획기적 전환 ② 국민의 확실한 신변안전보장 ③ 투명한 교류협력 추진</p>
<p>전략목표 2 생산적 인도주의 실현</p>	<p>④ 인도적 문제의 창의적 대타결 ⑤ 선택과 집중의 민간단체 지원 ⑥ 일자리 중심 북한이탈주민 토탈케어(Total Care)</p>
<p>전략목표 3 미래준비 통일역량 강화</p>	<p>⑦ 통일준비 내부 인프라 강화 ⑧ 국제사회 통일 커뮤니티 형성 ⑨ 녹색 한반도 구현을 통한 국격향상·미래준비</p>

□ **북한의 옥수수1만 톤 지원 수용에 따른 준비 진행**

(통일부, 2010. 1. 15)

- 북한은 1월 15일 적십자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우리측이 2009년 10월에 제의한 옥수수 1만 톤 지원에 대해 수용 의사를 대한적십자사에 통보함.

-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관련 실무절차를 진행 중

<자료 1>

‘통일부-경기도-(사)북방권교류협의회’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설립·운영 관련 업무협약서

통일부, 경기도, (사)북방권교류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이 안정적인 정착의 핵심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그 일환으로 영농분야 사회적기업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경기도·(사)북방권교류협의회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영농분야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업의 내용

통일부, 경기도, (사)북방권교류협의회(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1. 각 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영농분야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2. 통일부는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모집하여 추천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3. 경기도는 사업에 관하여 도내 관로 확보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4. (사)북방권교류협의회는 영농분야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성공적 운영을 통하여 영농분야의 모범적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각 기관은 향후 영농분야의 인력교육 및 취업지원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6. 그밖에 필요한 협력사업들을 계속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3조 협약의 변경 등

본 협약에 대한 변경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효력 발생

본 협약은 상호 합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

제5조 협약서 보관

본 협약은 각 기관의 대표가 상호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9년 11월 30일

<자료 2>

2010년 통일정책 9대 중점 추진과제

과제 1. 북핵문제의 획기적 전환

- 2010년, 북핵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 마련
 - Grand Bargain, 6자회담 및 남북간 추진
 - ‘한반도 新평화구상’이행 구체화
- 진정성 있는 대화 추진
 - 북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 논의
 - 어떤 수준이든, 어디서든 실질적·성과지향적 회담 추진

과제 2. 국민의 확실한 신변안전보장

- 국제적 수준의 신변안전 보장
 - ‘개성·금강산 출입체류 합의서’ 완벽 보완
(접견권, 변호인 조력권 명시, 조사절차 구체화)
 - 평양 등 여타지역 방북인원 신변안전 보장 강화
- 출입체류 상설기구 설치
 - 개성·금강산 등 우리 국민 상주지역 우선 추진

과제 3. 투명한 교류협력 추진

- 새로운 물자·인원·기금 관리시스템 구축
 - ‘교류물자관리시스템’ 완비
 - 개성공단 방문인원 사전등록제 실시
 -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 개성공단 합리적 관리·운영
 - 발전 3원칙 지속 구현 : 국제수준 규범 확립, 경제원리 추구, 미래지향적 발전
 - 3통문제 해결: 상시통행, 무선통신, 선별통관
 - 각종지원시설(종합지원센터, 기술교육센터 등)운영 내실화

과제 4. 인도적 문제의 창의적 대타결

-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 해결 강구
 - 우리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방안 마련
 - 일회성 방식이 아닌 근본적 해결

과제 5. 선택과 집중의 민간단체 지원

- 순수 인도적 물자에 집중
 - 질병예방·긴급구호 물자 지원
 - 단계별 모니터링을 통한 분배 투명성 강화
- 지원 대상의 전략적 선택
 - 영유아·임산부·장애인 등 취약 계층 중점
 - 역량을 갖춘 우리의 민간단체에 집중

과제 6. 일자리 중심 북한 이탈주민 토탈케어(Total Care)

-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정부 고용지원 프로그램(2009년 600개 → 2010년 1,000개, 노동부·중기청 협조)
 - 사회적 기업 설립·채용(2009년 20개 → 2010년 300개)
 - 경제단체, 기업과 사회적 협약 체결(신규 700개)
- 지역적응센터 전국 30개 설치·운영
 - ‘정부-지방-민간’ 삼각협력체계 구축, 지역 내 정착지원 구심체로 발전
 - 전문상담사 100명 육성
- ‘토탈케어 정보시스템’
 - “하나원에서 가정까지” 정착경로 전 과정 관리
 - 연구지원센터 설치, 과학적 연구
- 사회적 협력 네트워크
 - 법률·의료단체 봉사지원 협약 체결
 - 금융기관, 공익단체의 사랑 나눔 사업 참여
- 제2 하나원 건립
 - 북한이탈주민 동시 수용능력 50% 증가(1,000 → 1,500명)

과제 7. 통일준비 내부 인프라 강화

- 북한 정보 통합시스템(반디시스템) 구축
 - 북한 정보 수집 강화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설계
 - 북한정세지수 개발
 - 대국민 북한실상 알림서비스(전서구(傳書鳩)시스템)
 - * BANDIS(반디스) : Best & Advanced North-Korea Digital Information System
-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교육으로 ‘뉴파이오니어’ 양성
 - 전 지역 순방 ‘통일대회의 광장’ 개최
 - 지역 ‘통일관’ 건립 추진
 - 청소년층에 대한 학교 IPTV 통일교육 실시

과제 8. 국제사회 통일 커뮤니티 형성

- ‘한반도 미래협력대화(KFCD)’ 창설·정례화
 - 주변국 정부인사 및 국제사회 전문가 초청(1.5트랙/반관반민기구)
 -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국가 협력 확대
- ‘통일비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세계 지도급 인사 및 석학 참여(민간)
 -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 조성
- ‘한·독 장관급 통일정책 협의회’ 구축·운영
 - 독일 통일 20년 경험을 종합 정리 연구

과제 9. 녹색 한반도 구현을 통한 국격향상·미래준비

- 북한지역 산림녹화 추진
 - 북한 산림녹화 관련 대북협약의 착수
 - 민간단체의 산림녹화 사업 체계적 지원
 - 병충해 공동방제, 양묘장 조성, 시범조림 지속 추진
- 비무장지대를 녹색 한반도 상징으로 발전
 - DMZ 인근 평화통일공원 조성(청소년 체육시설, 유스호스텔, 컨벤션센터 건립)
 - DMZ 평화생태적 이용 종합계획 수립, 남북간 공동이용 협의
 - ‘DMZ 평화생태 포럼’ 창설

<자료 3>

남북관계 관련 정부위원회 현황

통일고문회의

소속 및 성격	소속(주 관)	성 격
		대통령(통일부)
설치근거 및 시행일	- 통일고문회의규정(대통령령 제4841호, 1970.4.30) 정부입법(√) 의원입법()	
위원회 구성일	- 1970. 4. 30	
존속기한 및 근거	- 종속기한 미설정 - 통일고문회의는 특정사업 대상이 아닌 전반적인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로 존속기한을 설정할 성격의 위원회가 아님.	
설치 목적	-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의견을 종합하고 통일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며 정책을 건의	
기 능	- 통일에 관한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 종합 - 국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고취·선양하기 위한 방안 - 통일에 관한 제반 정책 및 방안 연구·조성 - 국내외 통일추진활동 조성을 위한 방안 - 기타 통일과 관련된 문제로서 국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소속 및 성격	소속(주 관)	성 격
		통일부(통일부)
설치근거 및 시행일	-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2006.6.30)	
위원회 구성일	- 2006. 12. 27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설치 목적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	
기 능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법 제6조 내지 제12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남북관계의 발전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거나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통일부(통일부)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의결(√)
설치근거 및 시행일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규정(1989.3.31) 대통령령 제12670호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1990.8.1) 법률 제4239호	
위원회 구성일	- 설치일자 : 1989.4월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 남북이 분단 하에 있고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있는 한 존속 필요	
설치 목적	- 남북간 상호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기 능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 조정, 기본원칙 수립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와 승인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 및 조정 -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의 결정 -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등	

남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국무총리(통일부)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의결(√)
설치근거 및 시행일	- 전후 남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법 6조(2007.10.28) - 동법 시행령 2조(2007.10.28)	
위원회 구성일	- 2007. 11. 30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 남북피해자 지원신청에 대한 처리가 종결되는 2011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	
설치 목적	- 군사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 - 귀환한 남북자에 대한 지원	
기 능	- 남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남북피해자 해당 여부 결정과 관련된 사항 · 정착금·피해위로금·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 실태조사 등 남북자 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남북자가족 권리침해 조사 등에 관한 사항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¹⁾

표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995.9~2009.12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¹⁾ (만달러)	실적율 (%)	국가별 지원액 (만 달러)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39	78.8	EU 860,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5 등
3차 '97.4~12	18,439	15,838	85.9	미국 4,537, EU 2,752, 일본 2,700, 한국 2,533 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한국 1,087, EU 953, 덴마크 357, 캐나다 354, 노르웨이 304, 스웨덴 279, 호주 130 등
5차 '99.1~12	29,208	18,989	65.0	미국 16,07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노르웨이 232, 호주 228,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12	31,376	15,310	48.8	일본 9,566, 미국 2,923, 호주 666, EU 478, 스웨덴 280, 노르웨이 229, 캐나다 171, 덴마크 151, 핀란드 113 등
7차 '01.1~12	38,398	24,797	63.5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1,579, 이탈리아 708, 독일 291, 호주 289, 스웨덴 244, 스위스 222, 노르웨이 189 등
8차 '02.1~12	24,684	22,001	89.1	미국 6,349, 한국 1,624, EU 947, 호주 339, 캐나다 245, 스웨덴 228, 영국 171, 노르웨이 144, 독일 135, 덴마크 101 등
9차 '03.1~12	22,937	13,310	58.0	미국 3,152, 한국 1,683, EU 1,602, 러시아 1,000, 이탈리아 652, 캐나다 437, 스웨덴 407, 독일 323, 노르웨이 284 등
10차 '04.1~12	20,880	15,158	72.6	일본 4,660, 한국 2,509, 미국 1,906, EU 1,557, 스웨덴 910, 호주 797, 캐나다 477, 독일 426, 이탈리아 403 등
'05.1~12 ²⁾	-	4,523	-	유럽연합 1,322, 독일 777, 스웨덴 549, 이집트 388, 노르웨이 324, 핀란드 291, 네덜란드 132, 캐나다 132, 한국 107 등
'06.1~12	-	1,915	-	한국 728, 스웨덴 498, 노르웨이 2,21, 호주 78, 아일랜드 70, 덴마크 69, 네덜란드 65, 독일 63, 핀란드 59 등
'07.1~12	-	9,966	-	한국 2,437, 유엔긴급지원자금 1,110, 호주 585, 스웨덴 532, 독일 506, 유럽연합 398, 이탈리아 377, 노르웨이 335 등
'08.1~12	-	4,358	-	한국 1,149, 독일 499, 스위스 430, 스웨덴 415, 이탈리아 370, 유엔긴급지원자금 340, 노르웨이 309, 네덜란드 202 등
'09.1~12	-	4,193	-	유엔긴급지원자금 1,900, 스웨덴 833, 노르웨이 470, 캐나다 330, 호주 261, 이탈리아 123, 한국 109, 스위스 69 등
총 계	-	176,312	-	

주: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실제 지원된 금액만을 집계한 것임.

2) 2005년부터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통합지원은 폐지되고 개별지원으로 전환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an 16, 2010)

표 2 2009년도 지원창구별 대북 지원 실적 (2009.1.1~12.31)

지원창구	지원국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FAO	유엔긴급기금	1,150,001	여름 주작물 생산을 위한 긴급지원 (CERF 09-FAO-009)
	유엔긴급기금	1,700,001	
		소계	2,850,002
국제적십자연맹	핀란드	395,257	보건 및 의료 지원
노르웨이 적십자사	노르웨이	2,100,187	기초보건 인프라 지원(PRK-09/002/IFRC)
호주적십자사	호주	521,921	식수 및 위생 품목 긴급지원
스웨덴 적십자사	스웨덴	1,284,400	공공보건 긴급지원 기초의약품 지원
		1,403,630	
		소계	2,688,030
Caritas Allemagne (DCV)	독일	225,904	사회적 약자 지원(BMZ-NO: 2009.1908.4)
Concern Worldwide	스웨덴	555,830	병원 복구, 식수, 위생 지원
Premiere Urgence	스웨덴	370,553	병원 복구, 식수, 위생 지원
Save the Children UK	스웨덴	988,142	병원 복구, 식수, 위생 지원
UNICEF	유엔긴급기금	1,101,300	북부지역 어린이 질병예방 (CERF 09-CEF-015)
	유엔긴급지원	696,784	5개도의 어린이 질병예방(CERF 09-CEF-049)
	호주	695,894	식수 및 위생 품목 긴급지원
	룩셈부르크	351,124	식수, 위생을 포함한 종합 영양지원
	이탈리아	739,645	강원도 임산부 및 보건 지원(AID 9387)
	스웨덴	1,729,249	병원 복구, 식수, 위생 지원
		소계	5,313,996
UNPF	유엔긴급기금	154,883	산모 사망률 경감을 위한 긴급지원
	유엔긴급기금	99,838	
		소계	254,721

지원창구	지원국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WFP	유엔긴급기금	6,493,725	홍수피해, 식품 및 연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CERF 09-WFP-018)
	유엔긴급기금	5,800,000	취약계층 지원(CERF 09-WFP-018)
	호주	1,391,788	긴급 식량지원
	노르웨이	2,022,402	긴급 식량지원(PRK-09/003/WFP)
	노르웨이	580,475	긴급 식량지원(PRK-09/005)
	캐나다	3,301,127	식량지원(M-012909)
	스위스	685,788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소계	20,275,305
WHO	유엔긴급기금	1,100,000	모자보건 개선(CERF 09-WHO-014)
	유엔긴급기금	700,171	모자보건 개선(CERF 09-WHO-049)
	스웨덴	1,013,941	WHO/HAC를 통한 위기 국가 지원
	스웨덴	988,142	병원 복구, 식수, 위생 지원
	한국	1,096,429	말라리아 방역사업
	소계	4,898,683	
양자지원	이탈리아	489,458	이탈리아 지원사업의 효과 증진 (AID 8704/02/1)
합 계		41,927,989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an. 16, 2010)

표 3 2009년도 분야별 대북 지원 실적 (2009.1.1~12.31)

분 야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농업	유엔긴급기금	FAO	1,150,001	여름 작물 생산을 위한 긴급지원 (CERF 09-FAO-009)
식량	유엔긴급기금	WFP	6,493,725	홍수피해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 (CERF 09-WFP-018)
	유엔긴급기금	WFP	5,800,000	취약계층 지원(CERF 09-WFP-018)
	유엔긴급기금	FAO	1,700,001	이모작 작물 생산을 위한 긴급지원
	호주	WFP	1,391,788	긴급 식량지원
	캐나다	WFP	3,301,127	식량지원(M-012909)
	스위스	WFP	685,788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노르웨이	WFP	2,022,402	긴급 식량지원(PRK-09/003/WFP)
	노르웨이	WFP	580,475	긴급 식량지원(PRK-09/005)
			소계	21,975,306
보건	유엔긴급기금	UNPF	154,883	산모 사망률 경감을 위한 긴급지원
	유엔긴급기금	WHO	1,100,000	모자 보건 개선(CERF 09-WHO-014)
	유엔긴급기금	UNPF	99,838	산모 사망률 경감을 위한 긴급지원
	유엔긴급기금	WHO	700,171	모자보건 개선(CERF 09-WHO-049)
	유엔긴급기금	UNICEF	696,784	5개도의 어린이 질병예방(CERF 09-CEF-049)
	유엔긴급기금	UNICEF	1,101,300	북부지역 어린이 질병예방 (CERF 09-CEF-015)
	노르웨이	노르웨이 적십자사	2,100,187	기초보건 인프라 지원(PRK-09/002/IFRC)
	스웨덴	WHO	1,013,941	WHO/HAC를 통한 위기 국가 지원
	스웨덴	스웨덴적십자사	1,284,400	공공보건 긴급지원
	스웨덴	스웨덴적십자사	1,403,630	기초의약품 지원
	핀란드	국제적십자연맹	395,257	보건 및 의료분야 지원
한국	WHO	1,096,429	말라리아 방역사업	
		소계	11,146,820	

분 야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식수 위생	호주	적십자	521,921	식수 및 위생 품목 긴급지원
	호주	UNICEF	695,894	식수 및 위생 품목 긴급지원
			소계 1,217,815	
종합	룩셈부르크	UNICEF	351,124	식수, 위생을 포함한 종합 영양지원
	스웨덴	UNICEF	988,142	병원 복구, 식수, 위생 지원
	스웨덴	WHO	988,142	병원 복구, 식수, 위생 지원
	스웨덴	Save the Children	988,142	병원 복구, 식수, 위생 지원
	스웨덴	UK Concern Worldwide	555,830	병원 복구, 식수, 위생 지원
	스웨덴	Premiere Urgence Caritas	370,553	병원 복구, 식수, 위생 지원
	독일	Allemagne(DVC)	225,904	사회적 약자 지원(BMZ-NO: 2009.1908.4)
	이탈리아	UNICEF	489,458	강원도 임산부 및 보건 지원(AID 9387)
	이탈리아	양자지원	739,645	이탈리아 지원사업의 효과 증진 (AID 8704/02/1)
			소계 6,438,047	
합 계			41,927,989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an. 16, 2010)

표 4 2009년도 원조국별 대북 지원 실적 (2009.1.1~12.31)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호주	WFP	1,391,788	긴급식량지원
	적십자	521,921	식수 및 위생 품목 긴급지원
	UNICEF	695,894	식수 및 위생 품목 긴급지원
	소계	2,609,603	
캐나다	WFP	3,301,127	식량지원(M-012909)
유엔긴급 기금 (CERF)	FAO	1,150,001	여름작물 생산을 위한 긴급지원 (CERF 09-FAO-009)
	FAO	1,700,001	이모작 작물 생산을 위한 긴급지원
	UNICEF	1,101,300	북부지역 어린이 질병예방(CERF 09-CEF-015)
	UNICEF	696,784	5개도의 어린이 질병예방(CERF 09-CEF-049)
	UNPF	154,883	산모 사망률 경감을 위한 긴급지원
	UNPF	99,838	산모 사망률 경감을 위한 긴급지원
	WFP	6,493,725	홍수피해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
	WFP	5,800,000	취약계층 지원(CERF 09-WFP-018)
	WHO	1,100,000	모자 보건 개선(CERF 09-WHO-014)
	WHO	700,171	모자보건 개선(CERF 09-WHO-049)
소계	18,996,703		
스위스	WFP	703,789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핀란드	국제적십자 자연맹	395,257	보건 및 의료분야 지원
룩셈부르크	UNICEF	351,124	식수, 위생을 포함한 종합 영양지원
독일	Caritas Allemagne (DCV)	225,904	사회적 약자 지원
스위스	WFP	685,788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스웨덴	WHO	1,013,941	WHO/HAC를 통한 위기 국가 지원
	스웨덴 적십자사	1,284,400	공공보건 긴급지원
	스웨덴 적십자사	1,403,630	기초의약품 지원
	UNICEF	1,729,249	병원 복구, 식수, 위생 지원
	WHO	988,142	병원 복구, 식수, 위생 지원
	Save the Children UK	988,142	병원 복구, 식수, 위생 지원
	Concern Worldwide	555,830	병원 복구, 식수, 위생 지원
	Premiere Urgence	370,553	병원 복구, 식수, 위생 지원
	소계	8,333,887	
이탈리아	양자지원	489,458	강원도 임산부 및 보건 지원(AID 9387)
	UNICEF	739,645	이탈리아 지원사업의 효과 증진 (AID 8704/02/1)
	소계	1,229,103	
한국	WHO	1,096,429	말라리아 방역사업
합 계		41,927,989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an. 16, 2010)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가. 유엔기구

□ UNDP, 250만 달러 대북사업 추진 계획

- 2007년 3월 북한의 자금 전용 의혹으로 중단되었던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 지원사업이 2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 최근 UNDP는 북한 외무성과 사업세부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국제직원 5명, 북한 현지직원 13명을 확정함.
 - UNDP는 농업에너지 지원, 생필품 공급, 통계자료 수집, 인적자원 개발 등의 분야에 250만 달러 규모의 6개 대북지원사업을 2010년 초 재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자료: <http://www.dailynk.com> (데일리NK, “UNDP, 250만 달러 대북사업 예고,” 2009. 11. 24)

□ WFP 대북 식량지원 축소로 북한 식량난 설상가상

-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지원이 대폭 축소되어 그렇지 않아도 힘든 북한의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
 - WFP는 2008년 한해 1억 4,8000만 달러 상당의 식량을 북한의 8개 도, 131개 군의 620만 명에게 지원하였으나 2009년에는 식량 지원 규모를 6개도, 22개 군의 200만 명으로 축소하였으며 함흥, 해주, 혜산의 현장사무소를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힘.
 - WFP가 북한 식량지원에 투입한 예산은 2009년 들어 8월까지 6,100만 달러에 그쳐 2008년에 비해 월평균 대비 38%나 감소함.
 - WFP의 이 같은 대북 식량지원 규모 축소는 향후 북한의 식량 수급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WFP의 ‘대북사업 수정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11월 현재 대북사업 필요 예산 5억 400만 달러 중 17%만 모금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저조하여 대폭적인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힘.

- WFP는 2008년 9월부터 시작한 대북 긴급구호사업이 2009년 11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사업 기간을 2010년 6월까지 7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함.

○ WFP의 대북 식량지원 규모는 2006년 1,800만 달러, 2007년 4,800만 달러 수준에 머물다가 2008년 북핵 협상의 진전에 따라 미국의 지원 자금이 투입되면서 2008년에는 지원 규모가 전년에 비해 3개 이상 증가함.

- 그러나 이후 북미간 핵협상이 다시 고착 상태에 빠지고 식량지원 모니터링 조건을 둘러싸고 북미간 이견이 불거져 결국 2008년 9월부터 WFP를 통한 미국의 식량지원은 전면 중단됨.

-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대한 보상으로 2008년 5월 식량 50만 톤을 12개월에 걸쳐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북한에 전달된 물량은 169,000톤에 거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한 학술회의에서 2010년 북한의 곡물 소요량은 520만 톤 정도로 추정되지만 2009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2008년 431만 톤에 비해 10% 가량 감소할 전망이어서 2010년에는 식량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함.

- 게다가 북한이 2009년 11월 30일 화폐교환을 단행한 후 식량 등 생필품 확보가 어느 때보다 어렵고 절실한 상황임.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WFP 식량지원 축소..北 식량난 설상가상” 2009. 12. 22)

□ 국제사회, 2009년 북한에 4천만 달러 지원

○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의하면 2009년 한해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총액은 전년에 비해 줄어든 4,060만 달러로 집계되었음.

- 북한은 2009년 국제사회에 별도의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등은 전년에 이어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음.

- 2009년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4,060만 달러로 2008년의 4,800만 달러에 비해 16% 감소하였으며 지원국도 전년의 14개국에서 10개국으로 감소함.

- 국가별로는 스웨덴이 가장 많은 83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였으며 이어 캐나다, 호주, 스위스, 핀란드, 룩셈부르크 순으로 많은 지원을 하였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국제사회, 작년 北에 4천만\$ 지원,” 2010. 01. 01)

□ UNDP 대북 사업, 대체에너지 개발에 역점

- 2010년 2월부터 재개될 예정인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 지원사업에서 UNDP는 태양열, 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 부분에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함.
 - UNDP는 대북 지원사업에 250만 달러를 투입하며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에너지 지원, 종자생산 개선, 수확량 조사 체계화, 수확 후 손실 축소, 풍력에너지, 통계자료 수집 등 6개 사업임.
- 6개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농촌 에너지 지원 사업에는 수력, 태양력 등 대체에너지 시설의 설치와 기술 전수,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임.
 - 이 사업에는 북한의 에너지 전문가들을 중국, 인도, 필리핀, 유럽 등지에 연수를 보내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음.
 - 풍력에너지 사업은 북한에서 바람의 성질과 대체에너지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임.
 - UNDP는 풍력에너지 장비가 북한에서 자체 제작될 수 있도록 시장을 형성하며 풍력에너지 전문가와 기술자를 양성하는 데도 힘을 쓸 계획임.
- UNDP는 FAO와 공동으로 종자생산 개선, 수확량 조사 방법의 체계화, 수확 후 손실 축소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이는 북한의 낙후된 농업 시설과 기술의 후진성에서 기인하는 북한의 농업 생산력 저하 문제를 개선하여 만성적 기근 현상은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UNDP 대북사업, 정부에 대북지원 동참 요청,” 2010. 01. 05)

□ UNICEF, 5년 만에 북한 영양실태 조사

- 유엔아동기금(UNICEF)은 2009년 9~10월 5년 만에 북한 주민들의 영양상태 등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6월 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평양사무소의 비자야 라즈반다리 소장이 미국의 소리(VOA) 방송을 통해 밝힘.
 - 2009년 12월 초 부임한 라즈반다리 소장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평양 사무소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지난해 9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북한 내 10개

도, 300개 지역의 7,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영양실태조사 결과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일이라고 밝힘.

- 영양실태조사는 일반 가정과 가임기 여성, 5세 이하 어린이 등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과 영양상태를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음.
- UNICEF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2년 주기로 북한 주민의 영양실태를 조사했으나 북한 당국의 비협조 인해 2004년 이후 중단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유니세프, 5년만에 北 영양실태 조사,” 2010. 01. 12)

□ 유엔, 5년 내 북한 기아인구 절반감축 전략

- 유엔개발계획(UNDP) 등 평양에 상주하는 유엔기구들이 북한의 기아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북 지원활동 5개년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함.
- RFA는 북한에 상주하는 UNDP, UNICEF, WFP, FAO 등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북지원 5개년 전략을 통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인구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체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활용과 개발을 극대화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함.
- UNDP측은 향후 추진될 5개년 전략은 영양, 사회개발 및 보건, 기후변화, 경제개발 등 4가지 분야로 결정되었다고 밝히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사회 전반적 요소들을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맞춰 국제적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다고 밝힘.

자료: <http://www.dailynk.com> (데일리NK, “유엔, 5년 내 北 기아인구 절반감축 전략,” 2010. 1. 17)

나.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 북한, 아직도 한국의 식량 지원 제의에 침묵

- 한국이 북한에 옥수수 10,000톤을 지원하겠다는 제의에 대해 북한은 아직도 대답

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음.

- AFP는 북한이 지난 10월 16일 양자 실무회담시 한국에 쌀 10만 톤을 요청했었다고 전하고 있으나 조선일보는 청와대 고위 관리의 비공개 전언을 인용하면서 북한은 옥수수 10만 톤을 요청하였다고 보도함.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대한적십자사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을 뿐 구체적인 곡물의 형태나 지원량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부인함.
 - 한국이 제의한 옥수수 1만 톤은 340만 달러 상당이며 이 밖에도 한국은 분유 20톤과 의약품을 지원하겠다고 제의하였음.
 - 이번에 한국 정부가 지원을 제의한 것은 2년 여 만에 처음임.
 - 한국은 2007년까지만 해도 북한에 매년 쌀 40만 톤과 비료 30만 톤가량을 지원하였으나 2008년 보수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북 지원이 중단되었음.
- 북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은 2009년 좋지 않은 기상으로 인해 곡물 작황이 나빠 2010년에는 식량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전망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Agence France Presse, NKorea still silent on SKorea's food aid offer, Nov. 02, 2009)
<http://www.reliefweb.int> (Chosun, Confusion over food aid to N.Korea, Nov. 04, 2009)

□ 북한, 한국 정부의 식량 지원에 대해 침묵하면서 개별 차원의 식량 지원 모색

- 북한은 한국 정부의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한국의 민간단체에게 긴급 식량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동아일보에 따르면 북한의 민화협은 최근 중국에서 한국의 민간단체 관계자들에게 긴급 식량지원을 요청하였다고 함.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그들이 제공하는 식량이 50~100톤의 소규모라고 할지라도 북한은 이를 수용할 뜻이 있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함.
- 이 보도에 대해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북한의 요청 내용에 대해 확인을 거부하였으며 그들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9년 북한에 1만 톤의 옥수수를 지원하기 위해 모금을 개시하였으며 굿네이버스는 옥수수 50톤을 지원할 계획임.
- 국제옥수수재단은 중국 단동을 통해 북한에 133톤의 옥수수를 보낼 계획임

자료: <http://www.reliefweb.int> (Agence France Presse, NKorea seeks private food aid, silent to Seoul's offer: report, Nov. 05, 2009)

□ 정부 2010년 예산에 쌀 40만 톤, 비료 30만 톤 지원 반영

- 2010년 통일부 예산에 쌀 40만 톤과 비료 30만 톤의 대북 지원사업 예산을 반영함.
 - 11월 13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2010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 당국자 차원이 대북 인도지원에 약 6,160억 1,300만 원을 배정함.
 - 이는 쌀 40만 톤과 비료 30만 톤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며 2009년의 예산인 7,181억 7,000만 원과 비교할 때 14.2% 감소한 것임.
 -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2010년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에 180억 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에 250억 원을 책정하였으며 북한 영유아 지원, 보건의료협력, 산림녹화, 농수산물 수송 등의 사업에 493억 원을 배정함. 이는 2009년 예산 401억 원에 비해 22.9% 증가한 것임.

- 2010년 통일부의 일반예산 중 순수사업비 약 1,165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807억 원(69.3%)은 탈북자 지원 분야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통일교육 분야 80억 원(6.9%), 정세분석 분야 55억 원(4.7%), 통일정책 분야 45억 원(3.9%), 남북피해자 분야 43억 원(3.7%)으로 구성됨.

- 통일부는 무상 경험지원으로 2009년보다 17.1% 늘어난 1,447억 7,90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이 중 북한 근로자 숙소, 용수시설, 소방서, 의료시설, 출퇴근 도로 등 개성공단 관련 기반시설 건립 및 건설에 2009년에 비해 32.2% 증가한 867억 원을 배정함.

- 이외에도 임진강 사고의 방지를 위한 임진강 수해방지 협력, 기술 지원, 경제인력 양성, 농수산협력 등에 약 481억 원을 책정함.

자료: <http://www.dailynk.com> (데일리NK, “쌀 40만 톤, 비료 30만 톤 대북지원 정부 예산 반영,” 2009. 11. 13)

□ 대북지원단체, 종자 공급 끊겨 北 농업 타격

- 정부의 대북 물자반출 제한으로 옥수수 등의 종자 지원까지 끊겨 농업분야 협력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대북지원단체들이 주장함.

- 민간지원단체들은 정부가 의약품과 취약계층 긴급구호 식량 반출을 허용하면서 정작 북한 주민의 만성적 식량난 완화에 도움이 되는 종자와 농자재 반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함.
- 북한의 옥수수 재배를 돕고 있는 국제옥수수재단 관계자는 당분 섭취가 부족한 북한 주민들의 영양실조를 줄이기 위해 2년 전부터 사탕옥수수 씨앗을 보내왔으며 2009년에도 북한의 요청에 따라 사탕옥수수 종자 600kg을 보내려 하였지만 통일부가 반출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또한 북한에서 요청한 비료를 보내지 못해 대신 옥수수 133톤을 중국에서 구입하여 지난주까지 보내줬다며 옥수수는 긴급구호에 쓰도록 지원을 허용하면서 농작물 종자와 농자재는 안 된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하소연함.
- 15년 전부터 북한에서 씨감자 생산, 국수공장 건립, 채소온실 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펼쳐온 월드비전도 북한과의 씨감자 배양사업에 차질이 빚어 아쉬워하고 있음. 월드비전은 북한 내 전체 감자밭 18만 ha 중 80% 이상에 씨감자를 공급하는 북한 농업과학원과 함께 원원종 조직배양사업을 해왔는데 정부의 물자반출 제한에 묶여 씨감자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함. 월드비전 관계자는 2009년 들어 시약 외에도 씨감자 배양에 필요한 온실 자재를 제대로 보내지 못해 벌써 북한의 감자 수확이 20~30% 감소한 것으로 안다며 특히 감자는 바이러스에 취약해 내년이 더 걱정스럽다고 토로함. 월드비전은 평양 근교의 만경대, 두루섬 협동농장 등에 오이와 토마토 씨앗을 보내왔는데 올해는 전혀 보내지 못하였다고 덧붙임. 월드비전은 이밖에도 북한에 보낼 경운기, 양수기 등 농자재 1억 원 어치를 준비해 놓았는데 인천항에서 발이 묶여 지난 4월 이후 보관료만 2천 만 원을 물음.

자료: <http://www.dailynk.com> (데일리NK, “대북지원단체, 종자공급 끊겨 北 농업 타격,” 2009. 12. 01)

□ 북한, 돼지 인플루엔자 확인

- 북한은 몇몇 도에서 돼지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고 처음 확인함.
 - 북한 보건성은 평양 및 신의주에서 9건의 H1N1형 돼지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고 공식 발표함.
- 한국의 통일부는 이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타미플루와 기타 의약품을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북측에 통보할 예정임.

- 한국의 민간지원단체인 좋은벗들에 의하면 지난 11월 평양과 평성에서 이미 여러 명의 어린이가 돼지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사망하였으며 북한에는 치료약이 없이 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함.
- 한국 정부는 북한의 신종 돼지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1,50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북한에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음.
 - 지원품에는 40만 명 분의 타미플루, 10만 명 분의 리렌자 등 50만 명 분의 항바이러스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 지원 금액은 178억 원 상당임.

자료: <http://www.reliefweb.int> (Agence France Presse, North Korea confirms swine flu cases, Dec. 09, 2009)

<http://www.reliefweb.int> (Agence France Presse, Seoul to spend 15 million dollars on flu to N.Korea, Dec. 14, 2009)

□ 북한 인구 총 2,400만 명

- 유엔인구기금에 의하면 2008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북한 전역에 인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의 총인구는 2,400만 명으로 조사됨.
 -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이 사실은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된 전국 규모의 집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고 전함.
 -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된 집회에는 유엔개발계획의 제롬 소비자 평양사무소 대표를 비롯하여 주요 공직자들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짐.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 Population Fund, N.Korea's population totals 24 million, Dec. 18, 2009)

□ 정부, 국내 NGO 통해 추가 대북지원

- 정부는 국내 민간 대북지원단체들의 북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수십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임.
 - 이번 지원은 주로 평양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임산부 등에 대한 영양 공급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총 규모는 50~100억 원 사이인 것으로 전해짐.
 - 2009년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80억 원을 제

공할 계획이었으나 북한 핵실험 등 악재가 겹치면서 현재까지 약 45억 원을 지원 하는 데 그침.

자료: <http://www.dailynk.com> (테일리NK, “정부, 국내 NGO 통해 추가 대북지원,” 2009. 12. 23)

□ 한국, 북한에 2,200만 달러 상당 지원

- 한국은 12월 들어 두 번째로 북한에 2,200만 달러(260억 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짐.
 - 통일부는 세계보건기구의 영양실조 어린이 지원 프로그램에 152억 원, 유엔아동 기금에 4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자료: <http://www.reliefweb.int> (AFP, S.Korea to provide aid worth 22 million dollars to N.Korea, Dec. 28, 2009)

□ WFP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2년째 ‘제로’

-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2년 연속 성사되지 못하고 있음.
 - 통일부 관계자는 12월 28일 국제기구와 국내 민간단체들의 북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약 260억 원을 제공키로 한 것이 2009년 정부가 추진한 마지막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며 WFP를 통한 지원은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 정부는 2009년 12월 28일 WHO와 UNICEF의 대북 지원사업에 각각 1,300만 달러와 400만 달러를 지원하고 국내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사업에 약 60억 원을 제공키로 했지만 WFP를 통한 지원은 하지 않음.
 - WFP는 2009년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시 하는 정부의 기조를 반영하여 영유아, 임산부의 영양 개선을 위한 750만 달러 상당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지만 정부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함. 이에 대해 정부는 WFP가 특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지만 정부는 조달 및 배송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내 민간단체의 유사한 프로그램에 지원하였다고 설명함.
 - 정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WFP측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WFP를 통한 대북 지원에 동참하지 않고 있음.

- 한국 정부는 2001~2004년 동안 매년 옥수수 10만 톤씩, 2007년에는 옥수수, 콩, 밀, 분유 등 2,000만 달러 상당의 물자를 WFP를 통해 북한에 지원하였음.

자료: <http://www.dailynk.com> (테일리NK, “WFP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2년째 제로,” 2009. 12. 29)

□ 북한 화폐개혁, 인플레이·식량부족 악화 초래

- 2009년 11월 30일 전격적으로 단행된 화폐개혁 조치로 북한이 인플레이션과 식량부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WP)가 보도함.
 - 최근 10년 동안 시장부문은 고용과 식량배분 등에서 과거 중앙정부가 수행해왔던 기능을 실질적으로 대체해왔으며 이러한 시장기능의 확산은 김정일 위원장과 군부를 분노케 만들었고 이들은 결국 화폐개혁을 통해 시장경제를 단속하게 되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임.
 - 최근 북한 중앙은행의 한 간부가 재일본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화폐개혁을 통해 북한은 자유시장 대신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원칙과 질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화폐개혁의 주요한 목적은 무역업자를 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데 있으나 심각한 식량부족 현상이 초래되어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허덕이는 주민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北화폐개혁, 인플레이·식량부족 악화 초래,” 2010. 01. 07)

□ 월드비전, 북한에서 바이오연료사업 계획

- 국제민간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이 북한에서 바이오연료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함.
 - 월드비전의 빅터 슈 북한담당 국장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인분이나 축분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취사연료와 전기를 공급하는 바이오연료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 슈 국장은 바이오연료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나무 땔감이나 석탄의 대체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서 이 사업에 대해 북한측과 협의 중이라고 함.

- 월드비전은 앞으로 2년 동안 35만 달러를 들여 함경북도 칠봉리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식수 개선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슈 국장은 이 사업을 위해 3월 중순이나 늦어도 4월 말 이전에 미국의 전문 기술자가 북한을 방문하여 현지를 방문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임.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월드비전, 北에서 바이오연료 사업 계획,” 2010. 01. 13)

□ 강원도, 北 강원과 교류 재배 기대

- 최근 정부가 남북교류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그 동안 북 강원도와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강원도가 기대감을 갖고 있음.
- 강원도에 따르면 여건이 성숙되면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북한 핵실험 등으로 인해 지난해 착공하려고 했던 송어 양식장을 오는 6월 북강원도 안변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 강원도는 안변 연어부화장과 양어 사료공장 운영에 필요한 사료 42톤을 지원하고 금강산에서 양돈장과 농기계수리소 등을 운영하는 공동 영농사업을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음.
- 이 외에도 강원도는 오는 6~8월 금강산 1,600ha와 북강원도 1,100ha를 대상으로 솔잎혹파리와 잣나무 넓적잎벌 방제작업을 실시할 예정임.
- 강원도는 지난해 2월 평양과 금강산을 방문하여 민족화해협의회 및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관계자와 실무 협의를 갖고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서를 교환하였으나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합의한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였음.
- 강원도는 2001년부터 금강산에서 연어 치어 공동방류를 비롯하여 연어 부화장 건립, 양변 양어사료장 건립, 산림병충해 방제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강원도, 北 강원과 교류 재배 기대감,” 2010. 01. 11)

□ 북한에서 모종 키운 경남의 통일딸기 1월 13일 수확

- 북한에서 모종을 키워 들여온 경남의 통일딸기가 1월 13일 수확됨.

- 통일딸기는 2007년과 2008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재배를 하는 것이며 올해는 작황이 좋아 50톤의 딸기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수확되는 통일딸기는 모두 10만 포기이며 지난해 9월 경남에 들여와 겨울 동안 재배한 것임.
- 통일딸기는 통상 1~2월에 수확하는데 지난해에는 북에서 들여온 모종이 담배피저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와 전락 폐기되어 생산을 하지 못하였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北에서 모종 키운 경남 통일딸기 13일 수확,” 2010. 01. 18)

□ 월드비전, 북한에 밀가루 500톤 지원

- 국제민간구조단체인 월드비전은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의 요청에 의해 1억 8천 만 원 상당의 밀가루 500톤을 배편으로 북한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힘.
 - 통일부는 한 주 반출량을 100톤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1월 20일 인천항을 통해 1차분 100톤을 북한 남포항으로 보내게 되며 나머지 400톤은 4주 동안 같은 방식으로 북한에 전달할 계획임.
- 월드비전이 이번에 보내는 밀가루는 백두산 근처의 양강도 대흥단군에 어린이를 둔 가정에 우선 지원하라고 북측에 요청하였으며 추후 북한으로부터 분배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임. 월드비전은 2009년 밀가루 300톤을 북한에 전달한 바 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월드비전, 북한에 밀가루 500t 지원,” 2010. 1. 19)

□ 한국 정부, 인천항에 묶인 대북 지원 물자 반출 승인

- 한국 정부는 지난해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대북 물자반출을 제한해 왔으나 최근 인천항에 발이 묶여 있는 영농자재와 의료기기의 반출을 승인함.
 -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승인은 그 동안 최고 수 천만원의 보관료를 물어야 했던 대북 지원단체들의 애로 해소 차원에서 취한 예외적인 조치라며 기존 물자 반출 제한은 북핵문제의 진전이 없는 이상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함.

- 이번에 반출이 승인된 물품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월드비전 등 5개 대북지원단체가 항만 창고에 보관하거나 야적 중이던 약 9억 원 어치로 온실비닐, 양돈장 설비, 경운기, 초음파 장비 등임.
- 그동안 정부는 긴급구호 차원의 의약품과 식량 등에 대해서만 반출을 허용해왔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정부, 인천항에 묶인 대북물자 반출 승인,” 2010. 1. 14.)

□ 유럽연합의 지원에 의해 북한 과학자 2명 네덜란드서 농업박사 과정

- 북한의 농업과학자 2명이 네덜란드 바게닝겐대학에서 감자 재배를 전공으로 농업박사 과정을 밟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함.
- 북한의 농업과학자 2명이 박사 과정을 밟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유럽연합이 지원하며 향후 3년간 56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 처음 1년은 네덜란드에 머물면서 기본적인 박사 수업을 받고 그 후에는 북한의 토양과 환경에 맞으며 병해충에도 강한 감자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북한과 네덜란드를 오가며 공동 연구에 주력할 계획임.
- 바게닝겐대학은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 농업과학원과 감자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해왔으며 2008년과 2009년에는 네덜란드 농림부와 FAO의 지원으로 기술교육, 단기연수 등의 형식으로 교류가 이루어졌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北과학자 2명, 네덜란드서 농업박사 과정,” 2010. 1. 15)

□ 북한, 식량사정 안 좋은 듯

-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의하면 최근 북중 변경 지역의 중국 상인에게 쌀이나 밀가루를 사려는 북한 내부의 주문이 쇠도하고 있다고 함.
- 곡물 이외의 주문은 거의 끊겨 중국 상인들이 심한 불경기를 겪고 있다고 함.
- 곡물을 주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주로 북한 내부의 개인 상인일 것으로 추정됨.
- 최근 중국 상인에 대한 북한의 곡물 주문이 급증하는 이유는 장마당이 위축되어 식량이 유통되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됨.

- 한 무역업자에 의하면 화폐교환 직후 신의주에서는 쌀 1kg이 신권 40원 정도에 거래되었으나 최근에는 200원이 넘는다고 쌀을 사려는 사람만 있고 파는 사람은 없어 쌀값이 계속 오를 상황이며 앞으로 북한의 쌀 밀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함
- 북한으로부터 쌀과 밀가루를 보내 달라는 주문은 폭증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북한에 곡물을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곡물 수출허가를 신청하더라도 2월 하순께나 허가증이 나오며 실제 수출은 3월이 되어야 가능함.
- 북한 당국이 시장기능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게 되면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며 중국으로부터 식량을 밀반입하려는 시도는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보임.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북→중 곡물주문 급증..북한 식량사정 안 좋은 듯,” 2010. 1. 19)

북중 교역 동향

1. 북한의 곡물 수입 동향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2008~2009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08.11	0	0	0	72	0	5,748	5,820
12	0	0	0	252	0	252	504
2009.01	0	0	905	0	368	0	1,273
2	0	609	1,432	0	272	0	2,313
3	122	354	2,297	0	739	1,551	5,063
4	0	371	1,250	0	430	3,512	5,563
5	0	3,745	2,474	21	927	5,171	12,338
6	0	7,483	2,061	63	584	500	10,691
7	0	1,885	2,483	0	3,203	45	7,616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0	5,281	7,757	28	6,212	11	19,289
2009.1-12	122	19,729	20,660	111	12,734	10,810	64,166
2007.11	0	2,880	1,570	164	3,527	840	8,981
12	0	1,758	7,217	164	5,350	72	14,561
2008. 1	0	547	3,707	0	1,770	674	6,698
2	0	6,875	2,976	2	0	1,331	11,184
3	160	4,300	38	0	0	7,166	11,664
4	0	0	0	0	0	97	97
5	0	0	0	0	0	166	166
6	0	11,504	0	0	0	0	11,504
7	0	4,410	0	0	0	0	4,410
8	0	0	0	30	0	38	68
9	0	0	0	73	0	1,037	1,110
10	0	0	0	0	0	438	438
11	0	0	0	72	0	5,748	5,820
12	0	0	0	252	0	252	504
2008.1-12	160	27,637	6,721	324	1,770	17,990	54,601

주 : 2009년 8월 이후 중국은 북중교역 통계를 발표하지 않다가 12월에 다시 발표함. 2009년 12월의 통계치가 단순히 12월 분 만인지 8-12월의 누적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누적일 가능성이 높음.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2008~2009

단위 : 수입량(천 톤)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08.11	0	0	0	179	0	7,731	7,910
12	0	0	0	600	0	315	915
2009.01	0	0	2,621	0	1,248	0	3,869
2	0	2,670	4,022	0	928	0	7,620
3	350	1,492	6,191	0	2,352	3,277	13,662
4	0	1,574	3,474	0	1,431	8,903	15,382
5	0	15,966	6,489	54	2,942	12,566	38,017
6	0	30,884	5,331	155	1,872	829	39,071
7	0	7,748	6,419	0	10,545	75	24,787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0	22,785	19,141	59	18,949	22	60,956
2009.1-12	350	83,119	53,687	268	40,265	25,701	203,390
2007.11	0	14,588	5,053	360	13,527	1,413	34,941
12	0	9,065	21,834	447	20,349	74	51,769
2008. 1	0	2,548	11,116	0	6,642	1,093	21,399
2	0	27,588	8,864	21	0	2,782	39,255
3	390	16,132	99	0	0	14,963	31,584
4	0	0	0	0	0	123	123
5	0	0	0	0	0	210	210
6	0	37,111	0	0	0	0	37,111
7	0	14,227	0	0	0	0	14,227
8	0	0	0	67	0	45	112
9	0	0	0	150	0	1,140	1,290
10	0	0	0	0	0	600	600
11	0	0	0	179	0	7,731	7,910
12	0	0	0	600	0	315	915
2008.1-12	390	97,606	20,079	779	6,642	30,170	155,666

주 : 2009년 8월 이후 중국은 북중교역 통계를 발표하지 않다가 12월에 다시 발표함. 2009년 12월의 통계치가 단순히 12월 분 만인지 8-12월의 누적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누적일 가능성이 높음.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2009년 중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류의 총량은 203,390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55,666톤에 비해 30%가량 증가하였음.
 - 곡물류의 수입액도 2008년의 5,460만 달러에서 6,417만 달러로 증가함.
 - 2009년의 품목별 수입 특징을 2008년과 비교하면 옥수수과 두류의 수입량은 전년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으나 쌀과 밀가루의 수입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보리, 옥수수, 두류의 경우 2008년에 비해 2009년의 수입 단가가 하락하였으나 쌀과 밀가루의 수입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였음.
 - 2009년의 곡종별 수입 단가를 비교하면 두류가 톤당 421달러로 가장 높으며 이어 잡곡 414달러, 쌀 385달러, 보리 349달러, 밀가루 306달러, 옥수수 237달러 순임.

- 2009년 8월 이후 중국은 몇 개월간 북중 교역통계 발표를 중단하다가 12월에 발표를 재개함.
 - 중국이 북중 교역통계 발표를 중단한 이유는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이후 중국이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국제 여론의 부담 때문이란 것이 대체적인 관측임.

2. 북한의 비료 수입 동향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08~2009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08.11	0	0	0	0	0
12	1,057	0	0	1	1,058
2009.01	6,347	0	0	2	6,349
2	1,570	0	0	31	1,601
3	15	0	0	5	20
4	841	0	0	16	857
5	677	0	0	8	685
6	2,396	0	0	1	2,397
7	10,240	0	0	0	10,240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107	12	0	20	139
2009.1-12	22,191	12	0	82	22,285
2007.11	0	0	0	0	0
12	0	0	0	0	0
2008. 1	160	0	0	1	161
2	881	0	0	0	881
3	1,276	0	10	38	1,324
4	1,027	0	1	45	1,073
5	1,919	0	0	1	1,920
6	2,176	0	0	30	2,206
7	4,091	0	0	2	4,093
8	4	0	0	0	4
9	0	0	0	0	0
10	0	0	0	0	0
11	0	0	0	0	0
12	1,057	0	0	1	1,058
2008.1-12	12,590	0	11	119	12,720

주 : 2009년 8월 이후 중국은 북중교역 통계를 발표하지 않다가 12월에 다시 발표함. 2009년 12월의 통계치가 단순히 12월 분 만인지 8-12월의 누적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누적일 가능성이 높음.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08~2009

단위 : 수입량(천 톤)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08.11	0	0	0	0	0
12	3,698	0	0	5	3,703
2009.01	21,900	0	0	5	21,905
2	5,486	0	0	40	5,526
3	59	0	0	8	67
4	6,001	1	0	32	6,034
5	4,589	0	0	10	4,599
6	20,745	0	0	3	20,748
7	46,534	0	0	0	46,534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385	60	0	35	480
2009.1-12	105,700	61	0	132	105,893
2007.11	0	0	0	0	0
12	0	0	0	0	0
2008. 1	632	0	0	3	635
2	2,525	0	0	0	2,525
3	3,800	0	22	117	3,939
4	2,765	0	4	157	2,926
5	5,645	0	0	1	5,646
6	5,738	0	0	40	5,778
7	6,365	0	0	7	6,372
8	10	0	0	0	10
9	0	0	0	0	0
10	0	0	0	0	0
11	0	0	0	0	0
12	3,698	0	0	5	3,703
2008.1-12	31,178	0	26	330	31,534

주 : 2009년 8월 이후 중국은 북중교역 통계를 발표하지 않다가 12월에 다시 발표함. 2009년 12월의 통계치가 단순히 12월 분 만인지 8-12월의 누적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누적일 가능성이 높음.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2009년 중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총 105,893톤(중량 기준)의 비료를 수입함으로써 전년 같은 기간의 31,534톤과 비교할 때 3배 이상의 수입량을 보이고 있음.
 - 이를 성분량으로 환산하면 36,000톤 정도임.
 - 수입된 비료의 구성을 살펴보면 질소 비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인산과 칼리 비료는 수입 실적이 전혀 없음.
 - 북한은 2009년 자체 비료 생산을 크게 증가시켰으나 필요량에는 미치지 못함.
 - 이처럼 북한이 비료 수입을 늘린 것은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한국의 대북 비료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임.

- 2009년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의 평균 단가는 전년의 톤 당 403달러에서 210달러로 크게 하락하였음.
 - 이는 국제 비료가격의 하락추세 때문이기도 있지만 2009년에는 요소의 비중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유안의 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09년 북한의 전체 비료 수입량의 47%가 유안, 나머지는 대부분 요소 비료였음.
 - 2008년 북한의 전체 비료 수입량의 90%가 요소 비료였으며 유안은 8%에 불과함.

- 한국은 1999년부터 매년 30~35만 톤의 비료를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하였으나 2008년에는 지원을 전면 중단하였으며 2009년에도 비료 지원이 중단되었음.

- 북한은 2009년 흥남비료연합기업소를 통해 화학비료 생산을 크게 늘렸으며 최근 낙원기계연합기업소에서는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무연탄 가스화 공정에 사용할 대형 산소분리기를 제작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이를 이용하여 화학비료를 추가로 생산할 것으로 예상됨.

농업자료

● 북한의 기상

북한의 기상

□ 기 온

- 2009년 10월의 기온은 평년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11월, 12월 기온은 평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음.
 - 10월 평균 기온은 11.4℃로 평년에 비해 1.2℃ 높았으나, 11월은 1.8℃로 평년에 비해 0.7℃, 12월은 -5.8℃로 평년에 비해 1.2℃ 낮았음.
 - 2008년의 경우 7, 8, 11, 12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달의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1, 2, 5월은 평년에 비해 2℃ 이상 높았음.
- 수확기(9~10월)의 높은 기온은 벼의 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벼의 작황 호조를 가져옴.

□ 강수량

- 2009년 10월, 12월의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 높았으나 11월은 평년에 비해 낮았음.
 - 10월 강수량은 평년의 약 1.7배에 해당할 정도로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많았음. 이에 따라 벼와 옥수수 등 가을에 수확하는 작물의 수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11월의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 적고, 12월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임. 가을 밀과 가을보리의 습해 피해는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듯함.
- 평양, 남포, 해주, 사리원, 개성 등 서해안 지대의 10~12월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임. 이러한 추세가 2010년 새해에도 이어질 경우 겨울 가뭄 걱정은 없을 듯 함.

□ 누적강수량, 10~12월

단위: mm

선봉	삼지연	청진	중강	혜산	강계	풍산
53.4 (72.9)	96.4 (110.4)	99.9 (82.6)	73.0 (73.3)	61.0 (52.1)	84.5 (88.2)	75.4 (67.9)
김책	수풍	장진	신의주	구성	희천	함흥
100.0 (115.1)	117.1 (107.2)	84.6 (74.0)	110.7 (103.5)	145.1 (105.7)	136.0 (125.1)	103.4 (91.2)
신포	안주	양덕	원산	평양	남포	장전
93.4 (102.5)	132.2 (94.4)	157.1 (93.6)	152.1 (170.0)	124.2 (96.3)	152.0 (118.4)	362.4 (266.3)
사리원	신계	용연	해주	개성	평강	
115.6 (106.0)	105.3 (106.4)	138.8 (92.1)	148.8 (92.1)	113.1 (97.2)	154.9 (122.1)	

* ()는 평년 누적강수량을 나타냄.

□ 북한 주요지역의 월평균기온 및 강수량

단위: °C(기온), mm(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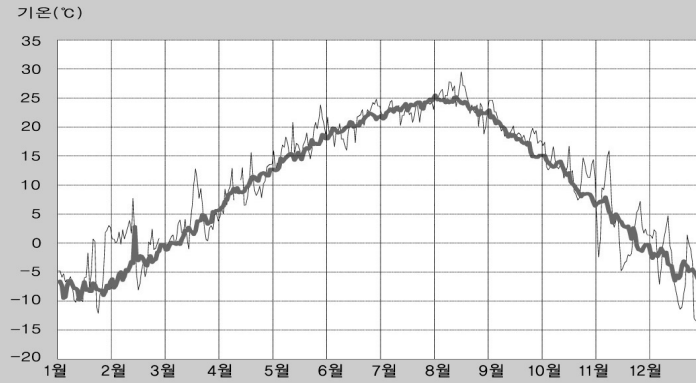
구 분	안주	평양	해주	청진	함흥	원산	
10월	기 온 (11.1)	12.7 (11.1)	13.7 (11.8)	15.7 (13.6)	12.7 (10.9)	13.0 (12.0)	14.5 (13.4)
	강수량 (41.2)	103.4 (41.2)	95.0 (43.3)	110.6 (36.0)	62.5 (30.4)	51.6 (40.1)	75.0 (66.3)
11월	기 온 (3.3)	3.3 (3.3)	4.5 (4.1)	6.3 (6.1)	1.6 (3.5)	4.4 (4.7)	5.6 (6.6)
	강수량 (38.7)	26.2 (38.7)	4.2 (34.6)	20.2 (38.8)	18.8 (33.3)	30.1 (36.0)	68.8 (74.7)
12월	기 온 (-4.0)	-4.6 (-4.0)	-3.9 (-3.1)	-1.3 (-0.6)	-3.0 (-2.7)	-1.8 (-1.4)	-0.8 (0.6)
	강수량 (14.5)	11.7 (14.5)	25 (18.4)	18.0 (17.3)	18.6 (18.9)	28.8 (15.1)	46.0 (29.0)

* ()는 평년 평균기온 및 강수량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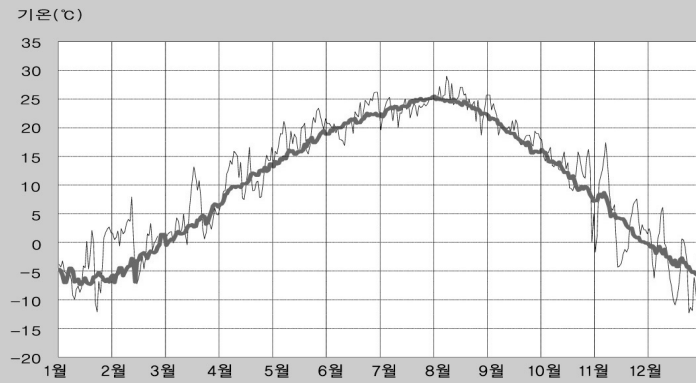
27개 기상관측지역의 평년 기후값 가운데 선봉, 청진, 중강, 혜산, 강계, 신의주, 함흥, 원산, 평양, 사리원, 해주, 개성 등 13개 지역의 통계기간은 1973~1994년이며, 삼지연, 풍산, 수풍, 장진, 구성, 희천, 신포, 안주, 양덕, 남포, 장전, 신계, 용연, 평강 등 14개 지역의 통계기간은 1981~1994년임.

□ 월 평균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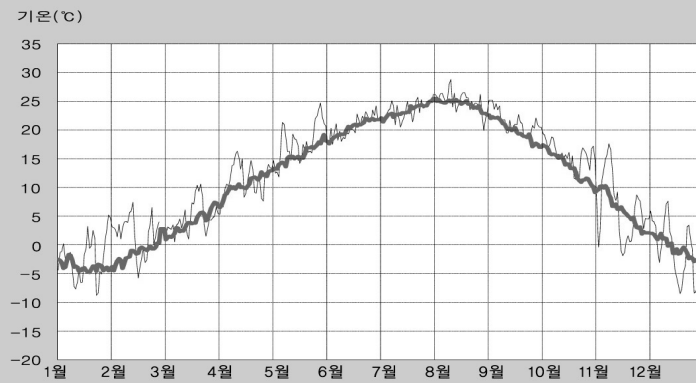
안주



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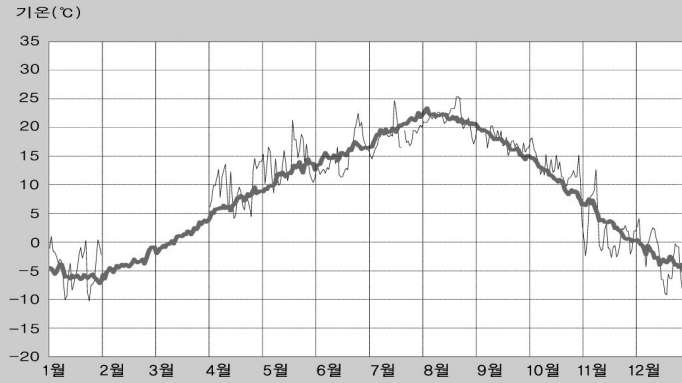


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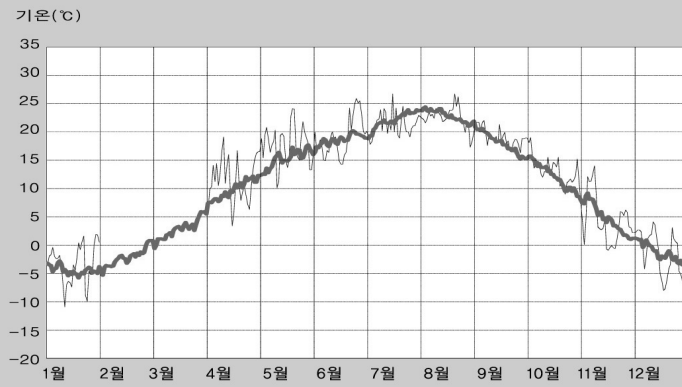


— 09년 — 평년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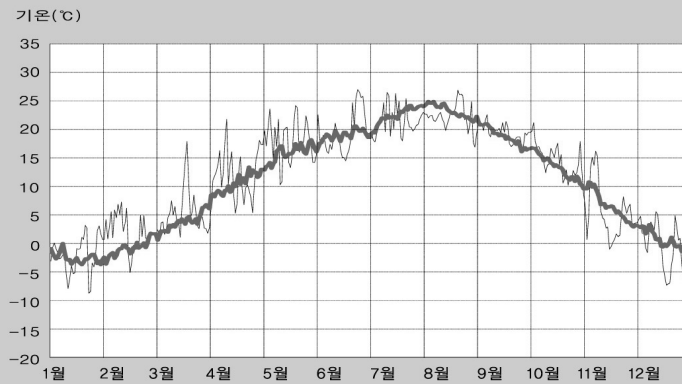
청진



함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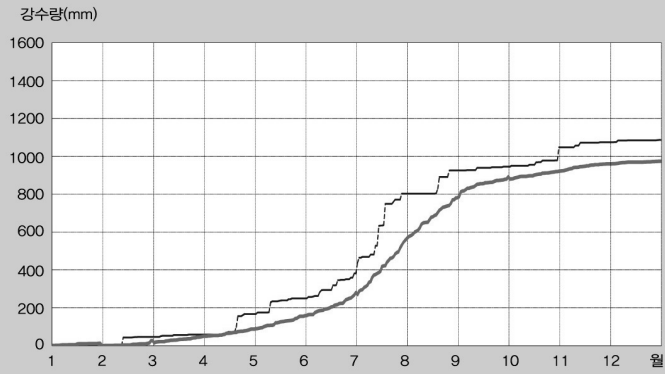
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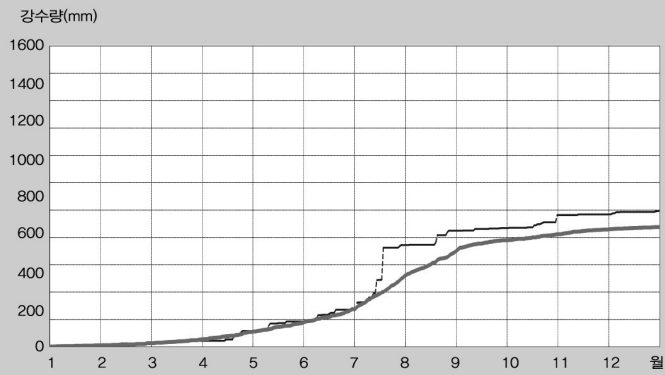
— 09년 — 평년 기온

□ 누적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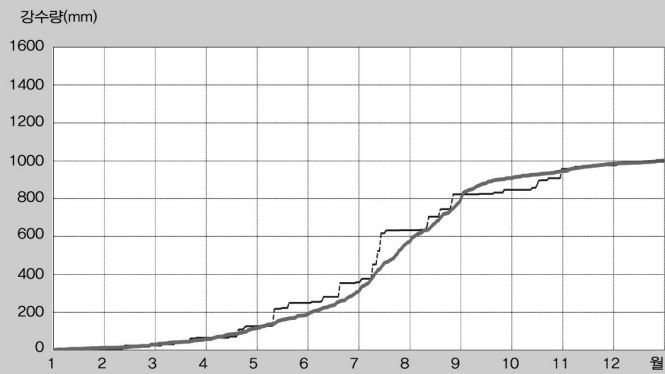
안주



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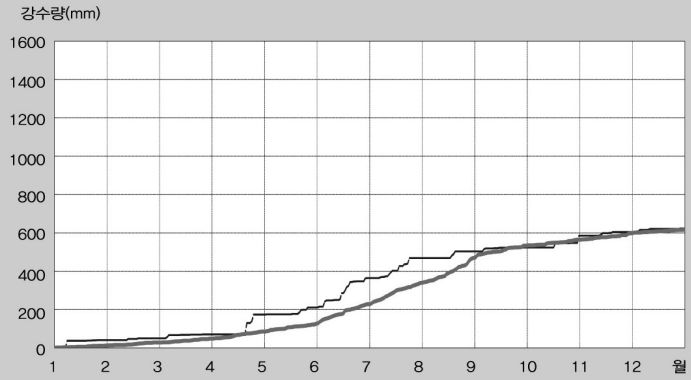


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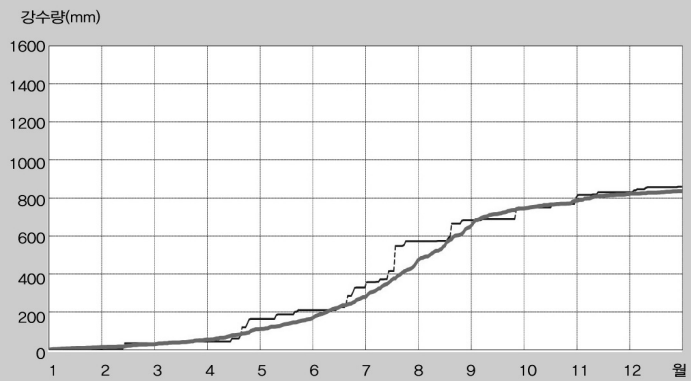


----- 09년 강수량 ————— 평년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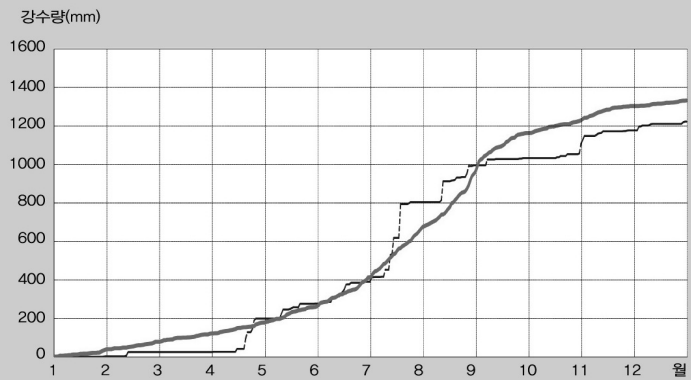
청진



함흥



원산



----- 09년 강수량 ————— 평년 강수량

E02-2009-04 KREI 북한농업동향 제11권 제4호

찍 은 날 2010. 1. 퍼낸날 2010. 1.
발 행 인 오 세 익
퍼 낸 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 은 곳 경희정보인쇄(주) (代) 2263-7534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